아이낳기 좋은세상
인천시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 기호일보

인천 23~29℃ | 강화 22~30℃ | 오늘의 날씨 〈34면〉

기호일보 인천판

kihoilbo.co.kr

제7523호 2014년 7월 21일 (월)

創刊 1988년 7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544-9004 www.cmcism.or.kr

대표전화 : (인천) 032-761-0001 (경기) 031-898-6767~8

본보 창간 26주년 | 생존경쟁 속 나를 찾아서… '88둥이'가 말하는 희망

기호일보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 태어난 '88둥이'와 희망을 이야기했다. 취업준비생 김두훈, 의류쇼핑몰 디자이너 곽혜선, 청년CEO 차혜림, 예비신부 이선미, 직장인 당희경(왼쪽부터)씨가 지난 2일 동인천역 인근 복합문화공간인 '콘서트하우스 현'에서 환하게 웃으며 '26'이란 숫자에 '희망'을 적어 보이고 있다. '희망' 아이콘으로 불리던 이들에게는 '88만 원 세대'란 또 다른 꼬리표가 달려 있다. 〈관련 기사 16·17면〉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AG 남북화합 정체… 속 타는 인천시

실무회담 이후 통일부는 여전히 공동 입장·응원단 불가 입장

북 김정은, 축구단 경기지도로 압박… 시 "논의 진척 바랄 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남북 간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 아시안게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인천AG 남북 실무접촉 회담 이후에도 정부는 남북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단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부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천시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동지께서 인천AG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를 지도했다"며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해 숭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등을 발휘해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결렬로 끝난 남북 실무접촉을 염두에 두고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측은 남북 실무접촉 회담에서 선수단과 응원단을 역대 최대 규모인 각 350명 파견을 제안하면서 인천AG의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을 통한 전세계의 이목 집중에 적지 않은 흥행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천시 역시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로 ▶인천이 남북 평화 화해 분위기의 시초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객 유치 기회 ▶세계 언론의 집중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홍보 등의 이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 참가와 아울러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북 교류사업 및 '평화도시 인천' 관련 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구성 등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체 발사로 대북 국민 정서가 악화됨에 따라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느냐"며 시에 민원 전화를 걸고 있어 더욱 난감한 실정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시가 성공 인천AG 개최를 위해 심각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수천억 원의 예산과 상당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대회에서 상당한 흥행요소를 지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논의가 인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7일 남북 실무접촉 회담에서 북한 응원단이 묵을 숙소를 남측에 따로 정하지 않고 만경봉92호를 인천항에 정박시켜 자체 숙식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시, 규제개혁추진단 규모 늘리고 철도교통망 전담 부서 신설 전망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개혁추진단 확대개편안을 요청했다. 최근 각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유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안전행정부 조치에 따라 올 4월부터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운영 중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인원 부족으로 5급직(사무관급)을 단장으로 전체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데 그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5~6월 조명우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규제 개혁 발굴보고회를 갖고 112건에 달하는 규제를 발굴했지만 대부분 공무원 시각에서 제시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민간이나 기업 등 수요자 시각에 맞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께 3~4급(부이사관 및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하고 기존 1개 팀에서 2~3개 팀으로 인원을 보강한 추진단이 새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철도교통망 확충을 전담할 철도정책과 신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 조직으로는 인천발 KTX 노선 신설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역 연장 등 철도 관련 공약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다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등 신규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같은 날 열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정회진 기자 jhj@kihoilbo.co.kr

포스코 자사고 지원 철회 28일 시교육청 입에 주목

시교육청 결단에 경제청 반발

실시협약 주체 점검회의 예정

논란 잠재울 대안 나올지 관심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포항제철송도고등학교(포스코자율형사립고)를 놓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협약주체 간에 극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자사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최근 시교육청이 설립 재원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천경제청과 송도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등 협약주체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20일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 자사고는 지난해 8월 30일 건축승인 이후 연수구 송도동 15-6번지 일원 총 2만5천여㎡ 부지에 교과교실과 체육관, 도서관, 식당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청과 시교육청, 송도NSIC는 2012년 11월 실시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나섰다. 경제청과 시교육청은 각각 40억 원, 송도NSIC는 210억 원의 재원을 출연키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당초 실시협약과 달리 재원 출자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청연 교육감이 자사고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영종하늘고 건립에 시교육청이 설립성 경비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비슷한 경우인 포스코 자사고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인천경제청은 교육청의 입장 철회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 설립 지원을 철회하고 인천시에 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하겠다"고 강경 대처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설립주체인 송도NSIC도 발끈하고 나섰다.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가 잇따르면서 우수 학교가 부족해 임직원 입주 유도에 난항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사고 설립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 자사고 입학을 준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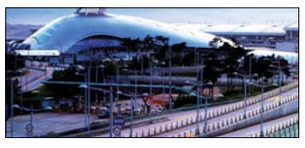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신임 교육감의 자사고 설립 반대 의지도 있지만 자사고 설립성 경비 지원에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경비 지원을 제외한 자사고 설립 행정절차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협약 주체들은 28일 포스코 자사고 설립과 관련한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광범 기자

창간 26 특집 36면 발행합니다
찍어보세요, 본보 모바일 앱 QR코드

희망인천



혁신경기

강화산단, 탈인천 기업 리턴 ▶10
인천공항, 서비스 최고 인증 ▶11
신세계와 롯데의 유통 경쟁 ▶12
유정복호 통일사업 향배는 ▶15
경기혁신교육 새 옷을 입다 ▶20
한국의 신성장 아이콘 평택 ▶22
친환경 로컬푸드 메카 양평 ▶23
광명 블루칩 가학광산동굴 ▶24

참일꾼 발굴부터 청년과의 소통까지

제2회 기호 참일꾼상 수상자 ▶13
대학생 6명이 본 기호일보 ▶14

아시아 스포츠 동반성장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60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0일 수원우체국에서 우편집배원들이 오토바이에 투표로 응원하라는 깃발을 달고 우편물 배달에 나서며 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수원에서는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등 모두 3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 co. kr

9시 등교 "긍정 효과" "획일화 강요" 찬반 논란

이재정 도교육감 "2학기부터 시행" 교육계 술렁
도교육청 "각 학교에 권고하는 차원일 뿐" 진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장 고유 권한인 등교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5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이 교육감 발언 이후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파악하며 오전 9시에 학생들을 등교시킬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9시 등교 시행계획이 알려지면서 교육단체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교육청 차원의 일방적·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도교육청은 강요가 아닌 권고라고 설명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반복 강조하는 정책은 일선 학교 입장에서 강요나 다름없다"며 "등교시간은 학교 스스로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게시판에 "고2 아이는 아침 6시 30분에 나간다. 공부 좀 하다 자면 5시간도 채 못 잔다. 교육감이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본다"고 찬성 입장의 글을 올렸다.

또 일부 학생들은 9시 등교를 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고 교육감의 추진 방침에 대해 환호하는 반응이다.

반면 다른 학부모들은 "등교가 늦어지면 하교도 늦어질 거 아니냐.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온종일 밥도 못 먹고 밤 늦게까지 학원 숙제하느라 잠도 모자라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며 등교시간을 늦추는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런 논란 속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9시 등교는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권고하는 차원"이라며 "그 취지에 맞게 교육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 co. kr

인천시교육청 투명성 높여라

개방형 감사관 임용 나서
29일 ~ 내달 5일 원서접수

인천시교육청이 개방형 감사관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관 공모는 공직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방부이사관(3급) 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3급 상당)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감사관 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공고했으며,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다음 달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후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공모 자격조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나 외부인사 모두 응시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할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인재가 많이 응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 감사관 임용으로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여 인천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ice.go.kr)의 시험정보,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23일 문 열고 일자리 사업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제물포스마트타운 3층으로 이전, 오는 2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달 13일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와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으로 이곳 센터는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 등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식 및 노인 일자리 구인·구직 상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032-886-1855)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 co. kr

남한산성 역사적 가치 재조명

세계문화유산 선정 발맞춰
도, 심포지엄·기념식 채비

남한산성이 한국의 11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와 25일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400년의 천작지성(天作之城), 천년(千年)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경기도립국악단의 식전 축하공연과 기념식, 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 풍등 날리기 등의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천작지성은 천혜의 요새라는 뜻을 가진 말로 반계 유형원이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 남한산성을 묘사한 말이다.

도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동국대 이혜은 교수를 비롯해 한국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3명과 임권웅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념행사에 이어 25일 오후 2시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남한산성 국제 학술심포지엄에는 중국과 이스라엘, 호주, 인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국의 ICOMOS 위원들이 참가해 나라별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남한산성 보존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박재광 건국대박물관 학예실장, 이천우 문화재청 전문위원, 김준혁 한신대 교수, 최종호 한국전통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남한산성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를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다른 나라의 세계문화유산 보존 사례를 살펴보고 남한산성의 향후 보존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 co. kr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서 전국 형사법관 포럼 열려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형사법관 50여 명이 지난 18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 모여 제3회 전국 형사법관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현직 형사법관들은 올해 상반기 사법 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에 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심담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불만은 양형에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양형을 하게 되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판사는 "최근 황제노역, 아동학대 사건, 대형 참사사건의 관대한 양형 등 법원 양형과 국민 법 감정 괴리가 크고 변화된 사회인식에 제때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며 "현재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양형 감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에는 양형의 근거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선배 법관들로부터 대대적으로 전수받고 있으나 이는 몇 십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데, 국민의식 수준 변화에 비쳐볼 때 현재의 양형감각은 그 근거와 정당성이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충분히 공감하며 양형심리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이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 co. kr

경기신보, 바른 직장문화 정착 등 집합교육 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경영 실천과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직원들이 공유하고, 고객 만족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들의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 co. kr

2014년도 소공인 기술 · 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 의 보유기술 ·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4년도 소공인 기술 · 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R&D 수행경험, 역량 및 인력 등이 부족한 소공인의 R&D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소공인 특화 R&D지원체계를 마련
○ 과제개발 전주기별 과제기획과 신기술, 제품 · 공정개선, 브랜드 · 디자인 분야 등에 소요되는 과제개발을 단계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14년 7월 ~ ' 15년 3월
□ 지원대상 : 아래 특화분야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업체
* 신발제조업, 인쇄제조업, 의류(패션)제조업, 기계 · 금속 · 장비제조업, 식품제조업, 귀금속(쥬얼리)제조업
□ 신청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자유응모형 과제)
□ 지원분야 : ① 신기술 개발, ② 제품 · 공정개선, ③ 브랜드 · 디자인 개발
□ 지원금액 : 40백만원 한도(30개 지원과제 내외)

지원내용 : 과제기획 및 과제개발 지원

□ (1 단계) 신청과제 과제기획 지원(관련예산 소진시까지)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약식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신청과제 작성 지원
□ (2 단계) 예비과제 과제기획 지원(60개 과제 내외)
– 서면평가를 통과한 예비과제의 과제책임자와 과제기획전문가를 매칭하고, 정식 사업계획서 수립, 기술애로 진단 등 과제기획 지원
□ (3 단계) 과제개발비 및 지원과제 멘토링 지원(30개 과제 내외)
– (과제개발)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지원과제의 개발기간 내 성공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40백만원 이내, 최대8개월)
– (멘토링) 과제개발 전념 및 행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술자문 및 제출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1:1 멘토링 지도

신청 방법사업 개요

□ 신청기간 : '14년 7월 8일(화) ~ 8월 6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신청(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은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접 수 처 :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별 관할 관리기관에 신청 · 접수
* 지역제한 없이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 · 접수가 가능하나,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별 해당 관리기관으로 신청 · 접수

문의처

지역	업 종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인천	기계 · 금속 · 장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032-588-2302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단지 편익상가 A동 B25호
서울	신발제조	서울성동제화협회	02-465-7093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인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140 (쌍림동)
	의류(패션)	한국의류산업협회	02-741-5366	서울 종로구 창신길 28-1, 2층
	기계 · 금속 · 장비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	02-2634-7727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8길 9
부산	의류(패션)	(재)부산디자인센터	051-790-10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우동)
경기	식품제조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8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동 3층 (SKⓜ테크노파크)
대구	귀금속(쥬얼리)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053-661-2361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동문동38-6)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세월호 피해자 차별 없이 지원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 인천시 방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찾아 특별법 제정 참여 요청 듣고 "국회에 뜻 전달할 것" 응답

연평도행 여객선 직접 타고 운항 횟수 등 승객불편 청취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 정박해 있는 여객선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 co. kr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인천 정부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인천 YWCA 건물에 마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안산 유가족들과 차별 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들은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일반인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세월호에 탑승했던 일부 희생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입법은 국회의 전권이나,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국회에 충분한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르바이트 희생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인천항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규정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경직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해무(海霧)로 출항이 지연된 연평도행 플라잉카페리호에 직접 승선해 승객들로부터 운항 횟수, 화물료 부담 등 불편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에게 대응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18일 세월호 3층 중앙 및 식당을 수색하던 중 주방 조리원이었던 인천시민 마지막 희생자인 이모(56·여)씨의 시신을 수습해 19일 길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했다.

이 씨는 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부상을 당했으나 동료 승무원들이 방치하고 탈출하는 바람에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20일 발인식을 진행하고 앞서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된 부평승화원 만월당에 유해를 봉안했다.

한편, 20일 현재 인천시민 세월호 승선자 최종 현황은 총 36명으로 희생 17명, 구조 19명으로 파악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 co. kr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 co. kr

영종~양재역 등 급행버스 요구 국토부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

市 노선 인가 계획 제출

인천시가 영종하늘도시~개화역 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면허 인가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에 지난 4월과 이달 두 차례 영종하늘도시~개화역, 영종~양재역을 잇는 M버스 노선 인가를 위한 운행 계획 자료와 운송 교통량, 주변 교통 환경 등 추가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7일 수도권 교통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제2차관과 수도권 지자체 버스담당 국장 등이 모여 가진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관련 회의에서 최근 인천시가 요청한 M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시의 M버스 요청은 오는 8~10월 영종하늘도시 내 운행 중인 무료 셔틀버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종 주민의 수도권 이동 편리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다.

그동안 인천시민이 서울을 가기 위한 버스 노선이 서울역과 강남역 등 2개의 경로였던 만큼 이번 노선 신설을 계기로 개화까지 세 군데로 늘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

시는 영종하늘도시~개화역 간 80.1㎞에 모두 10대를 운행하면서 13개의 정류장에서 정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영종하늘도시~양재역 간 124.6㎞는 15대로 운행하면서 12곳을 정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M버스 면허가 인가되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로의 콘셉트를 다양화해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수도권 이동의 편리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jhj@kihoilbo. co. kr

완공 늦어지고 사용료도 부담 쪽방촌 김치공장 가동 '이중고'

〈괭이부리 마을〉

주민 경제적 자립용 시설로 예산부족 등 문제 거듭 발생 동구청 "해결 방안 강구 중"

인천시 동구 만석동 쪽방촌(일명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된 김치공장(동구 만석동)이 예산, 주민 및 내부 갈등 등의 문제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20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만석동 김치공장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지난 2012년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상 2층(총면적 330㎡)규모로 지어 동구에 기부채납키로 합의한 후 지난해 완공·가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만석동 주민들과의 공해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며 한 차례 공사 착공이 늦어졌고, 또 설계과정에서 당초 5억 원의 예산이 초과하면서 공사가 올 초로 다시 연기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 5억 원으로 올 3월 공사를 착공해 이달 초에 건물은 완공했다. 현재는 1억 원(기계시설비)이 모자라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동구 행정재산이 된 김치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김치공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해맑은 김치'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사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어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연 5천만 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김치공장의 연간 사용료(5천만 원)를 면제하기 위해 지난 7일자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동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9월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된 후 통과되면 김치공장은 9월 중순께 가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장 가동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은 만석동 주민으로 구성돼 '㈜해맑은 김치'의 대표이사가 인천시 동구 내 모 정치인의 가족으로 인한 내부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일단 김치공장 내 기계설치 비용은 두산인프라코어, 자체 부담, 기부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해맑은 김치는 내년 4월께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해맑은 김치 내부 갈등은 최근 당사자를 만나 대표이사 교체를 설득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유정복 시장 강화군 방문 가뭄 피해 급수지원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강화군 가뭄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강화지역은 지난 5월 이후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까지 강우예보가 없어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강화지역 저수지 31개 중 저수율 5% 이하인 곳이 6곳에 달하며 6~30% 11곳, 31~50% 10곳 등 대부분의 저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강화군은 하점면 신봉리 등 23개 지역 194만여㎡에 하루 소방차 10대, 급수차 2대 등 250대의 장비를 동원해 긴급 급수에 나서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강화군청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들은 뒤 급수지원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양광범 기자 ykb@kihoilbo. co. kr

인천 내달 5일까지 15일간 도시계획위 민간위원 공모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각계 각층의 우수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 내부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20여 명의 민간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토목·건축·주택·교통·경관(디자인)·환경·방재·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모두 8개다.

응모자격은 인천 및 서울·경기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이며, 접수 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nakrang@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세부내용 및 관련서식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 도시계획과(☎032-440-4602)로 문의하면 된다.

정회진 기자 jhj@kihoilbo. co. kr

‘생활임금조례’ 신중에 신중… 두 번째 의견 수렴

남경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동·경영계 대표 등 재논의
찬성 vs 반대 다양한 목소리
남지사 “충분히 반영해 결정”

남경필 도지사와 노동·경영계 대표들이 노사민정 공동실천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만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대표들을 만나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남 지사는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유호상 한경대 교수,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24명의 경기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과 취임 후 첫 노사민정 협의회를 갖고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표시하며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민간부분 확대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작은 작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조용이 경기경영자총연합회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뜻을 표했다. 조 회장은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생활임금 조례에 찬성한다. 그러나 사기업 확대 우려가 있다”며 “좋은 생각이니 해나가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하는 게 좋다.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해야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상 한경대 노동연구소장도 “경기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인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경기성장 둔화의 원인은 가계 주체가 돈이 없어 부채가 늘고 소비가 줄기 때문”이라며 “생활임금 조례는 소득을 증진해서 소비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경기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생활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한 것이 생활임금 조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적용했고 큰 문제없는 만큼 큰 틀에서 봐 달라”고 추진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도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일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녹여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 co. kr

18년째 7급 ‘개판 인사’ 못 참아

이천시 공무원 1인 시위
시는 “근무태도 불성실”

이천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18년째 7급에 머물고 있다며 시장을 상대로 항의성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8일 오전부터 시청 1층 정문 로비에서 류모(50)씨가 ‘개판 인사’ 등의 내용이 적힌 푯말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류 씨는 1996년 서울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10년 뒤인 지난 2005년 3월 인사교류를 통해 이천시로 왔다.

처음 설성면에서 근무를 시작, 본청 회계과와 마장면, 평생학습센터를 거쳐 지금은 대월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천에 온 지 9년이 지났지만 외곽 근무지를 맴돌며 승진을 못한 채 7급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근무평정 서열 또한 처음 이천시 발령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 이날 현재 39위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근평을 통한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류 씨는 “승진은커녕 1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아내는 물론 자식에게 너무나 부끄러워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100명에 가까운 근속 승진인사 때 최고 12~13년 근속자까지 승진됐는데 나는 제외됐다”면서 “당시 인사 담당자가 다음 정기인사 때 승진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또다시 누락 기미가 보여 직접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류 씨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 성과가 미흡해 동료들에 비해 낮은 근무 평정 점수를 받아 그동안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 co. kr

시금고 운영조례안 검토
과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과천시의회는 21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각 실·과 사업소 등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기 위해 25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연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오는 9월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문봉선 의장은 “의정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읽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만큼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 co. kr

‘경인전철 지하화 촉구’ 100만 인 열망 꿈틀

부천시 등 5개 지자체, 새누리·새정치연합에 서명부 전달
통추위 “주거환경 피해·균형발전 발목… 공약으로 채택을”

부천시 등 경인전철 지하화를 촉구하는 5개 지자체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100만 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천시,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남동구·남구 등 경인선이 지나는 5개 자치단체의 경인선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 및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촉구했다.

경인선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건의문에서 “경인선 지상철도는 도심지를 관통해 지속적인 주거환경 피해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도시를 온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천시 31만 명을 비롯해 5개 자치단체 지역주민 102만여 명이 참여한 지하화 촉구 서명부를 여야 중앙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천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경인선지하화 추진 공동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각 지자체 민간단체 추진위원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하화 촉구 서명에 나서 지역주민 10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 co. kr

성준모 안산시의회 의장, 세월호 참사 유족 찾아 위로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은 최근 단식투쟁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안산시의회가 의결한 세월호 특위 구성안과 관련 건의안 채택에 대해 설명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사진〉

성 의장은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잇달아 방문해 유가족들에게 지난 16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성 의장은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특위 구성의 의의와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실종자 구조비용 선지급 및 손해배상액 상당 금액 선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의회 차원에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성 의장은 마침 이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유가족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안산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ihoilbo. co. kr

세월호 희생자 세금 감면안 등 심사

남양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진행 상황 등 홈페이지 생방송

남양주시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집회시기 변경의 건(제1차 정례회) ▶시정연설의 건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의결한다.

또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별 안건에서 운영위원회는 ▶간사선임의 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 처리 및 회의 진행 상황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한다.

남양주=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 co. kr

The First Innovation. 우리의 기술, 세계를 향한 도전! 글로벌 기술도약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

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벤처기업
특허청 특허기술 보유업체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서광시스템
SEOGWANGSYSTEM
http://www.i-sgs.co.kr

사업분야
♣ 불법주정차 자동단속 시스템
♣ 사각지역 단속 불법주정차 시스템
♣ 차량탑재형 자동단속 시스템
♣ 지능형 방범 감시 시스템
♣ 문제차량 자동단속 번호인식 시스템
♣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Tel : 02)432-3401 Fax : 02)2047-0035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52(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A동 720호

국회, 세월호특별법 오늘부터 재논의

여야 핵심쟁점 입장차 여전
협상일정 못잡고 진통 예상
유족 조속처리 단식 농성중
참사 100일째 24일이 고비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제327회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당초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여야는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해 왔던 '세월호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일단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담보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이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 co. kr

경기지역 7·30 재보선 현장

20일 오후 수원역 앞에서 7·30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정견발표장에 투표참여 손피켓이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 co. kr

정미경, 경로당 돌며 "현안 해결 온힘"

7·30 재·보궐선거 수원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권선지역 경로당을 돌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20일 권선구 입북동 입북경로당을 방문해 "여러분이 공천해 주셨다. 권선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천천히 끈질기게 만들고 해결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앞서 지난 17일 권선동 이마트 앞 광장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용서 전 수원시장 등 수원지역 광역·기초의원과 지지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권선구는 할 일이 정말 많은 지역이며, 그동안 멈춰 있던 수원비행장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 co. kr

백혜련 "올안에 공공도서관 3곳 확충"

7·30 재·보궐선거 수원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가 권선구에 공공도서관 확충을 공약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백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에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지난 19일 밝힌 스마트폴리스 조성 공약에 이어 발표한 백 후보의 두 번째 핵심 공약이다.

백 후보는 "올해 안께 권선구 세류동·호매실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지하화하는 수인선 상부 공간을 활용해 고색역에도 도서관을 조성하겠다"며 "권선구민의 도서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작은도서관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 co. kr

임태희, 현장서 생활체육 활성화 논의

7·30 재·보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는 20일 오전 충청향우회 및 개인택시연합회, 야구동호회, 조기축구회 및 생활체육배구협회 회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지방지치단체 모두 앞다퉈 혁신을 강조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화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가 지역 기반을 두고 대립하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정치권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젊은 미래도시 영통에서 동서 화합과 남북 통일의 불씨를 지피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 co. kr

손학규, 광교산~시장 바닥표심 훑다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19일과 20일 팔달구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손 후보는 19일 오전 지동초등학교 조기축구회 응원을 시작으로 광교산 산행객 인사에 나섰다. 오후에는 지동시장과 미나리광시장 인근 상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손 후보는 20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과 만났다.이날 오전 인계초등학교 총동문회, 충청향우회 회원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한 손 후보는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 팔달을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수원역 인근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합동 유세 현장에 참석한 그는 "민생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 팔달구에서 시작하겠다 "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 co. kr

심상정 "새정치와 야권연대 없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7·30 재·보궐선거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 "당대당 협의 제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했다"며 "더는 야권연대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은 비상한 각오로 야권연대를 위해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21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는데, 4~5% 사표가 생긴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새정치연합이 당대당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만나는 보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요구는 면피용일 가능성이 크다. 책임 회피용 제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정치연합 내에서 지역(선거구)별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의 지역별 단일화는 그야말로 이기기만을 위한 단일화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을 했다. 당의 전략에 따라 후보를 낸 셈"이라며 "그래놓고 단일화는 지역별로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 co. kr

선관위, 장애인 등 거소투표행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선과 관련해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 등이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 co. kr

장애인 대입 수험생들 다양한 편의제공 받는다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장애수험생들이 편리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다양한 편의 수단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지난 18일 대학입학 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 co. kr

쌀 전면개방, 생산농가 소득 보장하려면

수입쌀 가격차 2배불과 관세 400%이상 매겨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의원은 지난 17일 예결위 질의를 통해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18일 공식 선언하는 것과 관련, "현재 수입쌀과 국내쌀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축소된 만큼 우리나라가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을 400% 이상 최대한 부과해 국내 쌀 생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직불제의 보완, 정책자금 금리 인하,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 농지 보전, 농업기반시설 확대 및 지속 투자, 국내쌀에 대한 소비대책 마련과 쌀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 혼합 판매 및 부정 유통 금지 등의 철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책자금 금리와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중금리는 1998년 15.18%에서 2014년 5월 기준 4.62%로 10.56%p나 하락한 반면, 정책자금 금리는 2~3%p 내외 인하하는 데 그쳐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농가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정책자금인 만큼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출 것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농업정책 및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 co. kr

SK인천유화 줄잇는 유출사고 문병호 "근본대책 마련하라"

문병호(새정치·인천 부평갑)의원이 최근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서구 원창동 소재 SK인천석유화학공장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20일 "지난 11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14일 또 화염과 타는 듯한 냄새가 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구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광범 기자 ykb@kihoilbo. co. kr

‘귀하신 몸’ 전세, 몸값도 무섭게 올랐네

도내 3.3㎡당 1000만 원 넘는 아파트 5년새 20배나 급증
작년보다 4배 ⬆… 성남 5만1082가구로 전체 절반 차지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전셋값이 3.3㎡당 1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5년 전보다 2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3주차 시세 기준으로 경기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86만6천398가구의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3.3㎡당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는 9만3천638가구였다.

이는 2009년(4천635가구)보다 20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2만5천124가구)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 당시 경기지역에서 3.3㎡당 1천만 원이 넘는 전세 가구는 과천시 3천726가구,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의 909가구가 전부였다.

이번 조사에서 3.3㎡당 1천만 원이 넘는 전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5만1천82가구를 기록한 성남시로 경기지역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당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이매동·정자동 등 분당신도시가 3만2천769가구, 백현동·삼평동·운중동·판교동 등 판교신도시가 9천244가구로 신도시 내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됐다.

뒤를 이어 안양시가 8천73가구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및 평촌역 이용이 가능한 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평촌신도시 내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천시는 7천977가구로 래미안에코팰리스, 래미안슈르 등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주공아파트도 3.3㎡당 전세가가 1천만 원을 넘어섰다. 광명시는 6천520가구로 철산래미안자이, 철산푸르지오하늘채,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들이 주를 이뤘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경기지역에서 3.3㎡당 전세가가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진 이유는 서울에서 밀려오는 세입자 수요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직장~학교 자전거 이용 생활화… 그린 휠 모범기관 공모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직장 및 학교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14년 그린 휠(Green Wheel) 모범기관’을 공모한다.

‘그린 휠 모범기관’은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시범실시 후 2010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현재 31개 기관이 지정·시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자전거 이용 현황과 이용편의, 장려정책 등을 서류와 현지 심사를 거쳐 종합 평가해 5개 기관 이내에서 최종 선정, 2년간 그린 휠 모범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ihoilbo.co.kr

경제용어 Tip — 기축통화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국가 간 무역 및 자본 거래의 결제나 준비자산으로 널리 이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제적 신뢰가 두터워야 한다.

또한 기축통화 발행국이 생산한 다양한 재화·서비스 및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글로벌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및 공급을 항상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교환과 효율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국의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미국 경제가 전쟁 특수로 급성장하면서 경제력과 국력이 막강해진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대두됐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및 대외신뢰도 저하 등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축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달러화를 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의 경우 가입국의 정치·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중국은 환율 통제와 자본이동 규제 등으로 기축통화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인천시 남동인더스파크 입주기업인 (주)파버나인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도전적 기업에 정부가 뒷받침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천방문
중기에 “인센티브 확대” 약속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인천을 찾아 “도전적인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에 있는 ㈜파버나인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있다”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인의 도전정신 회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촘촘하고 단단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낡은 산업단지 근무 여건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와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 대표 8명이 참석해 최 부총리에게 수출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나눔 Lotto 〈제607회〉

8	14	23	36	38	39	+	13

당첨자		4명
1등	6개 숫자 일치	3,494,480,907원
2등	5개 숫자 일치 +보너스 숫자	66,561,542원
3등	5개 숫자 일치	1,608,878원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中·유럽 수출 승승장구 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1억2100만 달러 기록
작년보다 9.1% 급증
전국 평균 6.6%p 높아

경기지역 상반기 무역수지가 중국과 유럽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섰다.

20일 수원세관이 발표한 ‘경기도 2014년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수지는 1억2천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8억7천500만 달러 적자)보다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533억3천9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 유럽(EU)에 대한 수출실적이 눈에 띄는데, 중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149억5천415만3천 달러)보다 13.9%가 증가한 170억 달러(170억3천832만1천 달러)를 나타냈다. 유럽 수출실적도 지난해 상반기(40억9천431만5천 달러)보다 16%가 오른 47억4천839만9천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수출비중이 가장 큰 전기·전자제품(283억 달러)과 자동차(82억 달러)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7%, 15.7%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기계·정밀기기(68억 달러), 화공품(31억 달러), 철강제품은 각각 3.3%, 1.3%, 0.9%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경기도 상반기 수출실적은 6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2.5%보다 6.6%p 높게 나타나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한 532억1천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 특징으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금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3%, 21.2%가량 증가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용인도시공 신용등급 AA 회복

유동성 악화로 부도 위기
시, 632억 출자로 자본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역북도시개발사업 탓에 한때 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던 용인도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용인시의 대규모 증자 덕에 ‘AA’라는 안정적 등급을 유지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서 최근 발표한 전국 공기업 정기 신용평가등급에서 용인도시공사의 회사채가 안정적(AA) 등급을 받았다.

핵심 사업인 역북지구 용지 매각 부진으로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용인시에서 2천700억 원을 지급보증받은 데 이어 지난달 현금 500억 원을 포함, 모두 632억 원을 추가로 출자받았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자본금은 1천294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448%에서 267%로 크게 낮아졌다.

공사는 ‘안정적’이라는 신용등급을 받음에 따라 역북지구 등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aT, 직거래 사업자 산지 체험 등 소비자 교류사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사는 2014년도 소비자 교류 지원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 교류 지원사업은 직거래 사업자들이 신규 또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산지 체험행사를 위한 운영비, 교통비, 체험비 등 소비자 교류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직매장 및 온라인 직거래 실적이 1년 이상(꾸러미 제외)인 협동조합, 농업법인, 사회적 기업, 상법상 회사법인으로 1차 서류평가, 현장점검 후 2차 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와 유통기획팀(☎02-6300-158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무한 잠재력 인천 창조도시로 특화발전

유정복 인천시장

창간 26주년을 맞은 기호일보사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300만 인천시민과 더불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창간 이후 지역 여론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 발전에 기여를 해 온 기호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기호일보가 걸어온 지난 4반세기의 세월은 척박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는 시대적 소명에 한 치 소홀함이 없었고, 향토언론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힘써오며 권위와 품격을 자랑하는 신문으로 거듭된 성장을 이뤄 온 너무도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격변하는 시대상황을 꿰뚫어 보는 혜안과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 여론을 올바로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기호일보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세계로 열려 있는 인천의 강점을 살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신문으로 도약하고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이 도약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발전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발전을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을 이뤄 나감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도 선도해 나가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천을 창조도시로 특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때 기호일보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천을 지켜가는 파수꾼으로서 인천 발전과 함께 인천시민에게 언제나 희망과 위안을 주는 밝고 건강한 신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자리~복지 아침이 행복한 도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방자치시대의 새 지평을 연 경기·인천지역의 대표 신문 기호일보의 창간 26주년을 1천25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8년 창간 후 26년 동안 젊고 품격 높은 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기호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기호일보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의사전달이며, 사회구성원의 소통을 담당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특히 기호일보와 같은 지역언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소통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각 시·군과 경기도를,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기에 기호일보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는 계층별 복지, 교통, 경기북부, 안전, 공동체 복지, 일자리 등 6개 분야 3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호일보가 발전적 조언자로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경기도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며, 기호일보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되길 염원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기호일보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언론은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삶을 담아 자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호일보는 경기·인천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남겨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호일보는 지난 1975년 경기교육신문으로 시작해 교육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1988년 '기호일보'라는 이름으로 창간 후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교육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 준 것에 대해 인천교육가족과 더불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경기교육신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9년, 기호일보라는 이름으로 26년을 이어온 과정은 지역 정론지의 역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기호일보 가족들은 기사를 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한 인천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으로 역사에 남겨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감인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공감교육 미래형 학력 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호일보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민과 함께, 독자와 함께 발전해 온 세월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며 열정을 다해 지역주민의 숨결을 담아온 나날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자치교육, 새로운 경기교육과 함께하며 경인지역의 으뜸 언론으로 더욱 사랑받길 바랍니다.

교육은 희망과 미래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교육은 자기 삶의 주인, 깨어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늘 묻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경기교육은 약속합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미래가 생동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생명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교육을 이뤄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빛과 선생님의 열정이 솔직하게 만나 서로에게 보람을 주는 교육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기교육에서 학교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뤄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실현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에서부터 싹을 틔우고, 일체의 불합리와 차별은 없어집니다. 지성과 활력이 살고,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이 존중받는 '꿈의 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민에 봉사 신의 지키는 의회 만들것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과 경기지역의 아침을 여는 신문 '기호일보'의 창간 26주년을 300만 인천시민 모두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공정·책임·정론·진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언론인으로 우리 인천을 건강한 지역사회로 정진하게 해 주신 기호일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정신으로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면밀한 분석과 전망으로 인천 발전은 물론 독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 정보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는 '행복한 인천,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시민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천은 올 가을 다가오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확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7대 의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확대 전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이익 최우선 지역 화합 중재자 역할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경인지역 대표 신문 기호일보의 창간 26주년을 1천2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호일보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현장을 조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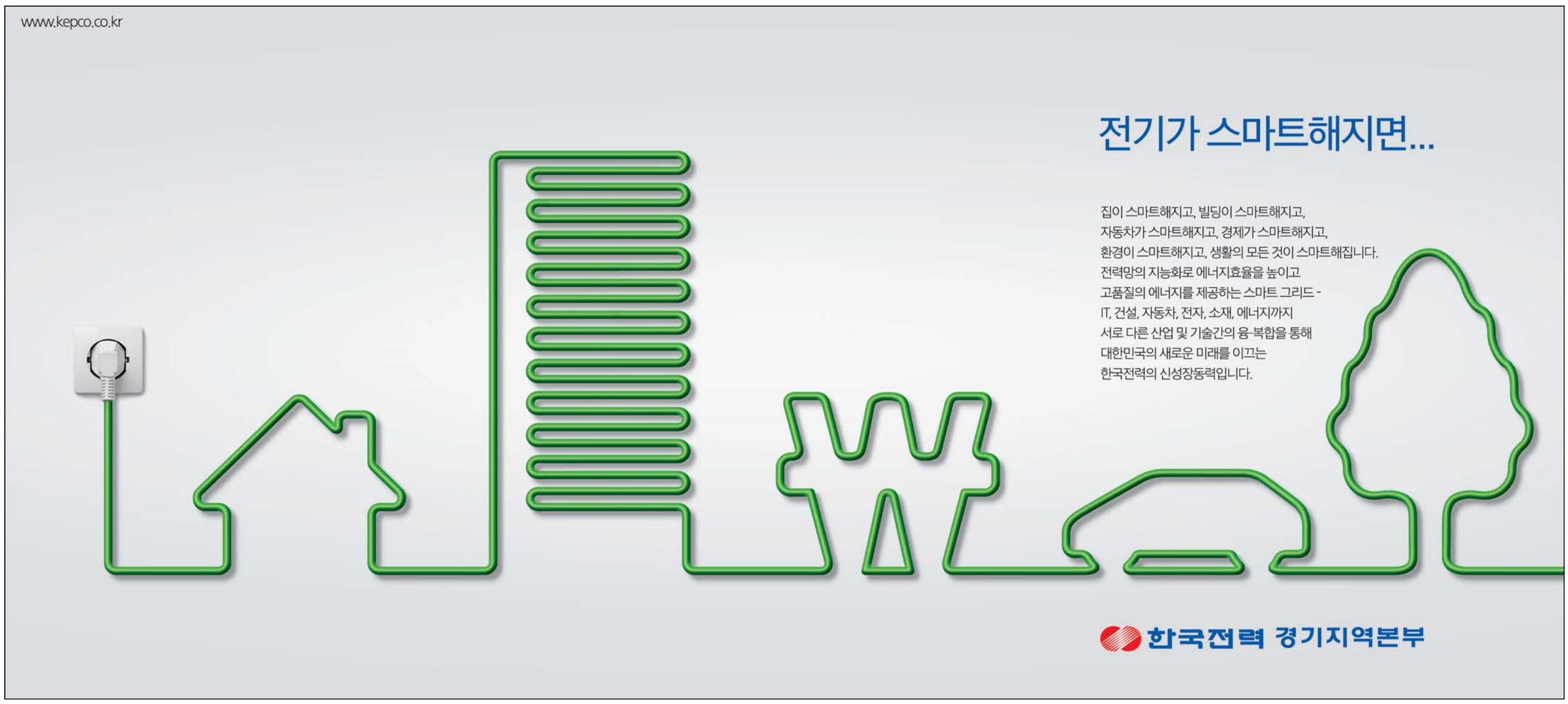
기호일보가 지금까지 지방의 대표 언론지로 성장하고 도민들에게서 신뢰받는 신문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책임·정론·진실을 추구하고 언론 본연에 충실하면서 지역주민의 권익과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128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회를 다음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당당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민생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셋째, 소통과 화합의 중재자가 되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가 공약을 내건 의정연구 공간 확보,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확보, 매니페스토 실천 지원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는 민선6기를 맞이해 도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의 희망을 만드는 민생의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호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안사업 추진 신뢰 강화… 시민 안전시스템 구축"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안전·봉사·신의 3가지 의정 방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펼치겠다."

지난 1일 제7대 인천시의회 개원의회를 통해 전반기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노경수(새누리·중구1)의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6·4 지방선거 결과로 구성된 7대 시의회는 전체 35명(비례 2명)의 의원 중 23명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지역에 몰아쳤던 여권 성향 표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같은 집권 여당인 민선6기 유정복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와 함께 13조 원에 이르는 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현안이 많은 인천시를 감시·견제해야 할 7대 시의회는 시작부터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

본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노경수 의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의정 구상과 향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외층에 희망 주는 복지정책 제시
조사 특위 구성 시민 혈세 낭비 예방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로 검증 추진
北 AG 참가…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
여대야소 대치 아닌 '화합의 태도'로
집행부 감시·협력 역할 최선 다할 것

다음은 일문일답.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의장 당선 소감 및 각오가 궁금하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당선돼 보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300만 인천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의회를 이끌어 간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먼저 나 자신부터 일신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4대와 5대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3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천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7대 의회의 중점적인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대교 등 대규모 국가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 등 대형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월이면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시가 추진할 포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전정책을 입안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다.

두 번째 목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이다. 지역에서 소외당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도록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봉사의정을 실천하겠다.

마지막 목표는 시민들과 신의를 지키는 의회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겠다.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시가 추진한 각종 역점 추진사업들이 부실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할 경우 각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독과 감시활동을 수행하겠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였던 유정복 시장이 취임했다. 7대 시의회 역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해 여대야소 형국을 보이고 있다. 올바른 집행부 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35명 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은 23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12명이다. 의회 과반이 집권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 자신은 입법기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떠한 상황도 눈치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제가 다수당 소속이긴 하지만 여와 야를 구분해 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 본 적이 없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고 반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등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7대 시의회 첫 공식 현장 방문지는 월미은하레일 현장이었다. 끊임없이 안전 논란을 빚은 월미은하레일 운행을 시의회가 나서서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시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고 싶다. 절대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월미은하레일 건설 후 무려 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던 석연치 않은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월미도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운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무려 853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월미은하레일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저의 구상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어떤가.

▶얼마 전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참가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인천시민들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시의회 역시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평화축전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북한의 대회 참가에 따른 각종 후속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 집행부, 그리고 조직위가 잘 조율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14일을 끝으로 7대 시의회 첫 회기를 마쳤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는 7대 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의장단 선거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시 본청과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와 현지 시찰, 조례안 심사 등 비교적 짧은 일정 속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이번 의회가 비교적 초선 의원이 많아 의정활동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성한 의원 모두는 상식과 능력을 겸비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다. 의장이자 선배 의원으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잘 이끌어 가고자 한다.

당장 25일 의원 연찬회를 겸한 연수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동료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열정을 담아내리라 기대한다.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첫 임시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앞으로 4년 동안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가 되기 위한 의정활동의 전초로 삼고자 한다.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인천시민들에게 앞으로의 의정목표와 각오를 말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대 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과 봉사, 신의를 3가지 의정 방향으로 정했다. 광역의회 구성원은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는 등 기존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인천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만이 저를 비롯한 35명의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돼 주길 부탁드린다. 임기 동안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담=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 co. kr
정리=양광범 기자 ykb@kihoilbo. co. kr
사진=최민규 기자 cmg@kihoilbo. co. kr

"집행부 견제·비판 자세 잃지 않고 '연정' 실현하겠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제289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9대 도의회는 6·4 지방선거 결과 지난 8대와 비슷한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도의회는 전체 지역구 의석 116석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72석을 차지하고 44석은 새누리당에 돌아갔다. 또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12석의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새정치연합은 모두 78석, 새누리당은 50석이 됐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새정치연합 강득구(안양2)의원은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당당한 도의회를 만들겠다"며 "도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세 기관 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연정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민생 중심, 사람 먼저' 가치를 실현하는 연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강화
의정연구센터 개선·보좌관제 도입
생활임금조례 등 과거 미해결 과제
경기도 정책협의회 의견 접근 이뤄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개편 추진
재정 실패 감시 건전화대책 수립할 것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소감은.

▶먼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도의회가 되도록, 또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당 대표와 협의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아울러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철저히 하면서도 도민 복지와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

-도의회가 제8대에 이어 9대에도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민선6기 남경필 지사 출범에 맞춘 도의회 운영 계획은.

▶6·4 지방선거에서 도민은 새누리당에 집행부의 역할을, 새정치연합에는 도의회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했다. 두 기관이 소통해서 민생과 도민의 삶을 잘 챙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생과 도민의 삶이라는 기준에서 협력할 것은 당연히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한 단계 성숙된 의회를 만들겠다.

-9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계획은.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단기적으로 의정연구센터 기능을 개선하겠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인 연구원 신분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변경, 직접 의원들을 대면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의정 연구 공간을 마련하겠다. 현재 의원들이 의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청사 이전 문제로 현실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8대 도의회에서 여야 간 소통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지 못했다. 중재 역할을 맡게 된 의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 줄 계획인가.

▶8대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의 입장과 9대 때 의장으로서의 입장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의장은 여야를 넘어서 중재자가 돼야 한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여당과 야당,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중재자가 되겠다.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조정자가 되겠다. 또 의원들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 중재, 섬김의 리더십으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연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연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어떠한 기조로 참여할 것인가.

▶연정은 남경필 지사가 당선인 당시 정무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 새정치연합에서 정책합의를 역제안해 정책협상단이 만들어져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핵심 안건인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생활임금조례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된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비슷한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무상급식 조례 제정,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산하기관 통폐합 등 '7+3 협상의제'라는 정책제안을 한 상황이고, 이를 남 지사 측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민생과 도민을 위해 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연정이 단순히 정치공학적 협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위상과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비판이 훼손되지 않는 틀 속에서 연정을 바라보겠다. 무엇보다 연정의 중심에는 항상 1천260만 경기도민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치의 공유와 정책협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연정이 성사될 경우 도의회의 역할은.

▶연정은 그동안 진영으로 갈려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던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도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민생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런 큰 틀의 가치는 당연히 존중한다. 하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 그리고 정책적 대안 생산 등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전 지사와 도의회 간 마찰을 빚은 '생활임금조례' 등이 이제 남 지사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남 지사와의 논의 방향은.

▶지난 8일 의장 임기를 시작하며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를 포함,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재의결돼 집행부에 이송했으나 공포되지 않았던 조례 4건을 서면으로 공포했다. 이제는 정치력이 필요할 때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 보겠다. 이미 경기연정 정책협상단에서 논의되고 있고 남경필 지사와 이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겠다.

남 지사를 직접 만나 보니 탄력적이고 배려심이 깊었다. 전임 김문수 지사는 원칙 속에서 모든 것을 봤다. 하지만 남 지사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안들이 나와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해법은.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은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이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이뤄져 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해법을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 9대 의회에서는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재정 실패를 감시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하겠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도민에게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도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개 기관이 있다. 이 세 기관이 그간 갈등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세 기관의 입장에서는 각각이 분리된 기관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한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 세 기관이 소통하는 구조, 열린 구조를 만들어 도민의 입장에서 상생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기호일보 독자들에게 한말씀.

▶기호일보는 창간 이래 지역 여론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도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기호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사랑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저렴한 분양가·다양한 지원책… 짐싸던 기업들도 돌아온다

인천 경제계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 연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돼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일부 건축물이 기초작업에 들어가는 등 전체 공정률이 45%를 넘어섰다.

강화산단은 지역 도시화 사업으로 공장부지를 잃고 떠나는 기업을 유치하고 높은 공장부지 가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인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조성 부지는 강화군 옥림리·월곳리 일원 약 45만2천301㎡ 규모로 1천3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화산단 조감도.

체육공원 공사장.

공장부지 가격 상승 제조업 설 자리 좁아져
인천상의 주도적 나서 산업단지 조성 추진
진입도로 등 시설 지원·법인세 감면 혜택

'분양률 50%' 지리적 이점 등 경제성 입증
사업 완료 땐 7500여 명 일자리 창출 기대

 # 2015년 상반기, 강화산단 시대를 기대하다

강화산단은 인천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인천상의가 중심이 돼 공장 부지를 선점했다. 시공은 현대엠코㈜가 맡아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화산단의 장점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 가격이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인 잔여 부지 약 9만9천㎡의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인 3.3㎡당 95만 원으로, 이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3.3㎡당 100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용지다.

특히 인근의 김포 양촌산단(230만~250만 원)과 학운산단(200만~230만 원)은 물론, 심지어 같은 인천지역인 서구 검단산단(250만~260만 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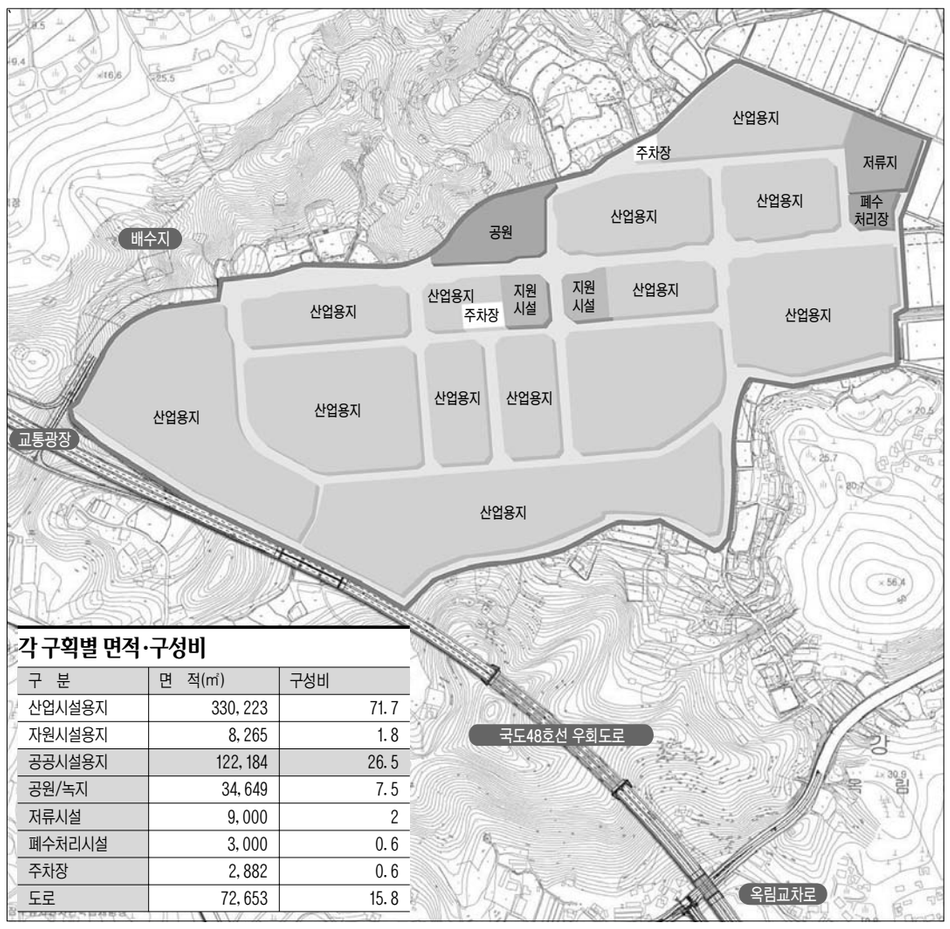
 # 장점에 장점 입히다, 중소기업 기대치 상승

강화산단은 올해 폐수처리시설과 진입도로, 상수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로 국가와 인천시로부터 약 161억 원을 투자받았다. 인천지역 상공인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민간사업임에도 시와 강화군이 역점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또 강화산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인천시내는 물론 서울과 부천 등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여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장점까지 있다.

토지이용계획도



각 구획별 면적·구성비

구 분	면 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	330,223	71.7
자원시설용지	8,265	1.8
공공시설용지	122,184	26.5
공원/녹지	34,649	7.5
저류시설	9,000	2
폐수처리시설	3,000	0.6
주차장	2,882	0.6
도로	72,653	15.8

 # 향후 넘어야 할 과제는

강화산단의 여러 장점에도 현재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신도시에서 30분, 서울 여의도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1·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교통 혼잡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화산단 측은 접근성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한다. 인천 및 김포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물론 파주 및 고양에 위치한 산단들과도 30분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48번국도 확장 및 인천~강화 우회도로 건설이 완료되고, 2017년 제2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시간대가 최소 30분 이상 단축된다는 전망이다.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반경 20㎞ 이내에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검단신도시 입주가 속속 이뤄져 충분히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개선에도 톡톡히 한몫할 것이라는 관측인데, 강화군청 소재지인 강화읍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현재 김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강화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 인천 떠나려 한 풍산금속, 발길 돌렸다

많은 기업들이 강화산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인천 대표 기업 가운데 한 곳인 풍산특수금속㈜이 분양을 확정해 주목받고 있다.

풍산금속은 당초 충남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강화산단의 지리적 이점과 수익성 강화 덕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와 함께 영림목재 등 크고 작은 기업 50여 개가 이미 계약을 마치거나 강화산단 이전을 적극 타진하고 있어 현재 분양면적은 약 16만5천㎡에 이르고 있다.

강화산단 관계자는 "준공 이후 분양률이 50%가 넘지 않는 게 현재 대부분의 지역 산업단지 실정"이라며 "강화산단의 경우 아직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분양률이 50%를 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강화산단의 경제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100여 개 기업, 강화산단에서 미래를 꿈꾸다

강화산단 분양이 마무리되면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강화산단 측은 이로 인해 약 6천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천5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향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교동평화산업단지와 연계되면 평화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강화산단 조성사업을 책임지는 김광식 인천상공 강화산단㈜ 대표(인천상공회의소 회장)는 "강화산단 조성사업은 공장 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해 강화지역 발전은 물론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의 최대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개항 이래 항공기 사고 '0'… 잠들지 않는 명품 서비스

세계 공항업계 최대의 행사인 '2014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가 지난 5월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총회와 함께 개최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은 9년 연속 Global Ranking 1위에 등극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최고공항상'과 '중대형 공항 최고공항상'을 수상하며 서비스 분야 리딩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지난 2월 발표된 ASQ 종합평가 결과 인천공항은 5점 만점에 4.97점을 획득해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중국 베이징공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ASQ에서 9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이유 있는 인천공항의 9연패 달성 배경과 성과를 살펴보자. 〈편집자 주〉

여객터미널 3층.
교통센터 공사.
저녁 무렵 공항 터미널.

#이유 있는 9연패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9연패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이뤄낸 배경에는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내 상주기관, 업체들의 끈끈한 협업이 있었다. 인천공항의 23개 상주기관과 900여 개 업체, 4만여 종사자들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공동의 목표로 유기적인 협업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소통위원회와 서비스개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협업과 상생발전의 노력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는 서비스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인천공항은 공항 운영의 기본이 되는 안전과 신속, 편리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빈틈 없는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문화를 구축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 11만 시간 무중단 운영, 항공기 운항 무사고 200만 회 달성을 비롯해 개항 이후 무사고·무재해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기준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출국(19분)과 입국(11분)의 출입국 수속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셀프체크인 기기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확대 운영하고, 국내선 카운터 일부를 국제선 카운터로 전환하는 등 여객 증가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이 뿐 아니라 인천공항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위해 공항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컬처포트(Culture-port)'로 거듭났다. 전통문화 체험관과 한국문화박물관 등 11곳의 문화시설과 365일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통해 차별화된 감성서비스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공항 업계에는 공항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연평균 6.4%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개항 13년 만에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우량 공항으로 성장했다. 전세계 56개국, 182개 도시를 연결(2014년 4월 기준)하는 폭넓은 항공네트워크를 갖추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여객 4천148만 명, 환승객 771만 명)

인천공항은 공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에 대응해 '글로벌 허브공항, 세계 일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지난해 수립하고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와 시설 확충, 공항 운영 효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 항공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굳히고 항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첨단기술과 자연·문화가 함께 융합하는 제2여객터미널을 완공함으로써 경쟁 공항과 대등한 시설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ASQ 평가는 전세계 공항이용객 35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일대일 직접면접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져 공항에 대한 서비스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공항 직원의 친절도와 시설의 청결도, 이용 용이성 등 서비스, 시설 및 운영 분야에 걸쳐 총 34개 평가항목에 대해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신화달성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항공기 사고도 없이 완벽한 안전운영을 달성했다.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수립해 최첨단의 항공기 운항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은 개항 당시 47개 항공사가 109개 노선에 취항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 전세계 87개 항공사가 취항해 173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동북아 최고의 항공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다. 일본 등 주변국 환승객들까지 자국 공항보다 더 편리한 환승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천공항을 찾게 됐다.

이를 위해 '잠들지 않는 공항'의 기치 아래 3개의 활주로와 186개의 주기장 등 모든 운항안전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항들의 시설 및 운영 절차에 대한 국제기준인 ICAO 규정 개정에 따라 2003년 공항운영 관련 인증제도가 도입돼 운항안전 분야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했다. 2010년에는 항공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1등급 공항운영증명까지 획득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인 통합안전관리를 위해 2005년 11월 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한 3개의 활주로를 전부 CAT-Ⅲb 등급으로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안전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CAT-Ⅲb 등급은 활주로 가시거리가 175m 미만인 저시정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단계로서 최첨단 운항안전시설과 숙달된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해야만 공인받을 수 있다.

CAT-Ⅲb 등급의 운항안전시설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갖춘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항안전 분야의 표준을 선도해 옴에 따라 경쟁 공항들을 능가하는 동북아 중심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됐다.

더불어 2011년 11월에는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 및 최첨단 항행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정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최저 가시거리를 기존 100m에서 75m로 낮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평균 130여 편의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사태가 감소되는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전세계를 통틀어 이륙 또는 착륙 최저 가시거리를 75m 수준으로 적용하는 공항은 독일과 영국·프랑스·호주 등 9개국의 19개 공항뿐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천공항이 최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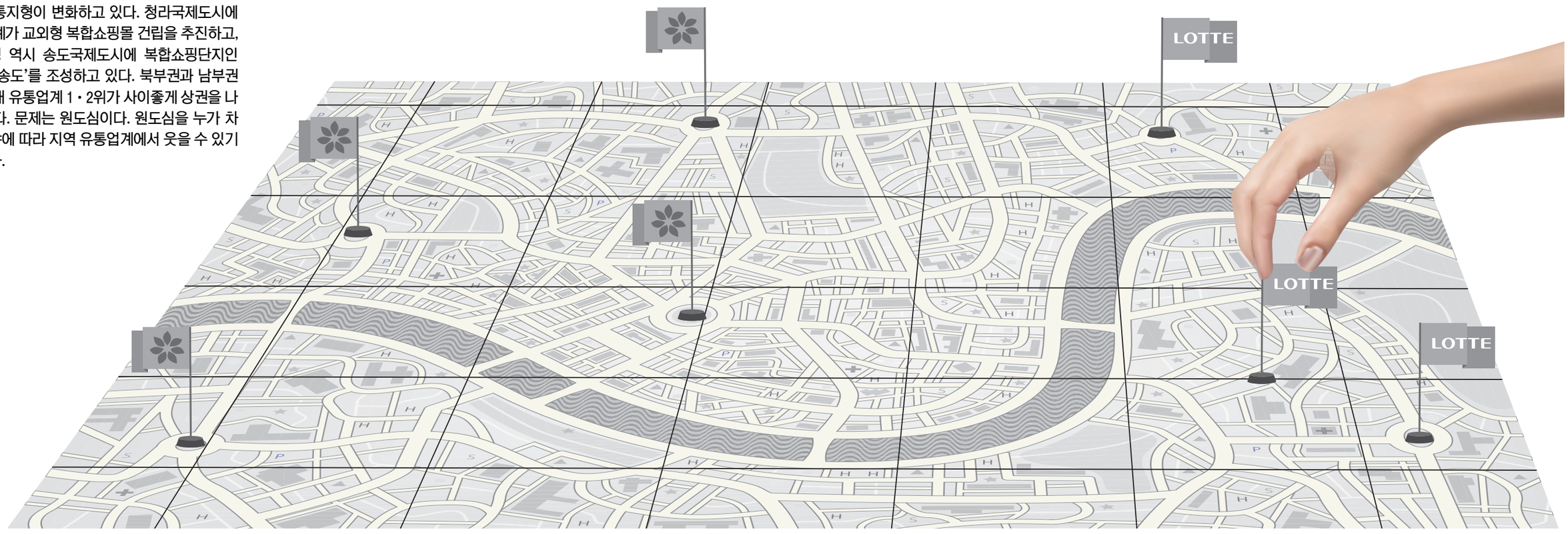
4만여 종사자들 한마음으로 뭉쳐 빈틈없는 안전문화 무사고 신기록

지구촌 182개 도시 잇는 허브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운송 경쟁력 강화

인천국제공항서 열린 2014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아태총회 개회식.

최고의 유통공룡 둘, 지역상권 맹주자리 놓고 혈전 中

인천 유통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신세계가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롯데쇼핑 역시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단지인 '롯데몰 송도'를 조성하고 있다.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국내 유통업계 1·2위가 사이좋게 상권을 나눈 것이다. 문제는 원도심이다. 원도심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역 유통업계에서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독점상권 롯데 무혈입성
공정위 제한규정탓 전면전 미뤄
송도·청라 복합쇼핑몰 건설 채비
지나친 출혈경쟁 소비자 혼란우려

 # 15년 동안 쌓은 신세계 상권 깃발 꽂은 롯데

신세계가 지난 1997년 인천점을 개장하면서 지역 유통 맹주로 독주해 왔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국내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신세계에서 선점한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신세계가 쌓아 올린 상권에 롯데가 2017년 이후 무혈입성하게 되면서 표면상으로는 일단 롯데의 승리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천시로부터 9천억 원에 매입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인수 이후 총 2조 원을 투자해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단지를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수 도심 재개발 사례로 손꼽히는 롯폰기 힐스는 쇼핑·업무·주거·문화공간으로 이뤄져 있어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다.

또한 이번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까지 확보하면서 13만6천㎡ 규모 부지에 인천랜드마크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다. 이는 일본 롯폰기 힐스(11만㎡)를 웃도는 규모다.

롯데는 2014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2020년까지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인천터미널 부지에 2017년까지 터미널과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신축한다.

영업면적 4만3천㎡에 달하는 쇼핑몰에는 영패션관·대형 마트·시네마·가전전문관 등이 들어선다. 2017년 말에는 백화점까지 리뉴얼 오픈하며 원스톱 쇼핑공간이 완성된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송도점.

이어 2019년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신개념 스트리트몰을 선보이고, 2020년에는 2천가구의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선다.

스트리트몰은 보행자 이동로를 따라 가로형으로 배치된 상업시설로, 주로 유럽·호주 등에서 선보이는 쇼핑몰 형태다. 롯데는 스트리트몰에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행·병원 등 각종 공동시설을 유치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롯데 측은 단지 조성이 완성되면 인천 원도심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의 균형잡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 끝나지 않은 신세계와 롯데 원도심 유통대전

그러나 업계 2위인 신세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다. 인천터미널 인근에 인천점 규모에 맞먹는 복합쇼핑몰 건립 부지를 마련했다.

이 부지에 대해 신세계는 그룹의 독립 법인인 이마트에서 사들인 부지로 백화점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역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천터미널 대체 부지로 보는 게 정설이다.

신세계의 이런 선 긋기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쇼핑에 내린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의 인천터미널 매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 가격정책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인천·부천지역의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토록 주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결로 이들 롯데백화점 중 매출 규모(2012년 기준)에 따라 인천점(2천315억 원)과 부평점(1천276억 원)은 2017년 이후 해당 지역에 경쟁 유통업계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신세계는 2017년까지 공식적으로 인천터미널 인근에서 매장 개점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는 롯데가 이겼다고 단정짓지는 않고 있다. 자칫 양대 유통공룡 싸움에 애꿎은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향후 모든 비난이 롯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 2017년부터 옛 건물(4만7천236㎡)에서 영업을 하고 신세계는 2031년까지 최근 완공된 신건물(1만9천486㎡)에서 영업을 하면서 두 유통공룡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동침을 시작하게 돼 지역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지역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을 신세계가 아닌 롯데로 모두 몰릴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신세계는 1차 소송에서는 졌지만 급할 건 없다. 이미 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가 최근 인천터미널 인근에 이와 버금가는 복합쇼핑몰을 준비해 그룹 차원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롯데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부지를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좀처럼 쉽지 않다. 롯데의 개발계획 핵심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10년간 끌어온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발목 잡으면서 연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가 제출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송도는 롯데, 청라는 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와는 달리 신세계와 롯데는 청라와 송도를 각각 나눠 가지며 경쟁 구도는 피했다.

신세계는 청라국제도시에 해외 자본을 포함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부지 16만5천290㎡에 쇼핑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문화, 레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준공키로 했다.

기존의 쇼핑 위주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문화 및 레저 기능의 복합화로 1천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복합쇼핑몰이 조성될 경우 약 4천 명의 고용 창출 및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청라국제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역시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송도 롯데쇼핑타운'을 건립한다. 롯데는 1단계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3층(총면적 1만6천223㎡) 규모의 롯데마트를 지난해 개장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인 A1블록의 쇼핑몰, 백화점, 시네마, 호텔은 착공식 이후부터 터파기 공사에 우선 착수, 2016년 말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몰 송도의 총면적은 약 41만4천㎡로 계획돼 있으며, 2011년 말 오픈한 롯데몰 김포공항점(31만4천㎡)과 비교해 약 1.3배 크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경기·인천 발전 이끈 참일꾼 선정
7개 분야 9명에 우레와 같은 갈채

인천·경기지역에서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한 참일꾼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본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7개 분야 9명에 대해 '제2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기호참일꾼상은 기초단체·지방행정·교육·경찰·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모범 공직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간 26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선 9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각 분야에선 ▶기초단체=염태영 수원시장 ▶지방행정=신형우 고양시청 디지털홍보팀장, 하영주 인천 연수구청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기술)=이용구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주무관 ▶교육(교원)=오현정 병점중학교 교사 ▶교육(행정)=김명환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장, 박인수 경인여자대학교 총무팀장 ▶경찰=김보경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장 ▶사회봉사=한병희 양평포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인천·경기지역 발전에는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한 숨은 일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히 해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제2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이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본보 한창원 사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 co. kr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시정 올인

기초단체/ 염태영 수원시장

제2회 기호일보 참일꾼 기초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민선5기 동안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을 구현해 수원을 전국 최고 도시로 성장시켰다.

염 시장은 1960년 수원 출생으로 수성고와 서울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뒤 수원환경운동센터 창립과 더불어 노무현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뒤 2010년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당선됐다. 염 시장은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표방하며 120만 수원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지방재정 확보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은 물론 수원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수원권 개발, 인문학 도시 조성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으로 수원역까지 잇게 하는 지하철 시대 개막과 전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도시의 면모를 위해 꿈의 구단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이끌어 냈다.

염 시장은 민선5기 4년간 이 같은 반석 위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규모를 지난해 383억 원으로 줄여 어떤 자치단체보다 비약적인 발전과 오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전개, '수원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현재 민선6기 수원시정을 이끌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 co. kr

고양시 SNS 주목 받게한 숨은 주역

지방행정/ 신형우 고양시청 디지털홍보팀장

제2회 기호참일꾼상 행정 부문에 고양시청 디지털홍보팀 신형우(51·행정6급)팀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신 팀장은 지난 2011년 4월 해당 팀으로 발령받은 뒤 고양시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연이어 개설해 시정 홍보 및 소통에 적극 활용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 2013년에 이어 올 상반기 동안 누리꾼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었던 만화 '진격의 거인' 패러디 '진격의 고양시' 홍보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17만 건을 돌파하며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올린 영상물로는 최고로 평가됐다. 특히 최성 시장이 직접 '고양이' 캐릭터로 분장해 출연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획력을 발휘한 결과, 해당 동영상은 페이스북 조회 수만 무려 120만 건이 넘어서며 다음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랭크되는 등 선풍적 인기몰이로 눈길을 끈 바 있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서명운동을 SNS상에 제안해 고양시민 3명 중 한 명이 참여한 320만 명의 연대 서명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수상자 신형우 팀장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팀의 동료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곧 상주인구 100만 시대를 열게 될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 co. kr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혼신의 힘

지방행정/ 하영주 인천 연수구 가정복지과장

"인천 사회복지공무원의 맏언니로서 동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하영주(55)인천시 연수구 가정복지과장은 경기·인천지역 대표 일간지 기호일보가 선정한 제2회 기호일보 참일꾼상 수상을 두고 믿기지 않는 듯 연방 고개를 좌우로 휘저었다.

평소 호탕하지만 본분에 맞는 행실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인지라, 참일꾼상 추천 역시 본인 의지보다 주변의 부추김에 억지로 떠밀리듯 처리했던 그다. 그런 그가 인천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을 대표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수상 소감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멋쩍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참일꾼 중의 참일꾼이다.

하 과장은 1984년 3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30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항상 성실과 근면, 정직과 신뢰, 참 봉사정신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지역사회 내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 co. kr

경기도정 '일등 소식통' 역할 톡톡

지방행정(기술)/이용구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사통팔달 경기도, 일등 소식통.'제2회 기호참일꾼상 지방행정(기술) 부문에서 모범공직자로 선정된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이용구 주무관은 경기도정 홍보에 있어 중책을 맡고 있는 참일꾼이다.

지난 2006년 3월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에 임용된 이후 꾸준히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이 주무관은 이미 경기도정 홍보에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 주무관의 활약상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경기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 능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경기도정 홍보를 위한 뉴스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운영·관리까지 도맡아 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 현장과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경기도내 케이블사에 제공한다. 바쁜 일상으로 현장을 찾을 수 없는 도민들에게 생생한 화면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 결과 도민들은 경기국제보트쇼 등 경기도정의 실감나는 현장 모습 그대로를 손쉽게 안방 TV 속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 주무관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상 덕분이다. 그 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홍보영상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시작한 홍보 확대로 현재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전광판과 도내 GS25 매장 407개소에서 경기도정 홍보영상을 만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 co. kr

부패제로 전파한 안성교육 '청백리'

교육(행정)/ 김명환 안성교육청 경영지원팀장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아서 영광입니다.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더욱더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52)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장은 제2회 기호참일꾼상 수상소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1988년부터 공직에 발을 드린 뒤 26년 동안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열의를 갖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안성교육청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패제로 클린 안성교육'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안성고등학교 출신으로 안성에 대한 애정이 깊다.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 2010년에는 한경대학교에서 교육학석사 학위도 받았다. 일선학교 발전을 위한 그의 활약은 더욱 눈부시다. 주요 활약상은 배영종고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사업, 비룡중 1교 2캠퍼스 사업, 풍무고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예산 확보, 경기창조고 정상화 기여 등이다. 이밖에 교육행정에 발전한 공을 인정받은 김 팀장은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표창(경기도교육감), 안성시민의 날 유공표창(안성시장) 등을 수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 co. kr

디자인경영 특화 강좌로 '명문' 도약

교육(행정)/ 박인수 경인여대 총무팀장

"기호일보가 선정하는 제2회 참일꾼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경인여대와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싶습니다."

박인수(47)경인여자대학교 총무팀장은 "1992년 경인여대 개교와 동시에 임용돼 22년 재직기간 동안 나름 행복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 팀장은 경인여대의 역사와 함께한 몇 안 되는 직원 중 한 명이다. 1993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교무처를 시작으로 기획실, 학생처, 국제교육원, 산학협력처 등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섭렵했다. 그에게 가장 기억나는 일을 묻자 2013년 4월 여자전문대학 최초로 개설한 '디자인경영 CEO과정' 개설 일화를 소개했다.

"주위에서 우려도 있었죠. 개설하고 수강생이 많지 않으면 망신 아니냐고. 그러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산학협력처 근무를 하면서 인천지역 기업 임직원들이 경영, 법률, 기술개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고 함께 모여 토론할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디자인경영 CEO과정'은 박 팀장의 예상대로 성공적이었다. 1기에 54명에 이어 2014년 3기까지 총 150여 명이 입학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됐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 co. kr

영어교육과 봉사 연계 참교육 실천

교육 (교원)/오현정 화성 병점중학교 영어교사

화성시 병점중학교 오현정(46)영어교사가 경기지역 교사들의 창의지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과 세계시민교육 연계 방법 연구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기호참일꾼상 교육(교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교사는 지난 1988년 화성여자중학교 영어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 뒤 안산 초지고등학교와 성호고등학교를 거쳐 현재 병점중학교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교육자원방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연수활동 등으로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사들의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를 계획·진행하는 등 혁신학교준비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Reading Campus(영어 수준별 독서활동)를 추진해 학생들의 영어 읽기·쓰기 등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연계한 봉사 콘퍼런스를 진행하도록 지도해 참교육을 되새기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오 교사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교사직무연수 등에 참여해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스리랑카·가나 등 외국의 중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 co. kr

친근한 경찰 이미지 구축에 구슬땀

경찰/ 김보경 경기지방경찰청 경장

기호일보 창간 26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김보경(33)경장이 경찰 부문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경찰에 입문한 김 경장은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와 하남경찰서 덕풍파출소를 거쳐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경장은 젊은 층의 문화와 취향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적극 참여해 4대악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112신고 요령을 적극 홍보해 왔다. 4대악 근절을 위해 가수 싸이의 젠틀맨을 패러디한 '젠틀캅'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왕의 교실을 패러디한 '여경의 교실', 범죄 예방을 위한 '월드캅' 홍보영상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존의 정형화된 홍보 방식을 벗어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미 5개국 치안기관장', '독일 NRW주 치안총수 방문단' 등 총 3천314명의 해외 주요 인사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112신고 처리 시스템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알리는 데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 co. kr

형편 닿는 데까지 이웃과 나눔 실천

사회봉사/ 한병희 양평포크영농조합법인 대표

"넘치는 물은 담아 둘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제가 가진 그릇에 담아 둘 수 있는 것은 넘친다고 봅니다."

한병희(50)양평포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외모에서부터 여유가 넘쳤다.

"누군가를 의식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나눔을 실천한 것 뿐이다."

한 대표는 이번에 기호일보 '참일꾼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고 했다. 무엇보다 '참일꾼'이란 말에 스스로를 대견해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형편이 닿는 날까지 행복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는 이 같은 나눔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 좋다."

한 대표는 양평군 단월면에서 출생해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 우연한 계기로 육가공 사업을 시작했다. 어릴 적 주린 배를 움켜쥐고 씨름을 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시작했다.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과 사회복지시설 노인, 저소득층 김장 지원, 복지 소외계층 등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양평=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 co. kr

미래의 지역사회 이끌 청춘들 '청춘신문'을 말하다

인천지역 대학생들에게 물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호일보에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 이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이끌 새로운 주역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창간 26주년을 맞은 기호일보 역시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대를 선도할 젊은 신문으로 거듭날 것이다. 〈편집자 주〉

'스토리텔링' 활용 지역인물 소개 제안

김다은

인천재능대 2학년 방송학보사 편집장

"기호일보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 주세요."

최근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있다.

기호일보에서도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지역의 다양한 인물을 소개하면 어떨까. 인터뷰와 함께 특색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동안 신문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결혼·출생 등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난다면 구독률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소 머금게 하는 '사람과 사람' 인상 깊어

김태희

경인교대 초등교육학과 2학년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공정성이다. 기호일보가 이 기본적인 과제를 나름 잘 수행해 왔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리라 믿는다.

기호일보는 인천지역 사람들에게 친숙한 지역 종합일간지다. 시민들은 시사를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종합일간지와 뉴스를 본다. 또 언론의 공정성을 넘어 편향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싫어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호일보가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이 점에서 기호일보에게 합격점을 주고 싶다.

기호일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과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에는 경인지역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많은 분들의 소개가 담겨 있다. 요즘 사회의 어두운 면만 부각되는데 이러한 시도는 소탈하지만 미소를 머금게 하는 지역신문만의 매력이다.

기호일보는 광고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지역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단체 소개가 눈에 띄었다. 이익보다 지역을 생각하는 기호일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앙지서 접하지 못한 특화된 기사로 승부를

최지훈

청운대 인천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스마트폰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종이신문 구독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나조차도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은 쉽게 보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들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일간지인 기호일보는 중앙지에서 접하지 못한 지역 현황을 요일별로 특화된 기사를 게재, 중앙지와 차별화된 지역 매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호일보는 객관적인 기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기사를 실어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큰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구별해 주면 좋겠다.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가 개교한 지 2주년째 접어들어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기호일보와 인천지역 주요 기관이 대학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더한다.

시민 옆 솔직한 보도할 수 있는 '블루오션'

김수현

연세대 창의기술경영학과 2학년

지역언론으로서 나눔, 소통 그리고 개척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듣고 구성원들 간에 소통을 이끌어 낸 뒤 지역사회의 개척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화제들을 정확하게 파헤치는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언론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는 '레드오션'이라면 지역언론은 시민들의 옆자리에서 솔직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호일보여서 좋다. 그러나 파급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연세대 국제캠퍼스는 신설 학교라 지역사회에서 목소리가 작은 편이다. 4천명이 넘는 연세대 학생들이 송도학사에 살고 있는데도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시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다.

기호일보가 이런 작은 목소리들을 들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소통 공간 만들어야

백종연

인하대 사회교육과 3년

기호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기관이자, 가장 친밀한 소통의 공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역신문 상당수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기에 외면받고 있는 것도 같다.

신문은 권력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이면서 동반자이긴 하나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뉴스 등장으로 신문 독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독자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신문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기호일보는 본연의 임무인 '지역 밀착', 그리고 '사람 밀착'과 같은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언론의 책임과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역주민들도 지역신문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으면 한다.

취업 관련 소식·다양한 읽을거리 많았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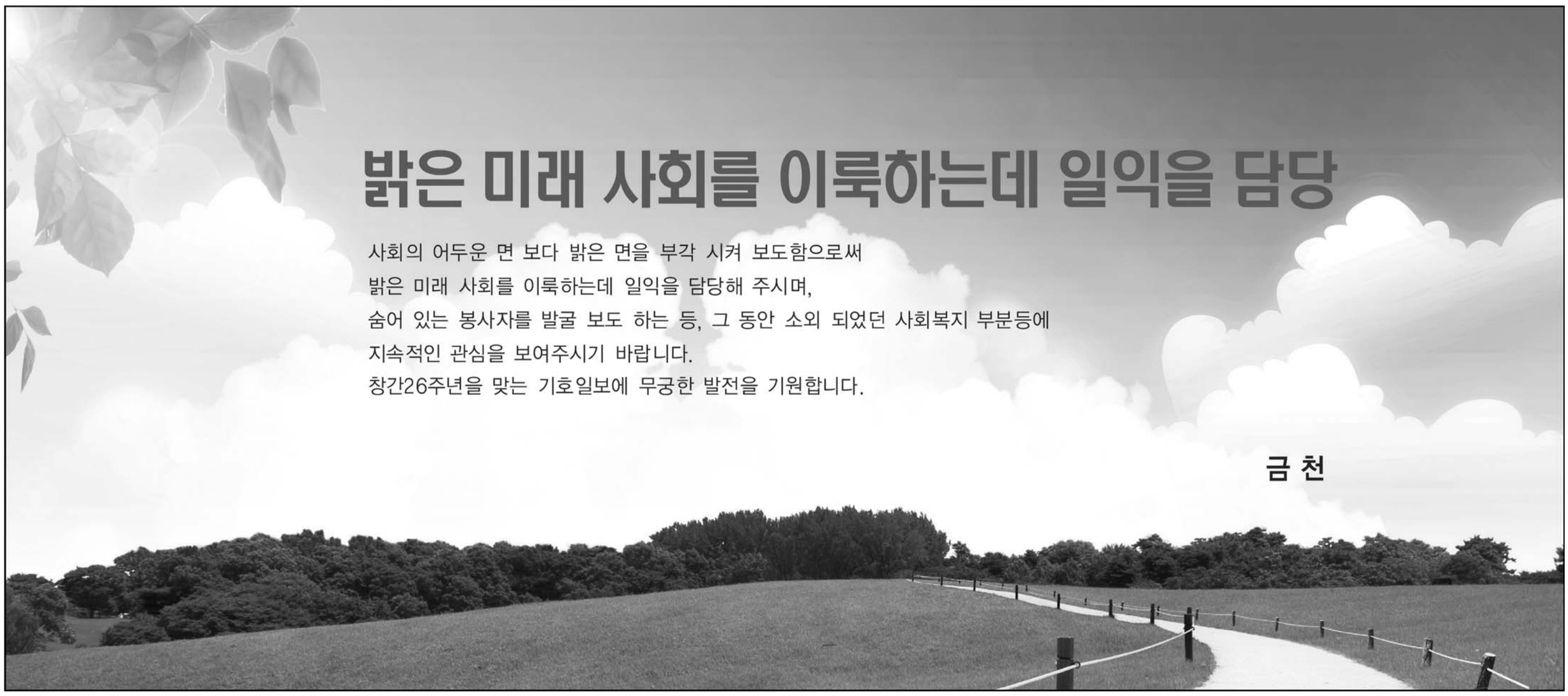
박윤혜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3학년

중앙지나 지역지 모두 세월호 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공통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는 각 지역의 정보가 적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지역지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더 잘 알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일간지인 기호일보는 중앙지와 다르게 지역의 소식을 많이 다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호일보는 어떤 현상에 대한 팩트를 취재하고 여러 가지 시선에서 문제점을 짚어내는 데 탁월하지만 그 다음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바람직한 지역신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한 나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아 취업 관련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남북경협의 전진기지 개성공단 전경.

중단없는 남북경협… 인천의 역할론 다시 주목

남북관계 개선 물꼬 틀 북한 AG 참가 지원
스포츠 교류 이상의 평화협력 구축 부푼 꿈

개성공단 기업들 "경협 등 통일비용 투자를"
지자체 인천, 유연한 정책공조로 신뢰 구축

유정복〈얼굴〉 민선6기 인천시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남북 스포츠 협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본보와 가진 최근 인터뷰에서 "남북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5기 송영길 전 시장이 추진해 온 각종 남북화해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큰 불협화음이 있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인천아시아안게임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백두산 성화 채화, 남북팀 공동 입장 등 각종 남북협력 사업도 통일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 개성공단 입주 인천 기업들이 남북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

개성공단 입주 등 남북경제협력 참가를 희망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국래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최근 인천대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인천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251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가운데 평균 60%에 가까운 150여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13개 업체는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70% 가까이 개성공단 추가 참여 의사를 갖고 있다.

이들 남북경협 참여 희망 업체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참여 이유에 대해 '저렴한 인건비(45%)'를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이어 평균 35% 정도는 북한 내수시장 진출, 현지 투자 우대조건, 값싼 원자재 공급 등의 남북 정부 지원을 투자 조건으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인천이 처한 현실에서 남북경협 등 남북화해협력의 중요성이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준한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장은 "정경분리 원칙과 5·24(남북협력중단) 조치 해제 등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사업이 풀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하다"며 "남북 정부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 준비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통일은 대박, 남북경협 상징 '개성공단 제품 판매전시전'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위한 다양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인천에서는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4개월 넘게 폐업 위기에 내몰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돕는 동시에 '5·24조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지자체 최초의 시도이기도 했다.

시는 3년째 남북화해협력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범시민 통일 염원 프로젝트인 '개성공단 생산 제품 전시·판매 대축제'를 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행사의 가장 큰 취지다.

게다가 부대행사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염원 그림그리기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전시회 등도 눈여겨볼 만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통일비용은 줄이고,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른바 '통일은 대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축제에 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대 또한 상당했다. 120여 개가 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난해 중단 사태로 인해 경영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떠나간 바이어와 고객을 다시 유치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진했던 북한 어린이 돕기 등 인도적 지원도 눈에 들어온다.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등이 그 예다.

박창수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장은 "인천에만 30여 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민선6기 시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선6기 시정 과제,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라'

임익찬 제7기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원우회장(㈜임산업 대표)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추진하는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에 대해 자부심이 상당하다. 평소 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중소기업 CEO지만 인천대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강좌를 들으며 새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개성공단 경영 활성화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실로 놀랍다는 확신이다.

하지만 임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5기 시정에서 추진된 남북화해협력 사업 대부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문에 걱정이 많다. 8년 인천시정을 돌본 안상수 전 민선3·4기 인천시장도 평양을 직접 방문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한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인천시의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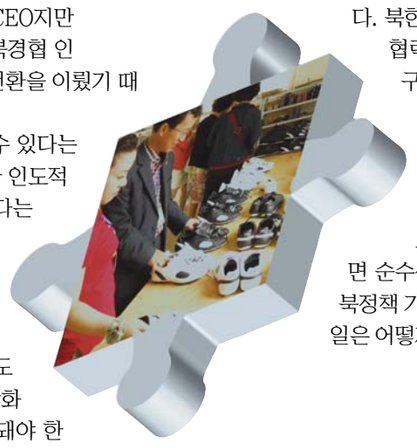
 # 유정복 인천시장, 어떤 강단 내릴까

인천은 지정학 및 안보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유 시장이 펼질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정부와 협력하는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 입장에서는 국가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남북관계 문제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뒷받침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구축하기 위한 신뢰프로세스 대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실리와 명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통 큰 의지도 엿보인다.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가 스포츠 교류 협력에 중점을 두고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 구축이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교류협력을 원만하게 이뤄내 스포츠 교류를 뛰어넘는 남북한 평화협력 구조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적 접근을 하게 되면 순수성이 퇴색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큰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하는 동시에 인천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시가 남북화해협력의 전진기지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왼쪽부터 만경대어린이병원 의약품 지원, 인천기업의 남북경협 수요조사 토론회.

26년 전 이 땅에서 올림픽이 처음 열리던 해,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 불렀다.

이듬해 고(故) 문익환 목사와 당시 대학생이던 임수경의 방북으로 통일운동의 불씨가 지펴졌고, 이어 민주화의 거센 저항 속에 첫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이후 IMF 구제금융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 경제도 침체일로에 빠져 비정규직이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한때 '희망'이라 불렀던 '88둥이'가 만 26살이 되는 2014년, 그들은 지금 '88만 원 세대'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과 동시대를 호흡하며 숨 가쁘게 26년을 달려온 기호일보가 이들에게 다시 '희망'이란 화두를 던진다.

우리는 과도기… 내일을 준비하는 너무 바쁜 청춘들

'88둥이'는 섭외부터가 쉽지 않았다. 사회초년병의 하루 24시간은 마치 초 단위로 끊어 사는 것처럼 저마다의 일정이 빡빡했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두세 번 바꾸고 나서야 5명의 88둥이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다.

지난 2일 오후 8시 동인천역 인근의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에서 이들을 만났다. 늦은 시간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사전 장소 섭외부터 공을 들였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낯설어 하던 이들은 인터뷰가 시작되자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하고픈 이야기를 쏟아냈다. 먼저 이날 만난 5명의 '88둥이'를 소개한다.

당희경은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에서 자랐다.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이다.

김두훈은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이다. 방학이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기술연수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차혜림은 전문대를 나와 친구와 창업을 했다. 트랜스폼 웨어(조립형 옷)를 만드는 '다이애그널'이란 회사의 청년CEO다. 회사명 다이애그널은 '대각선'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선미는 포천시에서 태어나 13살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이기도 하다.

곽혜선은 부천시에서 태어나 지금은 용인시에 살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해 패션디자인을 전공했다. 졸업을 앞두고 다시 휴학해 돈을 벌며 유학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들과 또래인 본보 정회진 기자와 입사 1년차 이창호 기자가 패널 겸 인터뷰어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상당수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20대를 '생각 없음'으로 정의하곤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 대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신들의 20대는 안녕한가.

▶**두훈**=현실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20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괜히 페이스북 등 SNS에 속내를 드러냈다가 불만세력으로 낙인 찍히면 취업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순응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혜림**=상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존경쟁의 원리를 일찌감치 배우고 자랐다. 현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조차 할 시간도 없이 산다.

▶**혜선**=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전에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대학 4년 동안에만 등록금을 포함해 거의 1억 원을 썼다. 모두 부모님께서 대주신 돈이지만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강박감도 있는 것 같다.

▶**선미**=전문대를 나와 회계자격증을 따 바로 취업했다. 매일 철야 근무를 했지만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게 좀 억울했다. 그게 현실이었다.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

▶**희경**=꿈을 잃어버린 것 같다. 지금은 통장에 얼마씩 저축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언젠가 꿈을 되찾게 된다면 그때 모아 둔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알약을 놓고 선택을 강요받는다. 빨간약을 먹으면 기계들이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파란약을 먹으면 자각이 가능한 인간 도시에 남아 기계들과 싸워야 한다. 당신은 어떤 알약을 선택하겠는가.

▶**혜선**=원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목표였다.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많이 공부했고 자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으니 당연하다.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모험이 될 수 있는 일을 택하겠다.

▶**두훈**=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당연 파란약을 선택하겠지만 현실에선 그럴 수 없다. 취업이 당면 목표고 꿈이다. 누가 내 손 안에 빨간약을 쥐어주기만 해도 고맙겠다.

▶**혜림**=졸업 후 부모님 소개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일을 하고 싶어 창업을 했다. 처음에는 주위에서 배부른 소릴 한다며 욕도 많이 먹고 혼도 났지만 지금은 잘한 것 같다. 시에서 창업자금까지 지원받아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나니 부모님도 응원해 주신다.

▶**선미**=망설임 없이 빨간약을 선택할 것이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평범한 삶 속에서 가정을 일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희경**=어른들은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젊다고 뭐든 맘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꿈을 꾸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아는 이성적인 친구라면 누구도 선뜻 파란약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무개념? 안녕하십니까!

생존경쟁 속 우리, 일찍 철들었을 뿐
대학 4년 빚 1억… 성공에 대한 부채
SNS 성향조차 취업 유불리 걱정해야
매일 철야해도 100만 원 못받는 현실
꼬박꼬박 저축 꿈 위해 쓸 날 기다려

연말 결혼 앞둔 선미씨
학교는… 직장은 어디로
존재가치 증명받는 현실
공시 준비로 이직 꿈꿔

대학 졸업반 두훈씨
취업 목표, 스펙쌓기 열공
기성세대와 삶의 배경 차이
세월호는 무원칙의 참사

20대 창업 도전 혜림씨
안정된 일자리 박차고
내 일 찾기 쉽지않은 선택
지금은 내 영웅담 쓰는중

직장인 5년차 희경씨
하루하루 조금씩 전진 중
꿈꾸던 내 모습 근접할 것
세대간 갈등보다 소통을

유학 준비중인 혜선씨
평범하게 살려했죠
공부하며 더많은 도전 시도
10년후 당당한 사회 일원

부모의 틀로 규정 말아요…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죠

-'유신세대', '386세대', 'X세대', 그리고 '88만 원 세대'. 시대별로 20대를 특징짓는 언어가 있었다. 그리고 세대를 구분 짓는 기준점에는 항상 민주와 반민주, 자본과 반자본 등 경계가 있었다. 지금 당신들의 경계는 무엇인가.

▶선미=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닐까 싶다. 늘 그랬듯이 학교 다닐 때는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가 능력의 잣대가 되고, 지금은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나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

▶혜선=특별히 어떤 경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20대는 그저 과도기일 뿐이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 경계에 서 있고, 굳이 어떤 편이냐고 나누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본다. 지금의 나는 나를 더 완성해 가는 준비 과정에 있다.

▶두훈=정회진 기자는 대학 동기이면서 오랜 친구다. 지금은 지방지 기자지만 여자라서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도 더 나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나의 경계는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경계로 느껴진다.

▶혜림=처음 부모님께 창업을 하겠다고 할 때 반대가 컸다. 아버님은 늘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느냐고 하셨지만 지금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게 돼 버렸다. 그렇다고 '대각선'이란 회사명처럼 선을 긋고 싶은 생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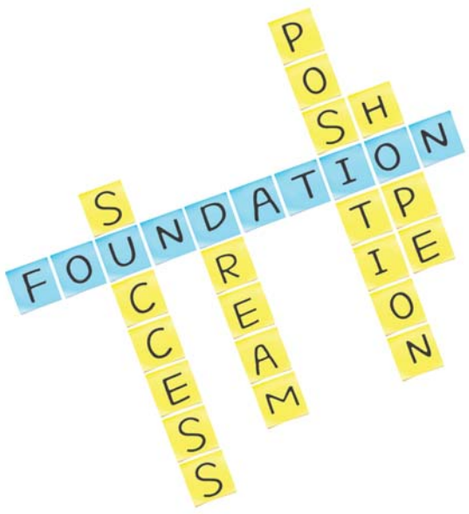
▶희경='88만 원 세대'란 말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쩜 이를 뼈저리게 느끼는 자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괴리감, 또는 지나친 기대심리에서 오는 자괴감이 스스로를 갈등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20대가 너무 게으르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커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보는 기성세대, 즉 부모님 세대는 어떻다고 보는가.

▶두훈=살아온 배경이 다르지 않은가. 게으르고 자립심도 없다는 것은 현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다. 사실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만도 많다. 세월호 참사처럼 아직 우리 사회는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기성세대들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혜림=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데는 그만큼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랬는데, 너희는 왜 못하니"식의 영웅담을 들으며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싶진 않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볼 때 언제까지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살지 걱정되기도 한다. 지금은 나의 영웅담을 만들기에도 급급하다.

▶선미=10대 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 마치 로봇처럼 부모님이 정해 준 시간에 맞춰 학원에 갔고, 부모님 취향에 맞춰 사 주는 옷만 입었다. 그런데 20대가 됐다고 갑자기 독립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희경=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살아온 나이 탓인지 이미 자기 자신이 길들여져 있는 틀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 틀을 자식들에게도 너무 강요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세대간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혜선=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대학을 나왔다. 비슷한 학력에 어느 정도 자격증과 토익 등 '스펙'도 비슷하다.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면을 보고 게으르고 독립심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살고 있다는 거다.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사는 '프리터족'과 '니트족'(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싱글족도 늘고 있는 추세다. 당신들의 10년 후 모습은 어떠한가.

▶혜림=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래도 10년 후에는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었으면 한다. 10년 후 성공한 CEO도 좋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각선이란 회사명처럼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두훈=10년 후 평범한 직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한 가정을 이루고 매일매일 뻔한 일과에 시달리면서도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갈 것이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일구는 게 지금의 꿈이다.

▶희경=니트족과 싱글족, 모두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0년 후든 1년 후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꿈꾸던 그 무언가에 다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혜선=10년 전, 26살이 되면 높은 구두를 신고 전문인으로 대우받는 멋진 직업인이 되는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당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미=공무원이 될 것이다. 무슨 대단한 국가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자식을 키우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사랑받고 살고 싶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들 '88둥이'와의 인터뷰는 인근 주막으로까지 이어져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계속됐다. 모두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건 아직 이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우리는 그들이 꾸는 꿈을 '희망'이라 부른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 co. kr
사진=최민규 기자 cmg@kihoilbo. co. kr

창의·소통 추구 '혁신학교' 늘려 공교육 내실화

"인천시민이 인천교육의 변화를 명령했기에 앞으로 교육청과 인천교육은 달라질 것이며, 교육이 살아 숨쉬는 교실에서 답을 찾아 시민들의 바람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청연(60)인천시교육감은 기호일보 창간 26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겁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학력도 높아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위기에 빠진 인천교육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창간 26주년을 맞은 기호일보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기호일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신속·정확·공정하게 보도해 왔으며 시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소통의 장이자 촉매 역할을 다해 왔다. 앞으로 인천교육은 변할 것이다. 멀리 교문이 보이면 가슴부터 뛰는 학교, 친구가 보고 싶고 선생님이 반가운 학교, 오늘이 행복하므로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학교 등으로 만들겠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더 소통하며 함께 호흡하는 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기대가 크다.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을 펼 것인지.

▶국민의 교육열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교육도 변해야 한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원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과 잘 공감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능력이고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교육감 효과'를 통해 하나씩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혁신학교'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경쟁과 서열에서 통합과 협력의 교육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개인 간 무한 경쟁에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너무 지쳐 있다. 교사들도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공교육도 서열화되고 있다.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만 바라보고 경쟁하고 있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독식하면 일반고가 살아날 수 없다. 이미 서울에서 증명된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 전체의 손실이다.

현재 인천에 이미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두 개의 자사고에 대해선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국제고나 외고, 과학고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추가 설립엔 동의하지 않는다.

무한 경쟁에 지친 학부모·학생들
공감·협력 능력 ↑일반고 살릴 것
학업 수준 분포 피라미드식 아닌
낙오자 적은 항아리식으로 가야
법정전입금 등 과제 해결 위하여
市 예산 10% 지원 공약 지켜주길

-현재 인천교육이 위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첫째는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서 인천교육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오랫동안 정체돼 온 인천교육에 '이런 교육도 가능하구나'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는 교육재정 확보다. 교육재정은 공교육의 기본이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인수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교육청 예산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기존 사업과 경직성 경비만 지출하는 데 1천6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재원 마련이 어렵다. 세입 감소로 중앙정부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교적 큰 예산이 편성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국가정책사업은 시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단호하게 처벌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려·존중의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다.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계획과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 수준 저하 우려에 대한 의견은.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앞서 말한 대로 창의적인 교육, 소통하는 교육,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 등이 이뤄지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다. 그런데 입시경쟁체제와 관료적 교육행정으로 시도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혁신학교는 그런 장벽 중에서 위로부터의 관료적 교육행정을 풀고 아래로부터의 교사들의 자발성을 묶어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과 경기에서 성공하고 있는 모델이다.

일부에서는 '혁신학교' 성과가 과대 포장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이 과대 포장돼 있다. 혁신학교가 학력이 낮다는 견해는 아마 상당수 혁신학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많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일 뿐이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겁게 배운다는 것이다. 토론식·협력식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학력도 높아질 것이다. 연차적 10개씩 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한 방안은.

▶암기 위주로는 학력 신장이 불가능하다. 미래가 원하는 인재는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학생이다. 미래 인재상에 들어맞으려면 학생이 토의와 협력학습에 적응해야 한다. 결국 혁신학교로 귀결된다. 현재의 피라미드식 줄세우기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항아리식 또는 다이아몬드식 분포로 가야 한다. 뒤떨어지는 학생이 적고 모두를 위하는 교육을 펼치겠다.

-그동안 인천시와 마찰이 있었던 법정전입금, 무상교육비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문제만은 인천시가 꼭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유정복 시장께서 교육예산 10%를 공약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인천교육을 살리는 데도 그 힘을 기꺼이 발휘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앞으로의 각오와 인천교육가족들에게 한마디.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춰 주던 부모님·교사·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않겠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들과 자주 어울리겠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온전한 학교라고 생각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꿈을 펼쳐 주길 바란다.

지시하기보다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4년 뒤에 박수받는 교육감이 되도록 진심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겠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학교 관련 기관과 공감대 이뤄 현장 중심 교육 추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역 문화 창출과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기호일보 창간 26주년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호일보가 그동안 경인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여론을 선도해 주길 기대한다"며 "언론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지역 현안문제를 (심층적으로)생생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 학부모, 학생, 교육 관계자와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선거 과정에서 만난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바람은 무엇이었나.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경기혁신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민심의 한 반영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혁신교육을 이어가고, 무상급식도 확대하는 동시에 제가 내걸었던 것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의 선장 역할, 동시에 선생님들을 섬기고 지켜드리는 교육감의 책임, 학부모들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경기도민들께서 충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도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는데 어떻게 보나.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있어 공통되는 원칙은 교육이 철저히 현장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감 당선인들은 보수 혹은 진보라는 이념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선택한 분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에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모두 다함께 뜻을 모으고, 전국적으로 교육의 공동 목표를 만들고 이것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흔히 말하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 개선, 즉 대학평준화에 대한 입장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배할 수 있을 때 고등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중등교육이 안정됐다. 고교평준화는 고입 경쟁을 완화시키고 고등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등 인성과 학력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 대학과 정부와 학부모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범하게 대학입시를 바꿔 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점 추진할 공약은.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기관 연계 갈등 예방교육으로 학교에서부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학교 안전계획과 학교시설 종합점검 및 개선으로 학교 안전을 책임지겠다. 현행 극기훈련식 대규모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학생이 주도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전환하고, 코스와 기관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할 것이다.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 등은 계승하면서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 혁신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전파해 행복한 경기교육을 이뤄 내겠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실을 다지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마을교육공동체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다. 마을과 학교가 교복이나 식자재 등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마을단위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도 개선하겠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등으로 경기교육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국의 교육감과 연대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조속히 개정돼 연 2조 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경기도지사나 기초단체장들과 긴밀히 상의해 지자체의 교육 지원 또한 늘려 나가겠다.

-보수 교육단체와의 협력 방안은.

▶학교교육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공감대 위에서 이뤄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학교가 있는 마을, 그 마을의 시민, 시민단체, 지자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교직원 더 나아가 학부모, 학생,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기관, 모든 기관들의 공감대가 있어야만 학교교육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손 잡고 가야 할 공동체라고 생각하며, 늘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기호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인지역 정론지, 기호일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기호일보가 그동안 지역문화 창출과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경인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 여론을 선도해 주시길 기대하고 성원하며,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한말씀.

▶경기교육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심교육이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확대, 교권 보호 조치 등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경기도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생명과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이 뿌리내렸다. 이제는 꽃피울 단계다.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고 다양한 경기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세계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길이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다. 다함께 더불어 가는 정책으로 경기도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희망을 완성해 나가겠다.

이종철 기자 jclee@kihoilbo. co. 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 co. kr

대학평준화 '고등교육 정상화' 발판
관계자 힘 합쳐 대입 제도 개선해야
체험학습, 학생 주도 테마형으로
코스·기관 안전인증제 도입할 것
인권조례 강화·교권보호조례 제정
사제간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앞장

튀고 뛰는 학교만들기 교사가 중심서 광낸다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 시대가 도래한 지 5년여가 흐르면서 교육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3대 교육정책으로 미래형 학교 혁신의 철학과 지향, 보편적 학습복지와 인권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는 국가 주도 개혁 교육정책의 한계와 대안학교, 작은 학교 운동의 성과를 통해 교육 주체의 자발성과 헌신,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학교에 접목시켜 학교 혁신을 이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추진 관행과 수직·관료적 통제 구조를 극복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집단지성의 문화에 기초한 혁신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양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으로 대변되는 혁신1기가 학교 현장과 각각의 단위학교 여건, 특성에 맞는 교육이란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혁신2기는 혁신교육의 밑그림에 색깔을 입히는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 혁신학교 도약 새 발판 마련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 대변되는 혁신1기(2010~2013년) 동안 경기 혁신교육의 골격이 갖춰졌다면 이재정 교육감(2014~2018년)의 재임기간인 혁신2기에는 혁신교육의 골격 위에 질적 향상과 일반화라는 살을 찌우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옷을 입힌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학교의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 이 교육감의 정책 기조다.

혁신2기엔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새로운 혁신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학교 모델이 개발되며,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로 혁신교육이 확산된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혁신1기가 교실 혁신·수업 혁신에 따른 차별성, 모델화 혁신학교로 학교 정상화를 이룬다면 혁신2기엔 제도 혁신·행정 혁신을 통해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화를 이룬다.

공모 위주의 혁신학교 선발 방식도 발굴 인증제 전환 및 평가·인증 강화를 통한 다양한 혁신학교 모델 개발로 다원화된다. 우선 혁신예비교(혁신특성화학교)를 2년 단위로 지원해 혁신모델학교로 만들고, 이에 대한 평가·인증을 거쳐 혁신명예학교로 육성한다.

혁신학교 모델은 전원형(자연체험, 숲속학교, 교육농장, 체험인성교육)과 창의형(창의체험, 창의예술, 과학기술, 융합교육), 진로직업형(자유학기제, 진로직업, 학생선택교과), 복지형(교육복지우선, 건강·인성 치유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된다. 혁신고도 인성형·학력형·진로형으로 나뉘고 혁신유치원 역시 도시형·농촌형으로 구분해 육성한다. 혁신예비교에 대해서는 혁신교육 프로그램 선택제를 운영해 학교당 3천만 원의 예산과 컨설팅·프로그램 등을 2년간 지원한다. 평가 결과 우수교는 혁신모델학교로 추천된다.

혁신교육지구사업 확대를 통해 혁신학교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혁신지구사업의 유형화와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존 사업에 대한 총체적 재평가와 추가 확대 지정을 위한 설명회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 교사끼리 '전문학습공동체' 꾸려 변화 주도

혁신2기의 혁신교육은 학교 현장에 맞는 하부 자발성·자율성·전문성·협동이 강조된다. 도교육청을 중심에 둔 위에서 아래로의 혁신이 이뤄졌다면 올해부턴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강화된다. 변화의 중심엔 현장 교사들이 자리하게 된다. 또 그 중심엔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가칭 '전문학습공동체'가 위치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교사들 간의 논의와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학습공동체는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소규모 전문학습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며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연구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학습 향상과 관련된 주요 사안과 문제점들을 교사들이 함께 설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각 전문학습공동체의 활동이 단위학교 내부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전문학습공동체들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리더 양성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개발해 지원한다.

 # 혁신교육 일반·보편화 가속도

경기도교육청이 일반 학교에 혁신교육의 새 옷을 입히는 작업에 한창이다. 혁신교육의 일반화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해 혁신학교를 도내 전체 학교의 80%까지 늘려 학교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교육청의 행정 지원체제가 강화된다. 혁신학교의 선발과 육성에 집중한 조직을 모든 학교의 학교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행정으로 바꾼다.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 혁신 역할도 강화한다.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고 상호 업무 분담을 위해 지역교육청의 혁신학교 발굴·육성·지역협력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의 학교 혁신 관련 업무는 축소해 학교 선발과 평가 업무 등 통합과 조정 기능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청 내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조직 재정비도 이뤄진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별도의 '혁신학교지원센터'도 신설한다. 혁신학교지원센터는 혁신 전문가(리더) 양성과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게 된다.

서길원 인수위 혁신학교 분과위원장은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위해 교육청은 정책 기획·조정·평가 기능 중심으로, 학교혁신지원센터는 혁신 리더그룹 양성과 컨설팅단 활성화, 지역교육청은 현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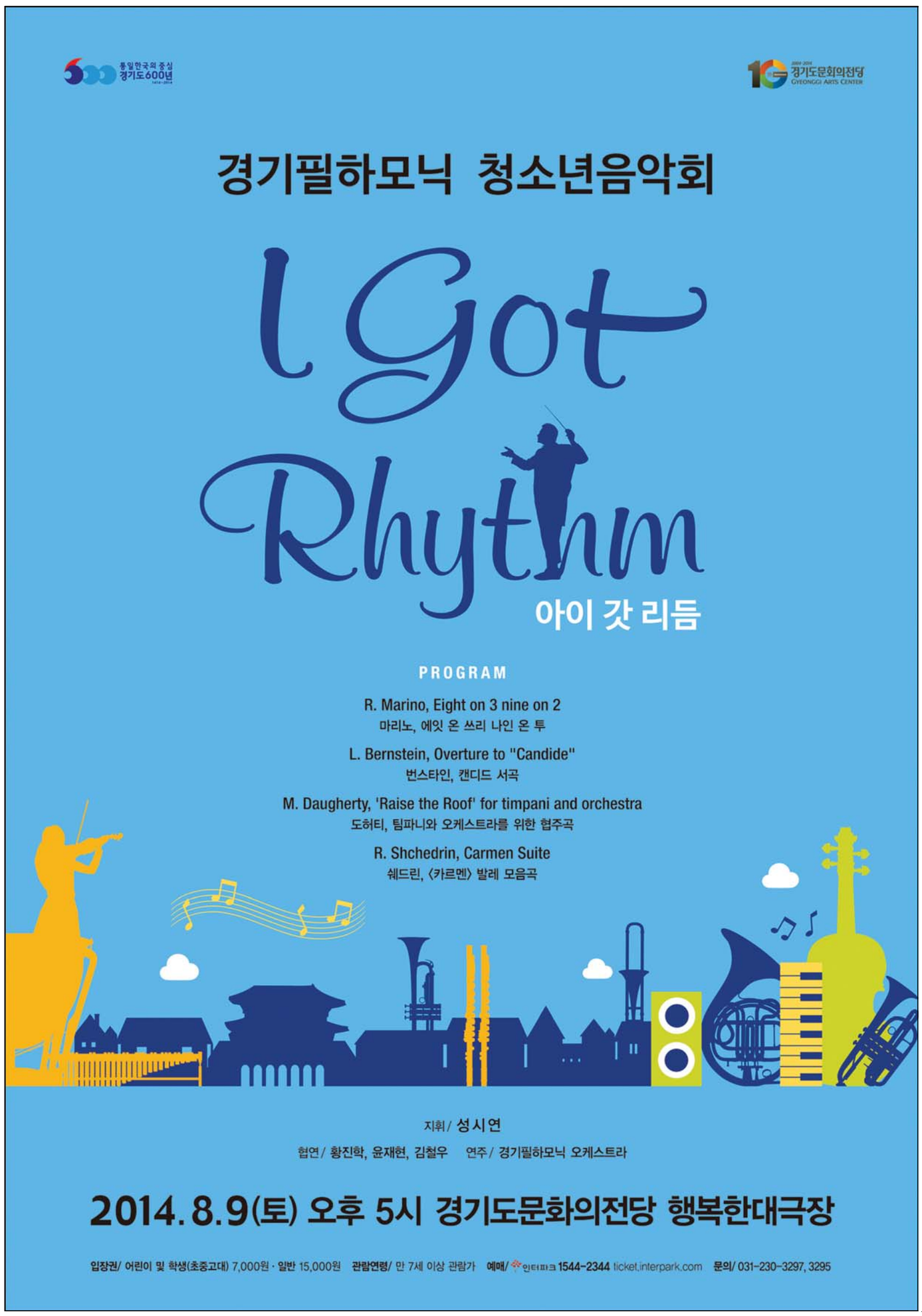
 # 지방선거 핵심공약… 전국적으로 현실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혁신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6개 시·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전북교육청은 혁신학교, 전남교육청은 무지개학교, 광주교육청은 빛고을혁신학교, 강원교육청은 행복더하기학교 등의 명칭으로 혁신교육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서울·경기·부산 등 13곳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진보교육의 아이콘인 혁신학교 바람이 몰아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전국의 혁신학교 수(올해 3월 1일 기준)는 578개교로 혁신교육의 진원지인 경기지역이 282곳(초 142, 중 107, 고 33)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북 100곳(초 67, 중 28, 고 5), 서울 67곳(초 36, 중 21, 고 10), 전남 65곳(초 44, 중 18, 고 3), 강원 41곳(초 22, 중 13, 고 6), 광주 23곳(초 10, 중 10, 고 3) 순이다.

이종철 기자 jclee@kihoilbo.co.kr



산업현장서 부닥칠 때 무역인재 점점 빛난다

Step 1
초보 수출기업들 마케팅 업무 난감
현장형 서포터스 사업 필요성 인지

Step 2
대학생 뽑아 80시간 무역실무 교육
업체와 매칭… 뉴미디어 운영 지원

Step 3
본부 전문위원 8명 '팀장 자격' 투입
업체 컨설팅과 최적의 서비스 발굴

Step 4
학생은 협업 시스템 배우고 익히며
사이트 구축과 제품 홍보 업데이트

Step 5
해외 바이어 이메일 답변 지원까지
팀장의 보완작업 거쳐 결과물 도출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대학생 서포터스 영어 합숙교육과 무역협 경기본부-경기대 실무인재 양성 MOU(왼쪽부터)

안산시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F사 대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주방용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바이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바이어에게서 샘플 요청 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대표부터 직원까지 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현장형 해외 마케팅 서포터스' 사업을 신청한 이 업체는 앞으로 영문 서식, 온라인 해외 마케팅, 무역 애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F사 대표는 "무역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인턴을 고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큰데, 비용 부담 없이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돼 우리 같은 초보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7월부터 도내 초보 수출기업의 영문 서식 대응,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단국대(총장 장호성), 경기대(총장 김기언)와 MOU를 체결하고 도내 40개 무역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초보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때 가장 큰 애로가 무역실무 및 영어 능력을 겸비한 인재 부족임을 착안, 중소기업의 마케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서포터스로 선발된 40명의 학생들은 7월부터 두 달여간 무역 실무교육, 비즈니스 무역영어 합숙교육,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교육 등 모두 80시간의 무역 실무교육을 받고 현장형 인재로 거듭나게 된다. 이 학생들은 40개 무역업체와 매칭돼 업체의 tradeKorea, LinkedIn 등 온라인 마케팅 툴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유튜브·페이스북 등 최근 수출 마케팅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요 SNS 구축 및 활용 지원도 병행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한다.

#무역협회 전문위원들이 가교 역할

이번 '현장형 해외 마케팅 서포터스'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산학협력 사업의 기업·학생 간 매칭 구조에 변화를 줬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산학협력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 학생 능력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소속 해외 마케팅 전문위원 8명을 투입, 수출기업·학생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스단의 팀장은 전문위원, 팀원은 대학생들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은 선정된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제품의 특징, 수출 및 애로 현황 등 업체 상태를 진단해 업체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게 된다. 그 후 업체에 적합한 온라인 마케팅 툴을 찾고 학생은 전문위원과 협업을 통해 사이트 구축, 지속적 제품 홍보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없는 업체일 경우 바이어와 교신하는 이메일 해석 및 답변 지원, 인콰이어리 응대를 학생이 수행하고 업체에 제공하기 전 전문위원의 수정 작업을 거쳐 업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수출기업과 대학생 '더불어 희망'

현장형 해외 마케팅 서포터스단에 선정된 단국대 무역학과 3학년 문소희 학생은 "학교에서 무역에 관해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실제 기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무역업체에 취직을 하면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했다"며 "이번 서포터스단 사업에 참여해 비즈니스 영어, 서류 작성 방법, 온라인 마케팅 기법 등 취업을 할 경우 곧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됐고, 실제로 수출기업에서 발생하는 일을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호 본부장의 향후 계획

기업·대학생 윈윈전략 점검 경기도형 모델 정착시킬 것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도내 많은 수출 초보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보면 1~2인 기업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수출을 하고 싶어도 해외 마케팅을 담당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무역의 미래인 무역학과 학생들도 최근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치중할 뿐, 수출기업이 원하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번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협회 소속 해외 마케팅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하게 됐는데, 업체와 대학생 간 니즈 차이를 좁히고 업체 지원 콘텐츠의 퀄리티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해 기업, 학생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이며, 향후 도내 우수 자원을 활용한 기업 지원 모델을 만들어 수출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기자

성남시 소재 C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회사 내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무역협회 외국어 통·번역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 지원 한도를 금방 소진하게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영문 서식 해석 및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하반기 수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포터스단에 선발된 단국대·경기대 학생 40명은 두 달여간 비즈니스 무역영어 합숙교육, 계약법, e-마켓플레이스 활용법 등 다양한 무역 실전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 지원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영문서식 작성·검토,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 종료 후 업체와 학생이 원할 경우 취업까지 이르게 돼 청년인력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바바(Alibaba),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 등 온라인 마케팅 사이트에 등록만 하고 인력 부족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업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100년 명운 건 개발사업 시동… '산업기관차' 가속 붙는다

평택시가 올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기에다 새 희망을 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 경제,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 LG전자 산업단지 추가 확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KTX 신평택역사 착공 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의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은 미래 평택시의 100년을 책임질 토대가 된다. 이에 본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평택시의 100년 미래를 위한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최대 규모 삼성전자 고덕산단 공정률 46%
투자액 100조 이상… 고용창출효과 3만 명
고덕신도시 1단계 면적 확대·착공 앞당겨
LG전자도 고부가 전자제품 생산기지 확장
KTX 신평택 역사건립도 '훈풍' 10월 착공

 # 삼성전자 산업단지 순조롭게 진행

2010년 12월 23일 평택시 입주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부지 조성 착공에 들어갔다. 삼성 고덕산업단지는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공정률 60%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고덕산업단지는 395만㎡ 규모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2.8배, 화성사업장의 2.6배, 아산 탕정사업장의 1.6배에 달하며 삼성전자가 조성해 온 국내외 사업장 중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3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 조기완공 박차

첨단산업도시와 국제교류도시로서 평택 발전을 획기적으로 주도해 나갈 고덕신도시 1단계 공사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서정리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되는 1단계는 당초 324만㎡에서 446만㎡로 확대됐으며, 착공도 당초보다 1년여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되는 2단계 사업 440만㎡는 2015년 착공하며, 66만㎡ 규모의 함박산 중앙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제교류특구 중심으로 개발되는 3단계 사업 456만㎡는 2016년 착공, 국제교류특구를 조성해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문화도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LG전자 산단 추가확장 진행 중

LG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기존 56만㎡에 112만㎡를 확장 중인 가운데 13만㎡ 개발에 이어 99만㎡ 개발계획이 지난해 12월 5일 최종 승인 고시됐다.

특히 LG전자 등이 입주하는 진위2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일원에 98만㎡ 규모로 평택도시공사가 조성하게 되며, 부지 조성 후 LG전자 등이 입주한다. LG전자 등은 이곳에 산업용 냉동공조설비 등 미래 신수종산업과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G전자 확장으로 올해 가동에 들어가는 13만㎡에 1천5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99만㎡는 2015년부터 가동해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행정절차 이행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1년 LH에서 2천13만㎡를 전면 포기했으나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440만㎡를 신규 유치, 그 중 포승지구 208만㎡가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했다.

황해구역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포승지구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당 조성원가를 당초 200만 원에서 173만 원으로 낮춤에 따라 기업 유치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황해구역 현덕지구 231만㎡에 대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현재는 개발 변경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변경 승인을 얻어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KTX 신평택역 설계 마무리, 하반기 착공

KTX 수도권 고속철도 평택역사 설치가 2012년 2월 확정된 후 평택시는 역사 건립을 위해 설계를 끝내고 2016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오는 10월 착공한다. KTX 평택역사가 준공되면 서울 수서~평택 구간은 18분, 평택~광주 송정 구간은 1시간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평택에서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또 평택시는 역사 건립과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역사 신설 사업비 543억 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 기관과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적극 추진해 국토교통부 20%,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30%, 경기도가 25%를 부담하고 평택시는 25%인 135억 원만을 부담키로 해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KTX 신평택역사와 연계한 광역환승센터는 신평택역과 지제역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오는 10월 착공할 방침이다.

 # 권역별 6대 명품공원 본격 추진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과 자연경관을 살린 권역별 명품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충레포츠공원 확장(8만2천㎡→16만5천㎡)과 안중레포츠공원(15만㎡)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또 남평택 모산골평화공원은 모두 26만㎡ 중 우선 9만9천㎡ 조성에 착수했으며 농업생태공원, 산림테마공원, 팽성내리 수변문화공원 등은 한창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개발사업에 66만㎡ 규모의 함박산 중앙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덕면 궁리에 11만9천㎡ 규모의 소풍공원도 조성하고 있다.

평택=윤영준 기자 yjy@kihoilbo. co. kr

▲공재광 평택시장이 고덕국제화지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아래는 남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조감도)
◀2016년 평택역사가 완공되면 달리게 될 KTX.

생산-소비자 상생의 길 활짝… 농업 新패러다임 영근다

이른 새벽 양평군의 어느 블루베리 농장에서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할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다. 그날그날 식감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선별해 소포장까지 마치면 직접 매장에 배달하고 어제 소비자와 단골손님들의 반응, 오늘 가격 등을 책정한다.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의 단골손님이다. 단순히 싸게 팔아서 단골인 건 아니다.

최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대형 마트마다 저렴한 친환경 농산물을 내놓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만나본 농부의 손길에서 수확된 농산물이 더욱 호감이 가기 때문이다.

각종 중첩규제 발목… 친환경으로 난관 돌파
노하우 활용 아시아 농업허브도시 도약 야심
단순한 생산 기술 뛰어넘는 '신뢰·공감' 구축
협동조합 설립… 안전한 식생활 문화에 앞장
직거래 시스템으로 거품 빼고 운송거리 단축

▲김선교 양평군수가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해 이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확한 블루베리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여성 영농인.

 #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혁신 '로컬푸드 운동'

로컬푸드 운동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고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와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도록 하는 노력이다.

전국 최초·최고의 '친환경농업의 특구'는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1973년 팔당댐 준공 이후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돼 지역 발전이 더뎠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일찍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했다. 1998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선포식을 가진 이후 '양평 환경농업21,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군은 이제 축적된 노하우와 잘 다져진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토대로 아시아 친환경농업 허브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의 친환경 로컬푸드 운동 속에는 '신뢰'와 '공감'이 있다. 친환경농업 기술이 풍부한 군은 이제 단순 생산만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을 인식했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알았다.

양평군 친환경 로컬푸드 운동의 배경은 이렇다.

첫째, 돈 되는 친환경농업이다.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직거래 판매를 통해 거품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에게 경제적 소득을 증가시켜 친환경농업인들이 보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현에 있다. 식품의 운송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해 지속적인 식생활 문화를 개선한다.

셋째, 신뢰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소통 그리고 공감이다. 도시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전통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농업인은 도시에 안전한 먹을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준다. '신뢰'와 '공감'을 통해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속 가능하게 추진한다.

 #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 본격 활동

양평군은 2013년 12월 친환경농업인 33명이 모여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은 로컬푸드 운동 확산과 동기부여를 위해 친환경농업인 260여 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로컬푸드 선진지를 돌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워 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드디어 양평전통시장 내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양평의 로컬푸드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이미 3천800여 명의 소비자 회원을 확보하고 꾸준한 매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올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공모한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8월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 직매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는 수도권 12곳의 협력매장을 통해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를 도시 소비자가 만나 볼 수 있도록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 로컬푸드 운동을 6차산업화의 동력으로

농업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는 결코 다르지 않다. 마치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에 비유할 만큼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평군은 혁명과도 같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와의 소통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로컬푸드 운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6차산업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평=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 co. kr

7.8km 버려진 폐갱도 불 밝히니 관광자원 반짝반짝

광명가학광산동굴(이하 광명동굴)은 광명의 블루오션이다. 광명동굴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금·은·동·아연 등을 채광했던 102년 된 수도권 유일의 금속 폐광산으로 총 8레벨로 구성된 7.8㎞의 갱도와 50여 개의 동공, 깊이 275m 규모의 광산을 그대로 간직한 자원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광명동굴의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으며,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의 아픔이 있었고 해방 후 고도성장기에는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으로 우리나라 근대사가 압축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 더해 동굴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방문자들은 누구나 규모가 크고 다양한 볼거리에 놀라워한다. 특히 KTX 광명역에서 1.5㎞, 서울 여의도에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최적의 접근성을 자랑한다.

광명시는 이곳을 세계적인 동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1년 초부터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개방 후 총 60만 명이 방문했고, 올 하반기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하루 최고 1만3천여 명이 찾아오는 등 수도권 최고의 피서지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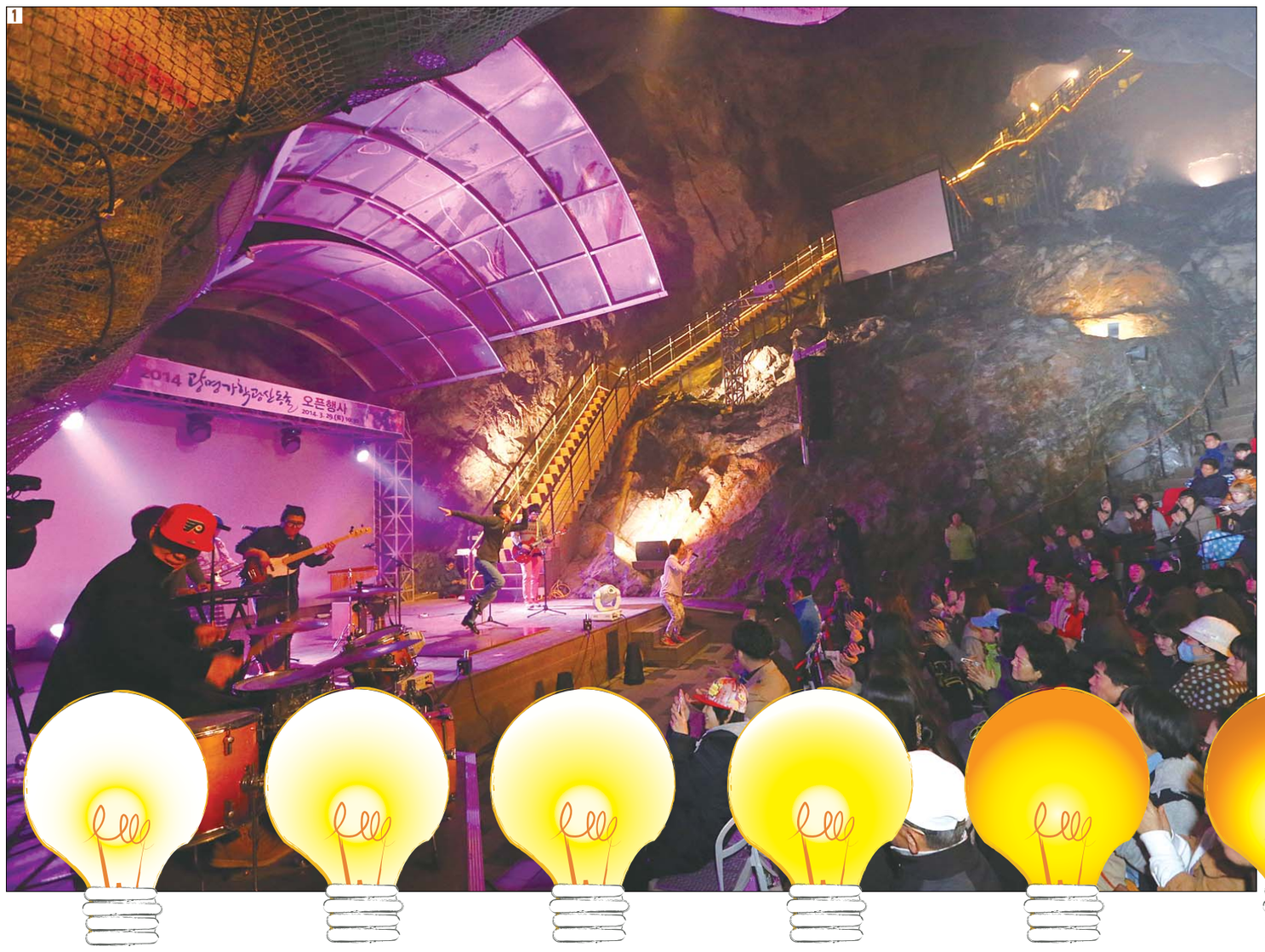
그동안 광명동굴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 오페라·뮤지컬 공연, 3D영화를 상영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31일 세계 최초로 국내 정상급 남녀 모델 20명이 패션&보석쇼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은 광명동굴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가치를 보여 주는 동굴 근대문화전과 LED조명 및 투광기를 이용한 빛의 생명체전 등이 열려 방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광명동굴 밖 선광장의 광산문화체험관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산 모자 만들기, 광물 모형 만들기, 광산 그리기 DIY, 내가 만드는 동굴 손수건, 돌 편지 쓰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굴 지하에서 나오는 암반수로 1급수에만 서식하는 물고기를 기르는 대형 수족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연중 12℃인 동굴의 특성을 살려 동굴 와인레스토랑을 만들고 와인 저장고와 바 등을 설치해 개인용 와인셀러를 분양하는 수익사업도 구상 중이다.

또한 동굴 개방 2년 만에 7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문화와 예술, 과학이 융합된 창조경제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야외체험장에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등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광명시내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의 매출도 꾸준히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동굴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올해 하반기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광수입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 한류를 이끈 중국 호남방송, 일본 인터넷 여행사이트 KONEST 및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등에 소개돼 중국·일본·독일 등 해외 관광객도 늘고 있는 추세다. 향후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돼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시세 수입 확대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광명 가학동굴에서 전시회, 오페라·뮤지컬 공연, 3D영화 상영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으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2 발효식품 저장고 협약식. 3 동굴오픈행사. 4 최근 동굴 근대문화전과 LED조명 및 투광기를 이용한 빛의 생명체전 등이 열렸다.

102년 된 수도권 유일 폐광산 활용
광명시, 복합문화관광지로 재탄생
개발 2년 만에 창조경제 롤모델 부상

오페라·패션쇼·전시회 등 문화공연
연중 12℃ 유지되는 동굴 특성 살려
와인 저장고·피서지 수익사업 구상

총 60만 명 방문… 올 100만 돌파 예상
亞 첫 '라스코' 동굴 벽화 전시회 계획
세계 이목집중… 브랜드 가치도 껑충

시의 이 같은 노력을 주목한 주한프랑스대사관의 문화원장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전시회를 광명동굴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 제안이 성사되면 원시미술의 대표작인 라스코 동굴벽화와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이 서린 광명동굴을 통해 시대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의 아시아 최초 전시를 통해 전세계 관광객의 이목이 광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동굴 개발에 희망을 갖게 된 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동굴 개발계획을 포함한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 이로써 가학산 일원 61만㎡ 규모에 광명동굴 내부 0에서 3레벨까지 약 3만1천400㎡를 포함해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명동굴은 지난 한 해 4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 유일의 금속 폐광산을 복합문화관광지로 재탄생시킨 창조경제의 롤모델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편익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근린공원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근린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가학산 및 광명동굴 관람객을 위한 전망대·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과 암석원·물소리쉼터 등 조경, 피크닉장 및 야생화원 등 휴양공간, 에코어드벤처 등 유희시설, 암벽등반 코스 등 운동시설, 전시장·수목원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동굴 내부에는 갤러리, 카페, 공연장, 휴게소, 홍보관, 발효식품 등의 여러 가지 복합문화관광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시에서는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광명동굴 아래쪽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6월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새 단장을 끝내고 일반에 공개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학산의 싱그러운 초록색과 대조를 이룰 수 있도록 열정의 빨간색 바탕에 흰 구름을 넣어 새롭게 선보였으며, 광명동굴과 연계해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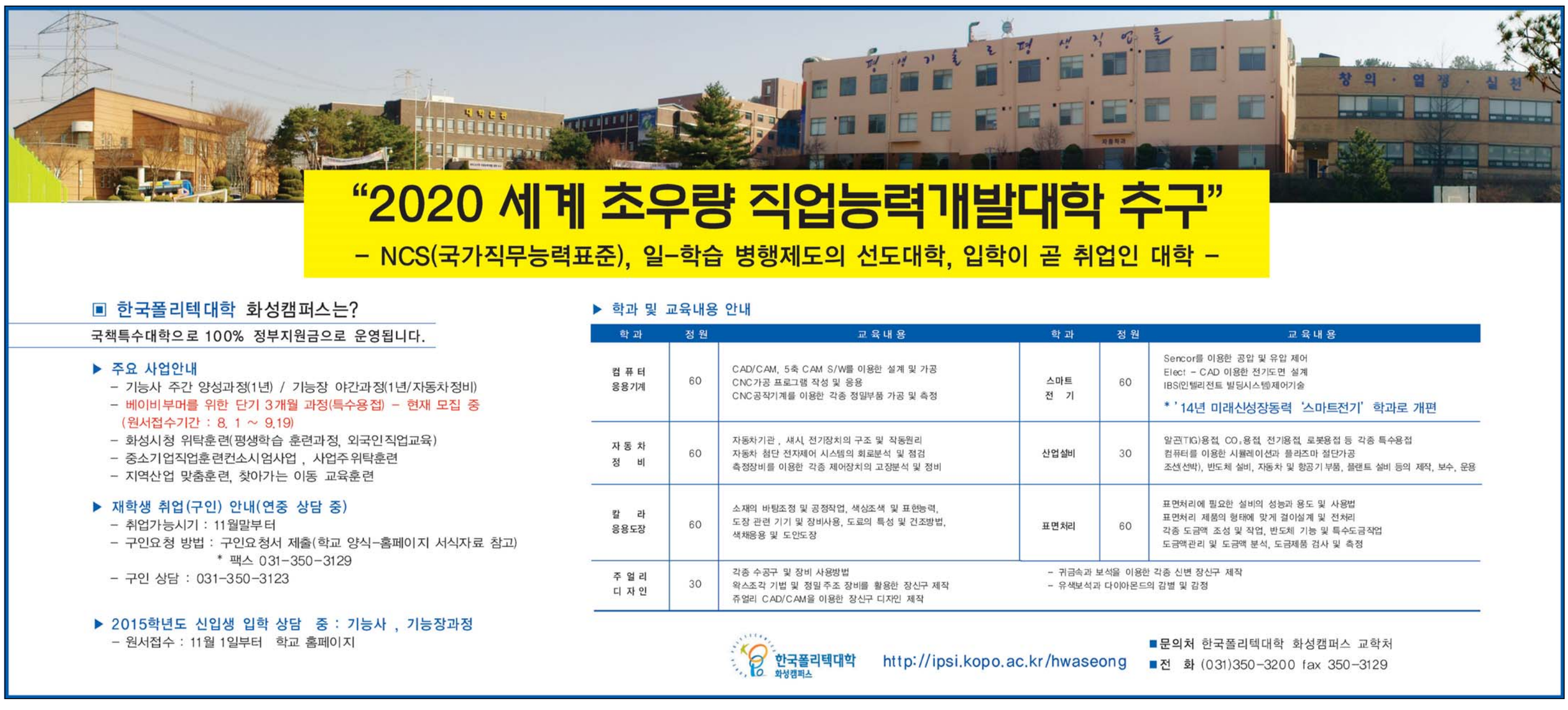
자원회수시설 홍보동 1층에는 광물아트전이 열리고 있는데 수천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다이아몬드·루비·자수정 등 114점의 신비로운 원석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곳은 광명동굴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꼭 지나가는 곳인 만큼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찾는 광명동굴의 경제적 활용 가치는 대표적 자산인 KTX 광명역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 개발해 광명역세권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등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과 베스트웨스턴 광명호텔 등이 입주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KTX 광명역을 경유하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와 연계해 광명 국제디자인 클러스터가 본격화되면 KTX 광명역세권은 명실상부한 서부 수도권의 유통·쇼핑·디자인 중심도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광명가학광산동굴, 그 신비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광명의 브랜드 가치 역시 덩달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나눔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경기

새투자 전략 '사회공헌' 이웃 얼굴에 생기 돈다

도내 3700여 기업 경영철학 나눔 접목… 경기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합심
휴머니즘 사고 바탕 복지분야 지원… 이미지 개선·윤리적 브랜드 홍보도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됐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일컫는 말로 '사회공헌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회공헌활동이 연말연시에 행해지는 이벤트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만을 위해 행해지는 의무적 봉사활동들로 채워져 사회공헌의 진정성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경영철학에 나눔을 접목하며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실제 2013년 4월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CSR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CSR에 사용되는 비용을 '투자'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단순히 시혜적인 기부·자선적인 활동에 불과했지만, 점차 '나눔'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휴머니즘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기업과 경기공동모금회가 '함께 웃는 경기'

지난해에는 경기도내 3천700여 기업이, 올 상반기에는 1천20여 기업이 새롭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전파에 앞장서며 '나눔으로 함께 웃는 경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성금·현물·기업 물품 기부 등 참여 방법이 다양하며,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공동모금회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복지분야에서 지원사업을 모색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결과 보고를 통해 기부금의 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업과 함께 사업을 평가하고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도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이 위치해 있는 시·군 또는 경기도내의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기'는 주거환경 개선, 화상 아동 및 희귀난치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해 질병과 위생으로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문화 체험, 희망소리 합창페스티벌 등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는 노사 합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화성시 관내 청소년 봉사캠프 등 아동·청소년 지원사업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통역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해 이천시 관내 친환경공부방, 아침愛(애)도시락센터, 미래과학인재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꿈을 꾸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기업의 특색을 살려 2011년부터 경기도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학습지 지원과 아동도서, 장난감 기부 등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창의력을 높이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꿈꾸는 공부방 지원, 공부방 개·보수 지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마트'는 지역주민과 중증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연 체험 탐방과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확산되지 못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이처럼 많은 경기도내 기업들이 경기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크고 작은 기업의 수는 6만6천여 개로 경기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7%인 4천720여 곳에 불과하다.

'2013년도 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은 경기도 전체 기업의 5.6%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10.3%에 달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도내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공동모금회(☎031-220-79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인터뷰 김효진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기업 사회공동체 책임 지킬 때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이익 창출

기업 사회공헌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제 CSR를 'Corporate Social Right' 즉, '기업의 사회적 권리'라는 의미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일류 기업이 되려면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함께 '기업시민정신'으로 일컬어지는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올바른 경영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술과 품질은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역량이고, 기업 시민정신은 무형의 장부 가치로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 시민정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다.

1 삼성전자는 소외계층의 낡은 집을 고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 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성남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식. 3 삼성전자 성금전달. 4 SKC여사원회는 일일찻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전달했다. 5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성금전달식.

101패 뒤 1승 향해… '차밍걸'의 뜀박질

경주마 전패 오명 안고 은퇴
전국 장애물경기 출전 시작
승용마로의 '재기 찬스' 잡아

경주마 '차밍걸'이 전국 국산마승마대회 장애물 경기에서 승용마 데뷔를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101전 전패'란 한국 경마 최다 연패 기록을 세우고 2013년 9월 은퇴했던 경주마 '차밍걸'의 제2의 인생이 화제다.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경주마 출신 '차밍걸'이 지난 19일 경북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열린 2014년 전국 국산마승마대회 장애물경기에 경기용 승용마로 첫 데뷔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차밍걸이 데뷔전을 가진 장애물 경기는 말과 기승자가 함께 총 10여 개의 인공 장애물을 전문 코스 디자이너가 설계한 경로에 따라 넘는 경기다. 차밍걸은 대회에서 비월 기술과 말의 자율성, 속도, 복종성을 평가받았다.

차밍걸은 2008년 데뷔해 6년간 총 101회 경주에 출전, 3위가 최고 성적이었던 이른바 '똥말'이었다. 하지만 무승 기록이 늘어날수록 경마팬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이 못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차밍걸의 모습이 우리네 서민과 닮았기 때문이다. 101회 출전은 한국 경주마 최다 출전 기록이기도 하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위대한 꼴찌마'.

성적 때문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 만도 한데 차밍걸은 은퇴 후에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경주마로 실패했다고 다른 것도 못하란 법은 없다며 차밍걸을 거둬들여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용 승용마로 변신시킨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주마 출신 차밍걸을 경기용 승용마로 변신시킨 류태정(48)궁평목장 대표는 "경주마를 졸업한 차밍걸이 경주로가 아닌 승마대회에서 첫 우승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대표는 2013년 승마협회 신인상을 받은 아들 류은식(19)씨에게 훈련을 전담시켰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 co. kr

수원·인천 득점 경쟁… 결국 한 골이 가르다

1골 1도움 올린 서정진의 수원
문상윤 분전한 인천 꺾고 승점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이 1골 1도움을 올린 서정진의 맹활약을 앞세워 인천 유나이티드에 1골 차로 승리를 거뒀다.

수원은 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인천을 3-2로 꺾었다. 승점 26점을 쌓은 수원은 이날 FC서울과 무승부에 그친 4위 제주 유나이티드를 1점 차로 압박했다. 인천(승점 10)은 그대로 꼴찌에 머물렀다. 수원은 전반 18분 고차원이 로저의 도움을 받아 호쾌한 오른발 땅볼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으나 이후 인천의 거센 압박에 밀려 하프라인을 제대로 넘지도 못했다.

서정진은 전반 37분 산토스의 그림 같은 패스 플레이에 이은 침착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올리며 인천의 기세를 꺾었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절묘한 2대 1 패스로 인천 수비진을 무력화한 후 발재간으로 수비수 2명을 더 제치고 골지역 오른쪽에서 왼발로 공을 왼쪽 골대에 꽂아 넣은 것이 시즌 첫 번째 골이었다.

서정진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택배 크로스로 산토스의 헤딩골까지 도와 이날 승리의 수훈갑이 됐다.

인천은 후반전에 문상윤이 1골 1도움을 올리며 서정진을 향해 멍군을 놨다. 인천은 후반 16분 문상윤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이효균이 방향만 바꾸는 헤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격의 불씨를 살린 뒤 9분 뒤 이천수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내자 키커로 나서 절묘하게 왼발로 감아 차 공을 오른쪽 상단 구석에 꽂아넣었으나 더 이상은 득점에 실패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 co. kr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20일 열린 2014 안산·우리카드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B조 조별리그 대한항공과 LIG손해보험의 경기에서 LIG손해보험 정기혁(뒤)과 대한항공 곽승석·김형우가 네트 위의 볼을 서로 상대 코트로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Sports 소식통

인천빙상연맹, 미국 링크장 활용 교류 사업

인천빙상연맹이 세계적인 피겨스타 미셸 콴의 가족이 운영하는 아이스링크장 '이스트웨스트 아이스팰리스(East West Ice Palace)'와 각종 연계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인천빙상연맹에 따르면 현재 인천 소속 빙상선수들의 미국 전지훈련 중 인천빙상연맹 조성만 전무이사가 최근 이스트웨스트 아이스팰리스를 방문, 다니엘 콴 사장과 빙상 관련 각종 문화를 서로 교류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사인했다. 양 기관은 서로의 링크장 강습 기회 제공은 물론 지도자의 훈련 방법 및 프로그램 교류, 각종 캠프와 특별 클리닉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AG 조직위, 수송요원들에 세 차례 직무교육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1일과 22일, 26일 등 3일간 인천평생학습관과 부평구청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45개국 선수와 임원, 심판, 미디어 관계자 등 대회 패밀리 2만3천여 명의 수송을 전담할 수송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에서는 고객만족(CS) 전문강사를 초빙해 고객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서비스 제공과 국제 매너,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다룬다. 또 구체적인 대회 패밀리 수송 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앞서 친절하고 안전한 최상의 수송서비스 제공을 결의하는 선서식을 갖고, 대회 수송 성공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성지현, 타이완오픈 배드민턴 여자단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성지현(MG새마을금고)이 타이완오픈 그랑프리골드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5위인 성지현은 20일 타이완 타이베이(臺北)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류신(중국·세계랭킹 23위)을 2-0(21-13 21-18)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성지현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이후 3개월 만에 국제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성지현은 한국 대표팀 중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 우승까지 이뤄냈다.

1세트 류신에게 21-13으로 낙승을 거둔 성지현은 2세트에서는 8-3까지 앞서다가 8-9로 역전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곧장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흐름을 되가져온 뒤 한 번도 리드를 놓치지 않고 21-18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레버쿠젠 프리시즌 경기 20분 뛰어

'손세이셔널' 손흥민(22)이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프리시즌 경기에 처음으로 나섰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노이마르크트 암 발레르제의 노이마르크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레버쿠젠과 마르세유(프랑스)의 친선전에 후반 24분 곤잘로 카스트로와 교체돼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서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지난 18일 레버쿠젠 훈련에 합류했다. 하루 만에 친선전에 나선 셈이다.

손흥민은 20여 분간 뛰었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후반 42분에는 올림피크 리옹 수비수 예레미 모렐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양팀 선수들뿐 아니라 레버쿠젠에선 로거 슈미트 감독까지 승강이에 끼어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으나 손흥민과 일부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레버쿠젠은 1-4로 졌다. /연합뉴스

오늘의 경기

◇21일(월) ▶수영=MBC배 전국대회 겸 인천아시안게임 경영대표 선발대회(오전 9시·김천실내수영장) ▶역도=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오전 8시 30분·양구 용하체육관) ▶소프트볼=전국종별여자소프트볼대회(오전 9시·청원 외천꿈돌이야구장) ▶프로배구 안산우리카드컵=GS칼텍스-도로공사(오후 5시) 삼성화재-우리카드(오후 7시·이상 안산상록수체육관) ▶프로축구 2부=안양-강원(오후 7시 30분·안양종합운동장) ▶여자축구=전국선수권대회(오후 5시·합천 인조구장, 공설운동장) ▶하키=중고연맹회장기(오전 9시·동해 웰빙스포츠타운 하키장) ▶테니스=낫소기전국남녀중고대회(양구테니스파크) ▶사격=회장기 전국중·고대회(오전 9시·나주종합사격장) ▶요트=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오전 10시 55분·강원 양양군 수산항) ▶농구=제69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오전 10시·상주체육관) ▶양궁=대통령기전국남녀대회 최종일(오전 9시·인천계양아시아드양궁장)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KBS 1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 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0 TV동화 빨간 자전거
10:55 튼튼 생활 체조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55 바른말 고운말

12:00 KBS 뉴스
1:00 강연 100℃
2:00 바른말 고운말
2:05 러브 인 아시아
3:00 뉴스 토크

4:00 시사진단
4:55 튼튼 생활 체조
5:00 KBS 뉴스
5:20 동물의 세계
5:40 KBS 뉴스 특보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7:00 KBS 뉴스
7:30 우리말 겨루기
8: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9:00 KBS 뉴스9
10:00 가요무대
10:55 긴급출동 24시
11:30 KBS 뉴스 라인
12:30 TV,책을 보다
1:10 T 타임
1:40 알약톡톡

KBS 2

6:00 튼튼 생활 체조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굿모닝 대한민국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순금의 땅〉
9:40 여유만만
10:50 지구촌 뉴스
11:15 사랑의 가족
11:45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5~6회–〉

2:00 KBS 뉴스 타임
2:10 세상의 모든 다큐
3: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3:25 쥬로링 동물탐정
3:55 TV 유치원 콩다콩

4:25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4:55 밥상의 신

6:00 KBS 글로벌 24
6:30 생생 정보통
7:50 일일 드라마
〈빼꾸기 둥지〉
8:30 생생정보통 플러스
8:55 위기탈출 넘버원

10:00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2: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2:45 해외걸작 드라마
〈오펀 블랙2 – 또 하나의 가족〉
1:35 특파원 현장보고

MBC

5:10 MBC 뉴스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MBC 여성토론 위드

12:00 MBC 정오 뉴스
12:20 문화 四色
1:10 MBC 네트워크 특선
〈고려인,문명을 세기다 1부〉
2:05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3:00 MBC 경제뉴스
3: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3:40 헬로키즈 숲속마을 붕붕붕

4:30 똑?똑! 키즈 스쿨
5:00 MBC 이브닝 뉴스

6:20 여행 남녀
7: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7:55 MBC 뉴스데스크
8:55 MBC 일일 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월화특별기획
〈트라이앵글〉
11:15 MBC 다큐스페셜 〈세월호 100일 – 사랑해, 잊지 않을게〉
12:15 MBC 뉴스 24
12:35 스포츠 다이어리
12:50 MBC배 전국 수영대회
1:50 TV 예술무대

SBS

5:00 SBS 뉴스
5:10 굿모닝 510
6:00 모닝와이드 〈–1~2부–〉
8: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10 좋은 아침
10:30 SBS 뉴스
11:00 SBS 생활 경제

12:00 SBS 12뉴스
12:30 월화 드라마
〈유혹〉
1:40 접속!무비월드 스페셜
2:00 SBS 뉴스
2: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보인다
3:1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4:00 매일엄마 2
4: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5:30 날씨와 생활
5:35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여행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00 SBS 8뉴스
8:55 생활의 달인

10:00 월화 드라마
〈유혹〉
11: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35 나이트 라인
1:05 SBS 골프
2:05 프로야구 중계석
3:0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4:00 문화가 중계

OBS

6:00 생방송 OBS
7:25 독특한 연예뉴스
8:15 건강요리대백과
〈마님과 식탁〉
8:45 테마스페셜
9:45 OBS 뉴스
10:00 로드 다큐 〈만남〉
11:00 Music & Movie
11:30 TV 주치의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2:05 연예 매거진
1:05 OBS 초대석
2:05 인생열전 〈살 맛나는 세상〉
3:05 OBS 애니월드
〈꼬마버스 타요〉
3:55 꾸러기 TV
〈욜랑욜랑 미술나라〉

4:45 OBS 뉴스&이슈
5:45 TV 주치의

6:00 다큐월드
〈하늘에서 본 지구3〉
6:55 으랏차차 7시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 뉴스
8:55 독특한 연예뉴스

9:45 거대건축의 비밀
10:40 OBS 京人 뉴스라인
11:05 로드 다큐 〈만남〉
12:05 로드 다큐 〈만남〉 스페셜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EBS

오전
5:00 World News Review
40 나의 성공 비결
6:10 EBS 인문학 특강
7:00 놀이터 구조대,뽀잉
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50 곰 디와 친구들
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40 부모
10:10 EBS 특강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오후
12:00 EBS 정오 뉴스
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3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45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2:15 와글와글 친구들
45 미앤마이로봇
3:00 초능력 특공대
30 제로니모의 모험
4:00 딩동댕 유치원
45 곰디와 친구들
5:00 방귀대장 뿡뿡이
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6:00 생방송 톡!톡!보니하니
7: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8:5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 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10:45 달라졌어요
11: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12:10 EBS 인문학 특강
1:00 EBS 걸작 다큐멘터리

jtbc 지역별 채널안내 ⑯ IPTV·KT스카이라이프 ⑫성남시(분당·판교)/부평 (디지털) ⑮의정부·포천 (나라방송) ⑰용인·평택·안성·이천·안산·광명·시흥·안양·의왕·과천·군포 / 인천전역 ㉑ 수원·오산·화성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종 편

▨ jTBC
07:20 JTBC NEWS 아침 &
11:10 님과 함께
15:00 JTBC 뉴스 현장
18:30 전용우의 시사 집중
19:45 엄마의 부엌
20:55 JTBC NEWS 9
23:00 비정상회담

▨ TV조선
06:55 TV조선 뉴스 7
09:40 이하원의 신통방통
14:15 돌아온 저격수다
16:25 장성민의 시사탱크
18:35 엄성섭의 일도양단
21:4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살림9단의 만물상

▨ 채널A
08:15 굿모닝 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1:20 정치 이야기 시시비비
14:40 직언직설
16:50 박종진의 쾌도난마
20:20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
21:30 채널A 종합뉴스

드라마

▨ KBS드라마
06:40 빼꾸기 둥지
08:40 조선총잡이
11:20 고양이는 있다
12:40 TV소설 순금의 땅
13:20 참 좋은 시절
21:40 슈퍼맨이 돌아왔다
24:50 해피투게더 야간매점

▨ MBC드라마넷
05:00 이산
06:10 모두 다 김치
08:40 운명처럼 널 사랑해
13:45 왔다! 장보리
18:00 소원을 말해봐
19:20 엄마의 정원
21:50 아빠! 어디가? 시즌2

▨ SBS플러스
08:50 끝없는 사랑
11:40 사랑만 할래
13:20 기분 좋은 날
16:00 메디컬X
18:40 청담동 스캔들
20:50 정글의 법칙
22:10 자기야 백년손님

영 화

▨ OCN
07:50 나잇 앤 데이
10:00 나인
11:00 베이츠모텔 시즌11
12:00 CSI MIAMI 시즌10
15:10 아는 여자
17:30 전우치
22:00 NCIS 시즌11

▨ 채널CGV
08:30 캐슬 시즌6
09:30 언포게터블 시즌2
11:40 멘탈리스트 시즌6
14:00 제5원소
16:40 브루스 올마이티
18:50 드림걸즈
21:20 타워

▨ 스크린
08:45 콜드 라잇 오브 데이
10:35 3:10 투 유마
12:55 클라이언트 리스트
14:45 야연
17:25 디오에이
19:00 배트맨
22:05 보드워크 엠파이어 시즌4

연예·오락

▨ Mnet
08:00 M morning
09:00 M COUNTDOWN 비긴즈
11:00 Mnet Music Twit
15:30 음담패설
17:00 Mnet 와이드 연예뉴스
21:20 Live on M
23:00 SHOW ME THE MONEY

▨ 코미디TV
09:30 세상에 이런일이
10:35 코미디 빅리그
13:40 해피투게더 시즌3
15:10 안녕하세요
17:55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19:45 무한도전
23:10 TV 동물농장

▨ tvN
07:10 꽃보다 할배
10:40 로맨스가 더 필요해
12:50 연애말고 결혼
16:30 명단공개 2014
18:50 강용석의 고소한 19
20:50 컴온베이비
23:00 고교처세왕

스포츠

▣ KBS N 스포츠
09:00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10인〈선동열 편〉
12:50 2014 일본프로야구
〈치바롯데:소프트뱅크〉
18:50 2014 프로배구대회
〈삼성화재:우리카드〉
22:00 날아라 슛돌이 시즌6

▣ MBC 스포츠 플러스
09:00 2014 메이저리그
〈LA다저스 vs 세인트루이스〉
12:00 2014 메이저리그
〈텍사스 vs 토론토〉
15:00 2014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21:00 메이저리그 투나잇

▣ SBS ESPN
10:55 2014 브라질 월드컵
명승부 다시보기
16:50 2014 프로배구대회
〈GS칼텍스:도로공사〉
18:50 2014 프로배구대회
〈삼성화재:우리카드〉
23:00 스포츠센터

뉴 스

▣ News Y
08:10 뉴스 다이제스트
09:15 뉴스 Y
12:40 뉴스현장
16:50 뉴스워치
19:20 북한은 오늘
21:40 클릭! 베스트컷
22:55 투나잇 23

▣ YTN
06:00 뉴스 출발
07:00 뉴스 오늘
10:00 정찬배 뉴스정석
12:00 뉴스&이슈
16:00 뉴스Q
18:00 YTN 이브닝 뉴스
22:00 YTN 뉴스나이트

▣ MTN
07:50 굿모닝 증시 Q
09:40 마켓 파워타임
13:10 오후의 성공투자
15:30 종목 히든타임
16:30 부동산 가이드
19:30 당신의 닥터
23:00 이브닝 투자쇼 고수

아직도 바다 속에 10명… 기약없는 기다림

오늘 오후 11시15분 MBC TV 다큐스페셜 '세월호 100일, 사랑해 잊지않을게' 방송

MBC TV '다큐스페셜'은 21일 오후 11시 15분 '세월호 100일, 사랑해 잊지 않을게'를 방송한다.

세월호 참사 100일. 진도실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열 가족이 남아 있다.

통곡소리로 가득 찼던 체육관은 석 달이 지난 지금 한산해졌고, 자리가 하나둘씩 비어 갈수록 남은 가족들은 체육관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 자신이 될까봐 두렵기만 하다.

그 중에서도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다윤이 엄마는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견디기가 더욱 힘이 든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던 다윤이를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억지로 보냈던 이모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픈 동생 옆에서 다윤이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은 지현이네도 기약없는 기다림이 힘든 건 마찬가지. 결혼한 지 8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이기에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매일 바지선에 오른다.

기다리는 시간이 힘겹기만 한 진도체육관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주는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한재창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 세영이를 사고 3일 만인 4월 20일에 찾았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일찍 돌아왔지만 자식 못 찾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세영이 아빠는 힘들어도 진도에 찾아와 가족들의 운전기사를 자청한다.

오늘의 운세 7월 21일(음 6월 25일)

(검색창:수원청학작명소) 심재헌 원장
青鶴道人 ☎010-5393-0358

子	48년생 마음 놓고 일을 추진해도 좋다. 60년생 천천히 움직일수록 이득이니 서두르지 말 것. 72년생 남쪽에서 사람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84년생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준다.	午	54년생 허장성세를 부리지 말 것. 66년생 순리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78년생 실수가 예상되니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 90년생 남동쪽에 이익이 있겠다.
丑	49년생 북쪽이 길하니 그쪽으로 가라. 61년생 아랫사람 실수로 책임문제가 생길우려가 있다. 73년생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듯. 85년생 서로서로 돕고 살 것.	未	55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보답을 받겠다. 67년생 만남을 주선하라. 79년생 귀인을 만나겠다. 91년생 오늘 여행은 금물이니 자제할 것.
寅	50년생 서먹하던 사람과 친한 관계가 되겠다. 62년생 집안이 불안하고 동쪽과 서쪽에서 근심이 있다. 74년생 잠깐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86년생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이 없다.	申	56년생 보증서면 후회할 일 생기겠다. 68년생 사소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니 여유를 가질 것. 80년생 평소보다 더 건강을 보살펴라. 92년생 무리하게 지출하지 말 것.
卯	51년생 잘 먹고 잘 자는 게 건강에 최선이다. 63년생 소화 잘 되는 음식만 섭취할 것. 75년생 과음, 과식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마시오. 87년생 남과 다투면 다치거나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	酉	57년생 결정할 일들이 생긴다면 오늘은 피하라. 69년생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관심 가질 것. 81년생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93년생 할 일은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辰	52년생 사사로운 일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라. 64년생 성과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날. 76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할 것. 88년생 고민이 많은 날이니 술한잔 해보라.	戌	58년생 아직 젊으니 내일을 향해서 뛰어라. 70년생 안 좋은 소식 들릴 수 있으니 준비 단단히 할 것. 82년생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하루가 시끄럽다. 94년생 너무 계산하면 자기 꾀에 넘어갈 수 있다.
巳	53년생 말을 아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언행불일치로 대인관계 나빠질 듯. 77년생 위험한 일에 관여 말 것. 89년생 문서상으로 증거를 남겨둘 것.	亥	59년생 괜한 자존심 내세우며 다툴 필요는 없다. 71년생 가족과 여행 한다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83년생 규칙적인 습관으로 현재의 리듬을 유지할 것. 95년생 주변에서 인정받을 일 생기겠다.

◆ 丙(태양) : 배짱과 열정적 정신 소유자다. 남성일 경우 다혈질 기질이 강하고, 여자인 경우 폭력적 기질도 있다. 그런 흉내를 내거나 말이라도 때린다고 한다. 평생 동안 학구열이 높다. 본인이 그렇지 아니하면 배우자라도 그렇다. 밝은 태양으로 인기도 있다. 경쟁자가 생기면 끝까지 싸우려 한다. 따로 키울 자식이나 친척이 있다.

세얼굴

"자산건전성 강화로 조합원 만족 제고"

조국현 수원축산농협 상임이사

수원축산농협은 20일 조국현(59)현 상임이사를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지난 18일 수원시 인계동 본점에서 열린 '제1회 임시대의원회의 및 상반기 조합사업 운영공개'를 통해 실시된 선거에서 찬성 43표, 반대 14표를 얻었다.

조 상임이사는 "생산성 향상과 자산건전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적 환원사업과 축산농가에 대한 실익 지원사업을 더욱 늘려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 co. kr

인천교육청, 고교생 진로페스티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지역 내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함께 '제3회 인천진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지역 1~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라는 부제로 진학 및 취업 상담, 학과 및 직업 탐색 등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청연 교육감은 "오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푸르미봉사단, 아라뱃길 일대 정화활동

푸르미가족봉사단(단장 박위광)은 지난 19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정서진항)에서 아라뱃길 주변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가졌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인천지역의 먼우금초, 덕적중, 만수여중, 진산중, 제물포여중, 계양고, 계산고, 산곡고, 숭덕여고, 세일고 푸르미가족봉사단 학생,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해 아라뱃길 일대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다. 푸르미가족봉사단은 매월 2회 이상 공원, 유원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푸르미가족봉사단 ☎032-435-5353

김경일 기자 kik@kihoilbo. co. kr

"경인지역 이슈 선도 위해 변화 모색할 때"

한창원 사장, 본보 창간 26주년 기념사서 밝혀
제2회 참일꾼상 염태영 수원시장 등 9명 수상

기호일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간기념식 및 제2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기호일보의 과거부터 현재 모습이 나타난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제2회 기호참일꾼상 시상, 서강훈 기호일보 회장 인사말,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의 기념사, 기념촬영, 축하떡 커팅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강훈 회장은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도 오늘의 기호일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기호일보 독자를 비롯한 기호참일꾼상 수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립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원 사장은 "그동안 기호일보가 겸손한 자세를 지녔었다면 이제는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 젊은 신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1천500만 경인지역 주민들의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모범적인 지방언론의 귀감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제2회 기호참일꾼 시상식에선 7개 분야 9명에게 상패와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참일꾼상 수상자 대표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기호일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대표적인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정회진 기자 jhj@kihoilbo. co. kr

본보 서강훈 회장, 한창원 사장, 전기식 편집국장 및 임직원들이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본보 창간26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 co. kr

창간 26주년 축하해주신 분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기도지사 남경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황우여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수영 ▶경기도 대변인 채성령 ▶경기도 언론담당관 유동운 ▶국회부의장 이석현 ▶새누리당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국회의원 김민기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중석 ▶경기지방경찰청장 최동해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이태영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조재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최신원 ▶인천회 회장 유덕택 ▶전 인천시교육감 나근형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장 강부일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김민기 ▶인천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김정기 ▶광복회 인천지부장 임병호 ▶전 인천고 교장 박상규 ▶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이성구 ▶전 인천상의 부회장 이종인 ▶전 인천일보 사장 장사인 ▶전 ICM 사장 전순영 ▶성원선박 이사 정해진 ▶인천항만보안㈜ 고문 조귀연 ▶청소년인천연맹 총장 최영수 ▶전 교육부 차관 최희선 ▶안산시장 제종길 ▶안산시 부시장 김진흥 ▶남양주시장 이석우 ▶남양주시 부시장 양진철 ▶화성시장 채인석 ▶화성시 부시장 이화순 ▶여주시장 원경희 ▶여주시 부시장 이영하 ▶이천시장 조병돈 ▶이천시 부시장 윤병집 ▶광주시장 조억동 ▶광주시 부시장 김대순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일 ▶〃 교수학습국장 이순 ▶〃 경영지원국장 한인수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란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안양소방서장 이병균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여주소방서장 홍영근 ▶양평소방서장 김태철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 홍보팀장 이원경 ▶경기도 총무과장 이대직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지미연 ▶오산소방서장 홍진영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식 ▶용인동부경찰서장 정승호 ▶안산시 공보관 여환규 ▶과천시의회 의장 문봉선 ▶〃 부의장 이홍천 ▶경기복지재단 기획실장 임봉재 ▶광주시 총무국장 이기우 ▶〃 복지정책국장 이종봉 ▶〃 경제산업국장 이광균 ▶〃 안전도시국장 정석준 ▶〃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 ▶〃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 ▶남양주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수원시 팔달구청장 김찬영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이완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김태석 ▶수원시 권선구청장 김지완 ▶성남시 중원구청장 박창훈 ▶〃 수정구청장 윤기천 ▶용인시 기흥구청장 김도년 ▶〃 처인구청장 송면섭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부사장 안재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조건호 ▶용인시의원 신현수 ▶성남시장 이재명 ▶인천교통공사 사장 오홍식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주섭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식 ▶고양시의회 사무국장 이종경 ▶광명경찰서장 권세도 ▶고양시의회 의장 선재길 ▶〃 부의장 이화우 ▶부천시 원미구청장 윤인상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차혜숙 ▶안양동안경찰서장 이재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철 ▶안양시 만안구청장 송경운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수 ▶안양시 동안구청장 조인주 ▶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원장 전만기 ▶LH 고양사업본부 본부장 정연민 ▶수원시 장안구청장 홍성관 ▶국회의원 이상일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시 부시장 이계삼 ▶〃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 시민서비스국장 이범재 ▶〃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의왕시의회 의장 전경숙 ▶〃 부의장 조규홍 ▶양주시장 현삼식 ▶양주시 부시장 박원석 ▶군포시장 김윤주 ▶군포시 부시장 배수용 ▶〃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옹진군수 조윤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장 김정중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희남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양시지부장 김충진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상영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지부 지부장 진영태 ▶안양시볼링협회 회장 이재희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 부시장 손성오 ▶〃 행정지원국장 김승환 ▶〃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 ▶성남소방서장 정경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복준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 ▶가평군의회 의장 조중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장옥선 ▶〃 초등교육지원과장 이병덕 ▶〃 평생교육건강과장 설왕섭 ▶〃 중등교육지원과장 강명희 ▶〃 경영지원과장 윤상중 ▶〃 학교현장지원과장 박인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현수 ▶안양만안경찰서장 이왕민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 ▶안양시의회 의장 천진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김인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화규 ▶고양경찰서장 이형세 ▶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조창대 ▶농협 고양시지부장 김승호 ▶IOM이민정책연구원장 김창석 ▶광명시 부시장 김용연 ▶수원예총 회장 김훈동 ▶고양시장 최성 ▶고양시 부시장 최봉순 ▶〃 공보담당관 채우석 ▶과천시 기획감사실장 김기곤 ▶경기도북부청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양시장 이필운 ▶안양시 부시장 심기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안양시 홍보실장 양영광 ▶경기도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과천시장 신계용 ▶과천시 부시장 이석범 ▶부천시 오정구청장 한상능 ▶부천시장 김만수 ▶광명시장 양기대 ▶안양시의원 문수곤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안태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경인방송 대표이사 민병우 ▶화성시의회 ▶화성시 ▶경기일보사 인천본사 사장 신교철 ▶연합뉴스 사장 송현승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한화호텔&리조트㈜ 대표이사 부회장 홍원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병원장 김세철 ▶특수임무유공자회 용인시지회 회장 김명국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안희욱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갑영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장병문 ▶요진건설산업㈜ 회장 최준명 ▶고양시의회 ▶구리시의회 의장 신동화 ▶인천일보 대표이사 박길상 ▶일산경찰서장 강신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택윤 ▶이천교육지원청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광명소방서장 김권운 ▶인선이엔티㈜ 회장 오종택 ▶부천오정경찰서장 오성환 ▶부천소사경찰서장 김영일 ▶오산시장 곽상욱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이희재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희겸 ▶LH 고양사업본부장 정영민 ▶NH농협 안양시지부 지부장 임승택 ▶킨텍스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류화선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찬호 ▶중부대학교 총장 임동오 ▶㈜셀트리온 부회장 박성도 ▶부천원미경찰서장 경무관 남병근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민서 ▶광주시의회 의장 소미순 ▶㈜원마운트 대표이사 석준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이강웅

〈화환·축전 접수 순〉

인천대건고, 정성철 소방령 분향소 마련

세월호 지원했던 선배 희생 마음에 새겨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 임무를 마치고 자신의 근무지로 복귀하던 도중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해 순직한 정성철(52·기장)소방령의 모교인 인천대건고등학교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인천대건고와 정 소방령의 동창인 25회 졸업생들은 지난 19일 학교 강당에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 분향소는 재학생들이 등교하는 21일 문상을 마치고 철거될 예정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 co. kr

동두천시, 유해환경 감시 봉사단 20여 명 발대

청소년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동두천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일 시청에서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성인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송진경) 주관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4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봉사단'을 200여 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감시단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활동 등을 하게 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 co. kr

포천 소흘읍 기업인협의회, 박용수 회장 취임

"봉사·헌신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

포천시 소흘읍 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7일 송우웨딩홀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김운기 제2대 회장, 3대 박용수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장상은 고교석 광현전기 대표, 국회의원상은 이규남 중원하이텍 대표, 시의회 의장상은 이정수 대주식품 대표, 소흘읍장 감사패는 김웅기 대표가 각각 수상했으며 박영수 마이다스가구 대표와 이태봉 풍산기업 대표는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받았다.

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용수 성한기계 대표는 "신임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회원 간 더욱 화합하고 서로 협조해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 co. kr

불사조 부대원들 불끄기 '번갯불'

육군 26사단 장승환 중사 등 둘 PC방 화재 신속 진압

도심지 상가 건물 전기계량기에서 불꽃이 튀며 불길이 타오르자 모두가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2명의 군인이 주저없이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들의 즉각적인 조치가 대형 화재를 막게 된 사실이 소방관계자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26사단 불사조대대의 장승환 중사와 조석영 상병. 장 중사와 조 상병은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 전곡시내를 장 중사의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PC방 건물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장 중사와 조 상병은 자신의 차량 내부에 구비돼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꺼냈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자 불길은 목조로 지어진 옆 건물로 옮겨붙기 직전이었다.

장 중사와 조 상병은 지체 없이 불을 끄기 시작, 어렵게 진화를 끝내고 부대로 복귀했다.

주민들의 신고로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전선이 모여 있는 계량기에서 발생한 불길이 전선을 따라 번지기 시작해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졌을 것이다"라며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두 군인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부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장 중사는 "불길이 보여 차량에 구비해 놓았던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한 것일 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 co. kr

최고 경영혁신·생산공정 빛났다

안양상의, 제31회 상공대상 시상식
서일석유 한진우 회장등 3명 선정

안양상공회의소(회장 박찬호)는 지난 18일 제31회 안양상공대상 시상식과 제44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시상식에서는 서일석유㈜ 한진우 회장, ㈜다이아벨 김삼종 대표이사, ㈜수석 김인호 대표이사 등이 경영합리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상공대상 경영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1990년 서일석유를 창립한 한진우(54)회장은 사업장 13곳 중 8곳을 셀프 사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웠다.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1천31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연 2차례 합동 등산, 연 1차례 부부 동반 공연 관람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해 왔다.

김삼종(61)대표이사는 1995년 ㈜다이아벨을 설립했으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국내 시장에서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제조사와의 제품 차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서 인증받았으며, 328건 특허출원해 190건을 보유하고 있다.

김인호(57)대표이사는 생산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양질의 제품 대량 생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력을 자랑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합리적인 복지 후생제도를 시행해 고용 안정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시켰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 co. kr

본사손님

〈경기본사〉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 : 신임 인사차

인사

화성시

◇5급 직무대리 ▶향남읍장 권영덕 ▶서신면장 김용선 ▶도시관리과장 진희섭

◇전보 <5급>▶징수과장 이영구 ▶회계과장 형태훈 ▶민원봉사과장 김계순 ▶평생교육과장 김종대 ▶문화관광과장 정승호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 ▶기업정책과장 임옥규 ▶해양수상과장 김정상 ▶교통정책과장 신승우 ▶보건행정과장 오문성 ▶공원녹지과장 이웅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조미옥 ▶〃 시민봉사과장 김홍규 ▶〃 세무과장 최석광 ▶〃 사회복지과장 홍노미 ▶〃 경제산업과장 조성래 ▶우정읍장 공병찬 ▶마도면장 김전수 ▶팔탄면장 안추원 ▶양감면장 양혜란 ▶동탄면장 이세영 ▶남양동장 오정진 ▶화산동장 이규석 ▶화성도시공사 파견 김선영

이천시

◇승진 <4급>▶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5급>▶민원봉사과장 윤장선 ▶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 ▶도시과장 이용근

◇승진대상 <5급>▶세무과 이대성 ▶장호원읍 오성근 ▶민원봉사과 윤희태 ▶건설과 노영우

◇전보 <4급>▶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5급>▶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평생학습과장 한영옥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건축과장 엄기화 ▶체육지원센터 소장 김영배 ▶위생과장 이용연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의회사무과장 이교관 ▶신둔면장 박창화 ▶백사면장 김만식 ▶마장면장 박재우 ▶모가면장 서성원 ▶관고동장 성춘호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안전총괄과장 정광선 ▶건설과장 김인호 ▶수도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김기창 ▶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 ▶도시사업과장 유문선 ▶도시개발과장 김홍진 ▶농업진흥과장 정중화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7월 21일자)

법무부

◇전보 <4급 보호직>▶의정부보호관찰소장 이태원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이법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양봉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이영호

인천여고, 방학 맞아 교사들과 팝송페스티벌 성료

인천여자고등학교가 지난 18일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팝송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인천여고는 1학기 2회 고사를 마친 지난 14일부터 24개 팀이 참가한 팝송페스티벌 교내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을 선발, 여름방학식과 함께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에 지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기간 팝송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 co. kr

동네방네

연천 보건의료원 출산준비 교실

연천군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팀은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14년도 출산준비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출산준비교실은 임신·출산 및 육아 관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출산준비교실은 군내 15주 이상 임신부라면 누구든지 군보건의료원 운동처방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총 4주간 4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군보건의료원 운동처방실 ☎031-839-4078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 co. kr

양평 공유지 분할특례법 2년 연장

양평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토지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⅓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객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양평=최원류 기자 cwr0211@kihoilbo. co. kr

양주시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중

양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2014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사적인 용무로 출장·관용차량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무기강 확립 실태와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향응·선물 수수, 숙박시설 편의 수수와 같은 서민경제 침해행위 등이다. 또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폭행, 중요문서 방치, 청사 방호 등 보안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물론 민원업무 방치, 불친절한 민원처리 등의 실태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최근 세월호 침몰, GOP 총기사건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가운데 건전하고 쾌적한 하계휴가를 지향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양주=최원류 기자 cwr0211@kihoilbo. co. kr

매탄주공·우만현대 '재건축 찬성' 82.4% 정비계획 본격 시동

수원시, 소유자 2902명 설문결과…계획수립용역 추진

수원 매탄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매탄주공4·5단지·우만현대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2천902명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소유자의 82.4%인 2천392명이 정부계획 수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면적도 20만3천32㎡(전체 면적 25만2천779.8㎡)에 달해 법적 요건인 ½을 넘어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⅔, 토지면적 ½ 이상 찬성 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우만현대아파트와 매탄주공4·5단지는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사업 인가 등 절차 이행 시 용적률 200%(허용 220%, 상한 250%), 건폐율 40%를 적용받아 재건축된다.

시는 설문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7~8월 중 업체를 선정해 1년 동안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이어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재건축 완료에는 7~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팔달1구역(현대아파트 5만7천848.2㎡),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 21만186.4㎡),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4만8천248㎡) 등 재건축 5개 구역과 영통1구역 재개발구역(팔달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만8천895㎡) 등 6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 팔달1, 영통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찬성률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7~8월 중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 co. kr

예쁜 꽃 피우러 훨훨 날아라~ 전국시군구보육정보센터협의회가 주최한 '제6회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의정부시 공립 용현어린이집 만 3세 금잔화반이 출품, 우수상을 수상한 '민들레 씨앗의 여행'이다. 이 작품은 민들레 홀씨가 혹시 땅에 떨어져 꽃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살포시 흙이 있는 쪽으로 옮겨주는 친구들의 모습 등을 김소영 교사가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의정부=최원류 기자 cwr0211@kihoilbo. co. kr

의왕 새터말·창말 지적도 디지털화 마무리

의왕시가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새터말과 창말지역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새터말과 창말지역 177필지 5만1천859㎡에 대해 토지경계를 확정했으며, 종이로 된 이 지역의 지적도 및 지적공부가 100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의왕시 전역의 잘못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통해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디지털지적 구축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위성측량장비(GPS)를 이용한 필지별 측량을 실시해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3차원 입체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정확한 토지 정보가 제공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공간 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최경년 기자 ckn1616@kihoilbo. co. kr

용인시, 제일바이오 산단 승인

처인구 근곡리 조성키로 일자리 300개 창출 기대

용인시는 지난 18일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일바이오 산단은 케펜텍·제일파프·진녹천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일약품이 사업시행자로, 단지면적은 5만9천990㎡ 규모로 총 사업비 664억 원이 투자되며 오는 2016년까지 조성된다.

단지에는 산업시설과 주차장, 소공원, 녹지 등이 들어서며 주요 유치 업종은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이다.

1986년 근곡리에 공장을 짓고 의약품 등을 생산해 온 제일약품은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 각종 규제를 받아 지난 28년간 시설 증설이 제한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차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6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았다.

시는 공단 조성이 완료되면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 co. kr

가평 차세대리더 22명 미국 체험

청소년 국제교류단 출국 남유타 대학서 홈스테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선발된 22명의 '청소년 국제교류단'이 지난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평군은 이날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제16기 청소년 국제교류단'이 교사, 공무원과 함께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유타 주 시다시에서의 19박 21일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남유타대학교(SUU)에서 이뤄지며, 교육을 마친 후에는 현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교육은 현지 교사들의 'ESL 프로그램' 수업을 듣게 되며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미국의 문화와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여가활동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자이온 국립공원, 사이언스박물관과 UCLA대학 등을 견학하고 우주의 탄생 벽화와 야경이 유명한 그리피스 천문대, 그로브 팜마켓 앤 몰, L.A 시내투어, 디즈니랜드 투어 등 현지 문화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더불어 민간 외교활동도 전개한다. 이들은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하고 참전용사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져 자유 수호를 위한 미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뜻에 보답,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연결고리를 만든다.

한편, 가평군은 미국 유타 주 시다시청과 2009년 9월 국제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청소년 어학연수 및 체험학습 등 교류활동을 이어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 co. kr

여주프리미엄아울렛 500만 원 상당 소외층 후원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허영무 점장은 지난 18일 원경희 여주시장을 방문해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다용도 가방, 쌀 등)을 후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긴급 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례관리 발굴 등 복지 소외계층 가정 방문 때 전달할 예정이다.

허영무 점장은 기탁식에서 "많은 양의 물품은 아니지만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주변의 이웃들을 항상 생각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경희 여주시장은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후원된 물품은 복지 소외계층 가정 방문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은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사이먼프로퍼티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유통업체로 2009년 여주시 명품로 360에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했으며, 개점 이후 여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 co. kr

이천 발달장애인 "내 치료 차례는 언제"

불합리한 급여체계 복지관 강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대기자 1년 가까이 기다리기도… 市 "개선책 마련할 것"

이천지역 발달장애인(자폐)들이 제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치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 때문에 '탈이천'까지 고민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은 정부의 현행 급여체계가 직원(강사)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이천시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연간 10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재가 장애자들을 상대로 15개 분야 장애 유형별 60여 가지의 치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지역 장애인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인 1만164명이 등록돼 있고 이 중 발달장애인이 78명으로 18세 미만(고등학생까지)이 무려 54명이나 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수중·물리치료 프로그램은 2개 반(반별 20여 명)에 그쳐 나머지 장애인들은 1년 가깝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현행 임금체계가 1호봉 기준 160여만 원에 그쳐 직원(강사) 확보가 힘들고, 그나마 채용된 직원마저 생활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기자 A(10)군은 1년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할 형편인데다,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내 사설 기관이나 단체도 없어 가족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

A군 부모는 "아주 중요한 때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치 못해 가족 모두가 큰 걱정"이라며 "아이가 꼭 치료를 받도록 시와 복지관이 개선책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인건비 체계로는 직원(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2개 반만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관 측과 협의,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 co. kr

으랏차차 우리도 체력 키워요 20일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양대 예체능대학 생활스포츠와 연계, 초등학교 3~6학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0명과 일반 아동 10명 등 40명을 대상으로 씽씽캠프를 운영한다. 지난 12일 체육영재 측정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승마·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신체활동이 12회에 걸쳐 진행, 학생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ihoilbo. co. kr

안양농수산도매시장 보수공사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새단장'

수산동 1층 28일 착공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적의 쇼핑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양시는 개장 20년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1층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오는 28일 착공,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사기간 중에도 2층 회센터는 정상 영업한다.

5억9천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에서는 바닥 보수와 배수트렌치가 재시공되고 전기분전반도 새로 설치, 전기 과열 또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도매인들의 잔품정리장도 구획 정비를 통해 깔끔하게 정돈된다. 새롭게 정비될 잔품정리장은 부류별 추첨을 통해 3년마다 재배치, 상인들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은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수산물 쇼핑공간으로 변신해 활기를 띠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 co. kr

건설현장 줄어도 시민 8만 명 취업

성남시 고용운동 전개 효과

성남시는 올 상반기 시민 고용운동을 전개해 민간 건축공사장 45곳에서 성남시민 8만 명을 고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민간 건설 현장 60곳에서 17만 명 시민 고용 때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이는 판교지역 개발 마무리 등으로 건설 현장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민간 건설 현장의 시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총면적 5천㎡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 고용 운동'을 올 1월부터 건축총면적 2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상 공사장에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공사 관계자와 면담 등 다각적인 시민 고용 운동을 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장에서는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문화한 성남시민 50% 고용 운동을 펴 현재 113곳 공사장 39만 명 인력 가운데 56%(22만 명)의 시민 고용을 이끌어 냈다.

시는 연말 우수 사업장 표창, 사전건축허가제 운영 등 건설 현장의 시민 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 co. kr

'행복한 연천' 재능기부·후원 통해 함께 만들어가요

연천군은 민간의 나눔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 나눔은 지역 내 민간(단체·기관·개인)이 자율적으로 나눔(서비스·물품·재능)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받은 이웃은 서로FMF 칭찬하고 격려해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기부문화다.

수시 또는 정기적인 후원금품(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지정기탁하며,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능지원은 소외계층 주민(홀몸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이·미용, 차량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정기 또는 수시 후원을 원하는 주민, 단체·기업체 등이며 각 읍·면사무소 및 복지지원과(무한돌봄팀)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약국, 제과점 등 4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60여 곳 이상 참여를 목표로 지난 1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 co. kr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GB 해제 추진

중도위 1차 회의서 의결 예정
결과 받으면 신속히 보완계획

남양주시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개발사업'이 드디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안이 오는 24일 개최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상정이 확정됐다.

시의 양정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GB해제안의 이번 중도위 상정은 지난 2012년 5월 시가 경기도에 첫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면적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사업 추진면적 231만㎡ 가운데 약 95%에 달하는 224만5천㎡ 규모로 이번 중도위 심의에 앞서 상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고,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 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상정안에 대해 24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곧바로 원안 의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1차 심의에서 제기되는 중도위의 보완 요구 내용을 시에서 서둘러 보완해 제출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심의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남양주시의 이번 그린벨트해제안을 의결하면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들을 거쳐 양정역세권 사업에 대한 보상에 나서게 된다.

남양주=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 co. kr

동네방네

오늘부터 부천 시민 창작詩 공모

부천시민의 감성 어린 창작시로 시내 육교 등 곳곳에 채워질 '시(市, 詩)가 활짝' 세 번째 시민공모가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 학생 등과 관내 직장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2행시와 4행시로, 2행시는 25자 내외로 당선작은 육교 현판에 주로 걸릴 예정이며, 4행시는 50자 내외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공감부천 홈페이지(create.bucheon.go.kr)의 공감제안(공모제안), 이메일(ksh1kyj1@korea.kr), 시 홍보실(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등이다. 제출 시 홈페이지의 서식을 써도 되지만 자유 서식도 가능하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 co. kr

가평군 '도 농어민대상' 추천 접수

가평군은 11개 농어업 부문 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선발하는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군내에 농어업 사업장을 가진 이 중 직접 종사하며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로,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 분야는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가축(대) ▶가축(중소)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등 총 11개 부문의 개인 또는 단체다.

신청은 31일까지 농어민대상 신청서와 추천서, 공적조서,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기타 공적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농업정책과 농정팀 ☎031-580-4754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 co. kr

동두천시 종이팩 수거보상제 실시

동두천시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종이팩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휴지로 바꿔 주는 '종이팩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종이팩 수거보상제'란 각 가정에서 사용한 종이팩(우유팩·음료수팩 등)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당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보통 우유팩 1천mL 35개 정도 모으면 1㎏의 무게가 나간다.

각 가정에서 사용한 우유팩·음료수팩 등의 내용물을 비우고 건조한 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 co. kr

원현린 칼럼

정의(正義) 없는 권력은 강도다

조선조에서 운용됐던 '암행어사(暗行御史)제도'가 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어사 박문수'라든가, 소설 속이지만 '춘향전'의 이몽룡 등은 불의(不義)를 타파하고 '정의(正義)'를 세우는 어사로서의 직분을 다해 백성들에게서 추앙을 받았다. 영화로도 제작·상영되기도 했지만 춘향전에서 어사출두에 앞서 지어낸 이몽룡의 시 구절은 언제 봐도 우리를 통쾌하게 한다. 주지하고 있는 문장이지만 한 번 더 인용해 본다. "금술잔의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맛있는 고기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라. 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노랫가락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드높구나.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 촉루락시(燭淚落時) 민루락(民淚落),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탐관오리들로서는 가슴 뜨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좋은 제도도 어사들이 가렴주구와 부정을 일삼는 지방 수령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등 부패로 전락, 종국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감사원 감사관들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어안이 벙벙하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이 뇌물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어느 기관인가. 꽤나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가 한 번은 이회창 감사원장의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오찬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방문 기념품이라 해 오마패가 새겨진 넥타이핀을 선물받았다.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 문양의 디자인 내력을 물었다. 감사원의 정신이, 업무가 그 옛날의 암행어사 제도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라했다. 이해가 갔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감사원 홈페이지를 열면 감사원의 원훈인 '바른감사 바른나라입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그렇다. 감사원은 이처럼 공직기관에 대한 바른 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척결, 바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헌법상 최고의 감사기관이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자를 감사할 자 그 누구냐?'라는 물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퇴락한 감사원이 됐다.

요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 재력가의 사후 장부에서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내역이 적혀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라 한다. 점입가경이다. 장부에 적혀 있는 한 검사의 뇌물 수수액이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다시 천만 원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검찰을 시민들이 어찌 일국의 수사기관이라 믿을 수 있겠는가. 금전 출납 사항을 적어 놓은 하나의 장부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검사 외에도 지방의원, 경찰, 세무공무원 등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점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또 하나의 근자 사례로는 군(軍) 간부와 가족들이 전투병력과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군(軍)수송기를 이용, 마치 전세기처럼 사용해 수년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곤 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다. 감사 결과 적발되긴 했지만 20년 동안이나 적발하지 못한 감사기관의 책임이 크다. 게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7일, 한 해군호위함장이 회식 중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 3일 후에 보직해임되기까지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군인정신이 없는 이들에게서 무슨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의란 사전적 풀이에 따르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이다.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는 부류의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 부정부패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사회 도처에서 부패한 공직자들에 의한 금품 갈취 행위와 온갖 비행이 자행되고 있다.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다. 정의가 없는 권력은 차라리 폭력집단이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했던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는 "정의가 없다면 권력이란 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In the absence of justice, what is sovereignty but organized robbery?)"라고까지 표현했다. 위법과 탈법을 여반장으로 여기고 공사(公私)조차 구분 못하는 함량 미달의 공직자들이 잔존하는 한 이 땅에 정의 구현은 요원하다 하겠다.

〈논설실장〉

서해안

무재칠시(無財七施)

어느 날 한 남성이 석가모니를 찾아왔다.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 없는, 가난에 찌들대로 찌든 사람이다. 신세 한탄이 시작됐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석가모니 답하신다. "그것은 네가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가 반문한다.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빈털털이입니다. 무엇으로 베푼단 말입니까?". 석가모니 다시 답하신다. "아무리 가난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일곱 가지나 되느니라." 남자가 물었다.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된다. "첫째는 화안시(和顔施)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으로 웃음의 공덕 '미소'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언시(言施)다.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고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질 급한 남자가 묻는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침을 이어가신다. "셋째는 심시(心施)다. 마음의 문을 열고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施)로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과 호의를 담은 눈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身施)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돕는 일이다."

석가모니 가르침이 계속된다. "여섯째는 좌시(座施)로 남에게 자리를 내줘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찰시(察施)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석가모니 강조하신다. "네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해 생활화하면 복이 저절로 올 것이다."

환한 미소에 담긴 배려의 말에는 진한 향내가 난다. 활짝 열어놓은 마음과 애정이 가득 담긴 눈에 사람들은 둥지를 틀고 벗어나지 않는다. 남을 돕기 위해 흘리는 땀과 속을 헤아리는 도움은 진한 감동을 준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중략>/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재물을 갖지 않고서도 베풀 수 있다.

〈안성=한기진 기자〉

교육칼럼

김실

힘찬 스쿨런을 기대하면서

해마다 입학 학생 수가 크게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동네 공원에서 원도심인 중구의 명문 A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 요즘의 학교 사정을 듣게 됐다. 2010년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돼 해마다 4억여 원의 특별 지원을 받아 차별화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0년 신입생 300여 명 10개 반 학생이던 학교가 2014년엔 오히려 줄어 216명 8개 반으로 가까스로 채웠다고 한다. 2020년에는 신입생이 100여 명 이하의 원도심 미니 학교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물론 2000년 이전 한 해 입학생 720여 명(보훈자녀 등 별도 정원 제외)으로 인천에서 가장 커다란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교 부지만 거의 6만6천100여㎡로 신도시 평균 학교부지 1만6천500여㎡보다 거의 4배에 이르고 학교 건물은 본관·후관·별관·체육관 강당·도서관 등 10여 개의 건물로 돼 있으나 해마다 입학생이 줄어 넓은 학교에 제대로 학교 관리를 위한 학교 관리비에 어려움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건물의 구석이나 수목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더욱이 전통의 명문 학교로 100여 명의 체육특기자를 육성해야 하는 지정 체육종목이 있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입생 감소는 평준화 정책으로 근거리 배정이 이뤄져 원도심인 인천의 중구·동구 등이 특히 심각하다. 고등학교 입학 자원인 중구 지역에 중학교는 8개 교이나 이나마 4개 교가 영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더욱이 4개 학교가 남녀 학교로 구분돼 있고, 더욱이 중구에 남자 고등학교는 2개 교로 해마다 입학생이 줄어드는 소규모 중구 소재 중학교에 의존하다 보니 더욱 심각하다.

1990년도 인천의 남구 명문 B고등학교는 일반계 7학급, 상과 3학급의 10개 반 신입생을 수용했지만 2014년 신입생은 15학급으로 배정됐다. 반별 학생 수는 중구의 A고가 27명이지만 B고는 39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가 A고와 비교해 거의 3배에 가깝게 바뀌었다. 이는 지역 인구수에 따른 학생 수와 무관치 않다. 현재 인천의 중구 인구는 최근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지만 동인천역 근처는 인구의 50%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이고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곳의 인구는 대략 4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구 지역에서, 특히 동인천역 근처의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학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지역 정치인이 학교 이전을 막기 위해 그들의 근시안적 대안으로 기숙형 학교를 불쑥 들이밀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한다. 근거리 학생 배정의 평준화 교육제도에서 학교 학생 기숙제도는 역동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인천 전체 지역에서 상위 0.5% 학생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나 목동지역 그리고 외국이나 타 지역 특수학교로의 전학, 이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시 원도심 명문 고등학교를 옮겨 더 좋은 학군을 만들어 신도시로의 자녀와 함께하는 이전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은 지역 인재 육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전임 교육감 재임 후 15년 동안 없었다.

지역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에서 입학 대상 학생이 절대 부족해 나타나는 원도심 지역 넓은 학교 부지에 전국이나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을 불러올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화 학교를 가져오고, 근거리 학생 배정으로 절대 입학 학생 수가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새로운 개발지역의 학생을 찾아 원도심을 탈출해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 스쿨런(학교 이전 바람)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장
/전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기호일보 www.kihoilbo.co.kr

등록번호 가-61-일간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 인천시 남구 인중로5 정산빌딩 9층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전산실	032-761-0009
판매국	032-761-0008	정경·사회부	032-761-0004	제판부	032-761-0013
보급문의	032-761-0002	문화·체육부	032-761-0005	출판부	032-761-0008
		편집부	032-761-0006	포토기호	032-761-0001

신계산	032-551-2226	연수	032-812-0505	화성	031-354-3131	김포	010-3158-0289
북주안	032-867-0056	영종	032-743-2990~4		070-8813-8300	안성	010-8998-0007
제물포	032-867-0056	서울분실	02-736-0707	시흥	010-8578-1224	연천	031-863-5354
학익	032-863-0516	부천	010-6213-9799	안양·과천	010-9642-9928	동두천	010-2644-5400
간석	032-467-5946	용인	010-6260-2155	의왕	010-5254-6206	포천	010-4780-7288
만수	032-465-7905	광주	031-761-2000	군포	031-342-1112	의정부	010-9199-4114
신만수	032-463-8940	여주	031-885-3705	안산	010-7320-8333	양주	031-821-5688
동인천	032-763-1966	하남	010-5222-6874	고양	031-962-5360	구리·남양주	031-252-2897
삼산	032-506-1436	성남	017-223-7650	파주	010-2500-0112	가평	031-582-5060
신삼산	032-525-1436	평택	010-7137-5500	강화	032-933-5558	양평	031-775-1600
계양	032-572-3776	오산	010-3380-9798	이천	011-262-2650	광명	02-2612-6363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지방(畿湖地方)이란?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일컫는 지방명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차령산맥 이북의 충청도 북부지역, 멸악산맥 이남의 황해도 남부지역이 포함된다. 기호지방은 흔히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 불렀는데, 경기도의 '기(畿)'자와 충청도에 있는 의림호의 '호(湖)'자에서 비롯됐다. 삼한시대에는 마한,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한주(漢州)·한양(漢陽)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양주(楊州)라 하다가 성종의 10도 편성으로 경기 일대를 관내도(關內道), 공주(公州) 중심의 충청남·북도 일대를 하남도(河南道)라 했으며, 1058년(문종 12)에 '경기'라는 행정구역이 창설됐다. 특히 조선시대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수도권으로 성장해 왔다.

월요프리즘

이준한

선거와 여성

2014년 현재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가운데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1.9%이다. 그 가운데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의석 가운데 15.7%를 차지한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154개 가운데 93등이다.

제19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역대 최대라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일대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나는 여성의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일종의 선순환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여성 후보가 많이 출마하고 여성 관련 정책과 공약이 많아져야 한다.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여성 후보가 많아질수록 여성 당선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긴다. 여성 정치인이 증가할수록 여성 관련 정책이나 입법 산출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다시 여성의 투표 참여 증대를 자극할 것이고, 또 여성 정치인의 재출마와 재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로 여성 관련 정책이나 입법 산출의 증가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여성 전체의 이해가 점점 더 구현돼 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의 투표율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다. 2000년대 남성 투표율은 평균 58.25%인 데 비해 여성 투표율은 56.70%이다. 다만 여성 후보가 있었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은 76.4%로 75.8%에 그친 남성 투표율을 앞섰다. 이에 반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는 50.9%였고 남성 선거인은 49.1%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이 50.8%였고 남성은 49.2%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이 50.6%, 남성이 49.4%였다. 한마디로 선거인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데 투표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역대 지방선거를 볼 때 여성 후보는 점증하는 추세다. 기초단체장 후보(0.4%→1.2%→1.1%→2.7%→3.5%→5.8%),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후보(1.5%→2.4%→3.1%→5.2%→8.7%→11.5% 및 1.7%→1.8%→2.6%→4.9%→9.5%→14.1%),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후보(55.3%→64.5%→67.3%→70.6% 및 73.3%→80.0%→90.0%)로 여성 후보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1995→1998→2002→2006→2010→2014년 지방선거의 통계를 의미한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마한 여성 후보는 여전히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여성 당선인도 늘어가고 있다. 기초단체장(0.4%→0%→0.9%→1.3%→2.6%→4.0%),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1.4%→2.3%→2.3%→4.9%→8.1%→8.2% 및 1.6%→1.6%→2.2%→4.4%→10.9%→14.6%),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67.1%→73.1%→71.6%→65.5% 및 87.2%→93.6%→95.8%)으로 여성 당선인의 비율이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여성 당선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 대표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가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여성 대표를 증가시킬 것을 추진했다. 프랑스에서는 50% 할당제가 최근에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인 제19대 국회에서도 2005년 공직선거법 제47조(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대통령도 여성이고 여성 의원이 최대인 이 시대에 지역구 여성 후보 30% 의무할당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힐링토피아

박현

자궁경부암 로봇수술 흉터·합병증 줄여

세계에는 매년 52만9천여 명의 자궁암 환자가 발생한다. 사망률도 높다. 2분마다 여성 1명씩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 국내에서는 3만8천여 명이 투병하고 있으며 1년에 약 1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해 수술을 받으면 완치율이 높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자궁을 들어내는 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장기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크고 사회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암검진사업과 계몽으로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5건으로 동아시아 평균 11.9건보다 많아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나 질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약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골반벽, 방광 등으로 암 세포가 퍼지면 배뇨 곤란, 허리통증,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적 치료를 통한 생존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자궁경부암의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자궁 주위의 골반 조직을 넓게 떼어내는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한다. 이때 복부를 길게 절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에 따르는 부담감 또한 크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최소침습 수술을 많이 시행한다. 복강경 수술은 배꼽 부위 1㎝ 정도만 절개하고 하복부에 0.5㎝ 크기의 작은 구멍(절개창) 2~3개를 뚫어 수술을 한다. 절개공에 이산화탄소가스를 주입해 복강 내 공간을 확보한 후 특수 기구들을 넣어 화면을 보면서 수술한다. 그러므로 더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

복강경의 역사는 길게는 18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인 의미로는 1980년대에 시작됐다. 외과적으로는 1983년 최초로 복강경 충수 절제술이, 1985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시행됐다. 산부인과에서도 1989년 최초로 복강경 자궁 절제술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됐다. 1994년에는 로봇 수술까지 고안돼 1996년 처음으로 수술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복강경 수술은 미용상 효과도 크다. 수술이 작은 구멍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개복 수술보다 잘될까'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대해 보며 수술을 시행하므로, 좀 더 미세하고 세부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 또한 복강 내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다. 다만 일부 진행성 악성 종양, 과거 복부 수술로 인한 심한 유착은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복강경 방법과 달리 절개공 하나로 수술이 이뤄지는 단일공법이 소개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단일공법 복강경 수술은 배꼽의 구멍 한곳만을 통해 시행하는 수술이다.

최소침습 수술의 경우 복부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 비해 출혈이나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또한 흉터가 적어 미용적으로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로봇을 이용한 광범위 자궁절제술의 경우에는 고배율의 3D영상 구현과 최대 15배 확대한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술하는 의사의 손 움직임이 디지털화되므로 미세한 손떨림을 막아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장이나 비뇨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만약 자궁경부암의 병기가 초기를 지나서 국소적으로 진행됐다면 기존의 방사선치료 대신 항암제 요법을 병합한 로봇 수술을 시도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젊은 환자에서는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궁을 살리는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술 후 불임 및 산과 전문의의 협진이 매우 중요하다.

분당차병원은 분당차여성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수술과 임신, 그리고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교수〉

Opinion
▶ 오피니언난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채워집니다
▶ 보내실곳 : 402-010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5 정산빌딩 9층
▶ 전화(032)761-0001 팩스(032)761-0011 ▶ www.kihoilbo.co.kr

사 설

벌점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벌점제 폐지 방침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폐지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달리 교사들 사이에서는 체벌 금지 상황에서 교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없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점제 폐지 여부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고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이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벌점제 공식 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다. 체벌 대체 수단으로 2009년 도입돼 학교별로 자율 시행되고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사제동행 산행이나 사회봉사활동의 선도조치가 이뤄진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벌점 항목은 용의복장, 수업태도, 공중도덕, 생활태도, 비행 등이며 상점 항목은 환경미화·봉사활동, 예절·공중도덕, 수업태도 등이다. 2012년 기준 초등학교 47%, 중학교 86%, 고등학교 79% 등 도내 학교 64.5%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시 밝힌 이 교육감의 학생 벌점제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수업 방해를 막을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조치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에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교권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량한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교사의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는 학교는 균형잡힌 성장을 저해한다"며 "또 하나의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못한 것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엄한 벌이 있어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알게 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이 가능케 할 수 있다.

결국 상만 있고 벌은 없는 학교에서 자라는 환경을 교육감이 나서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벌점제 시행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이 학생, 학부모,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인본주의적 교육 방법을 시행하다 실패한 이후 올바른 교육 방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의 실패를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치안 만족도 낮은 경인 지역

인천과 경기도에 사는 시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히 65.5점을 받아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13위권으로 하위에 머물렀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히 살기 싫은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게 된다. 시민 생활에서 치안 확보는 기본이다. 범죄가 날뛰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올 상반기 체감 안전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은 71.1점인 전남경찰청으로 인천에 비해 5.6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한다. 인천과 경기도는 최하위 65.3점인 울산청과 비교하면 불과 0.2점 차이로 사실상 최하위나 마찬가지 성적이다.

우리는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 칭한다. 시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경찰이 치안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경찰법에도 '국가경찰의 임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두고 있다. 치안 만족도가 낮다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국가는 이에 대한 보장 의무에 게을리하고 있음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함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헌법은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치안이 불안한 사회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 할 수는 없다. 경찰의 이번 체감 안전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 지역에 대한 경찰의 치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경인지역 경찰의 특단의 치안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흔들흔들… 학교 옹벽 폭우에 와르르 갈팡질팡… 안전사회 구축 또 공염불

화성시 A중학교, 수차례 공사 예산 요청 불구 반영 안 돼
시·교육청, 컨트롤타워 역할 미미… 규정·예산부족 발목

지난 18일 새벽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화성시의 한 중학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올해 들어 옹벽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수차례 교육청과 시에 공사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두된 안전도시 구축이라는 명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마도면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던 18일 새벽 화성시 A중학교 운동장과 인도 사이에 있던 가로 10m, 높이 5m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흙과 석축이 주변 인도와 도로를 덮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등교시간 전에 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와 시 재난부서는 무너진 옹벽 주위로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수습했다.

그러나 A중학교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시와 교육청에 옹벽이 약해져 재공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A중학교가 옹벽 재공사 예산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예산 지원 권한이 없어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교육청은 "재공사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해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등을 진행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화성시 A중학교 운동장과 인도 사이에 있던 가로 10m 높이 5m의 옹벽이 무너져 내린 현장.

특히 A중학교 옹벽은 2008년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총 1억6천600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 완공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과 6년 만에 붕괴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A중학교는 사립으로 공사와 관련된 절차는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진행한다"며 "예산 지원에 따른 서류상 관리·감독은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 co. 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 co. kr

대형참사 이어 또… 고양시민 불안

주말 수영장 안전사고에 공장화재까지 "당국 뭐하나" 분통

지난 주말 고양지역에서는 건물 3채를 태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후반의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20일 오전 9시 10분께 고양시 덕양구 A수영장에서 딸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B(38·여)씨가 1.5m 깊이 야외 풀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1시 10분께 일산동구의 한 스프레이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채와 인근 가구공장 등 건물 3채를 태웠다.

이 과정에서 공장에 보관된 화학성 도료 등이 연쇄 폭발하면서 유독성 가스를 뿜어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현장에는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50여 명이 투입돼 50여 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수영장에서 B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딸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수영장 측 관계자를 불러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지역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영장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 황보관(54·일산동구 풍동)씨는 "많은 인명을 앗아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화학물 폭발성 화재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우리 고양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 이우경(48·여)씨는 "대낮에 야외수영장에서 30대 가정주부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다니 도대체 우리 고양에서 시민 안전을 기대해도 되는가?"라며 "당국은 수영장 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 co. kr

세월호 인천시민 마지막 희생자 발인 인천시민 희생자 고 이묘희 씨의 발인식이 20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 co. kr

곽상욱 오산시장 비서관 등 2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0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곽상욱 오산시장을 돕기 위해 사조직을 동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시장 비서관 심모(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곽 시장의 상대 후보에게 찾아가 약점을 알려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지난 2월 곽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끝난 직후 곽 시장의 저서 7권을 시 산하 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곽 시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조직적으로 권리당원(당비 납부 회원) 모집활동을 벌여 300여 명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씨는 또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 곽 시장과 맞붙었던 새누리당 이권재 후보 측에 연락해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 주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에 당선되면 동생을 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4년 전 곽 시장이 선거에 당선된 뒤 구성된 사조직 백발회 회원들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경찰로부터 백발회 회장인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58)씨 등 백발회 회원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받아 계속 수사 중이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 co. kr

용담저수지 물고기 떼죽음 용인시 즉각 원인규명 나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담저수지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원삼면 사암리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담저수지에서 지난 18일 붕어 등 물고기 1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 떠올랐다.

시는 당일 즉각 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와 연락해 죽은 물고기를 모두 수거했으나 폐사가 계속돼 추가로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폐사한 물고기는 길이 20~30㎝의 붕어가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기에 종종 일어나는 현상으로, 최근 저수지 담수율이 25%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전날 갑자기 비가 와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3일 가량은 폐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 co.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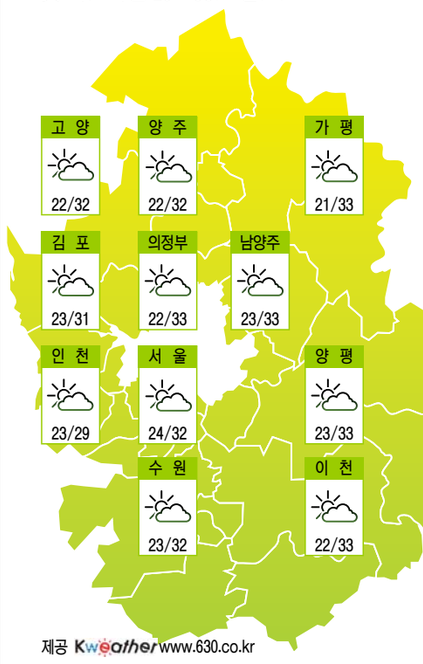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7월 21일(월)

해뜸 05:27 해짐 19:50 달뜸 00:52 달짐 14:59

날 흐려도 무더위 여전

구름 많겠음. 아침 최저기온 21~24도, 낮 최고기온 29~33도 분포.



제공 Kweather www.630.co.kr

바다날씨(오전)

	풍향	풍속	파고
서해	남동~남	4~7	0.5~0.5
남해	동~남동	5~8	0.5~0.5
동해	남~남서	8~12	1.0~2.0

생활지수

70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

70 마르는 데 문제 없어요

70 한낮은 피하세요

90 광택도 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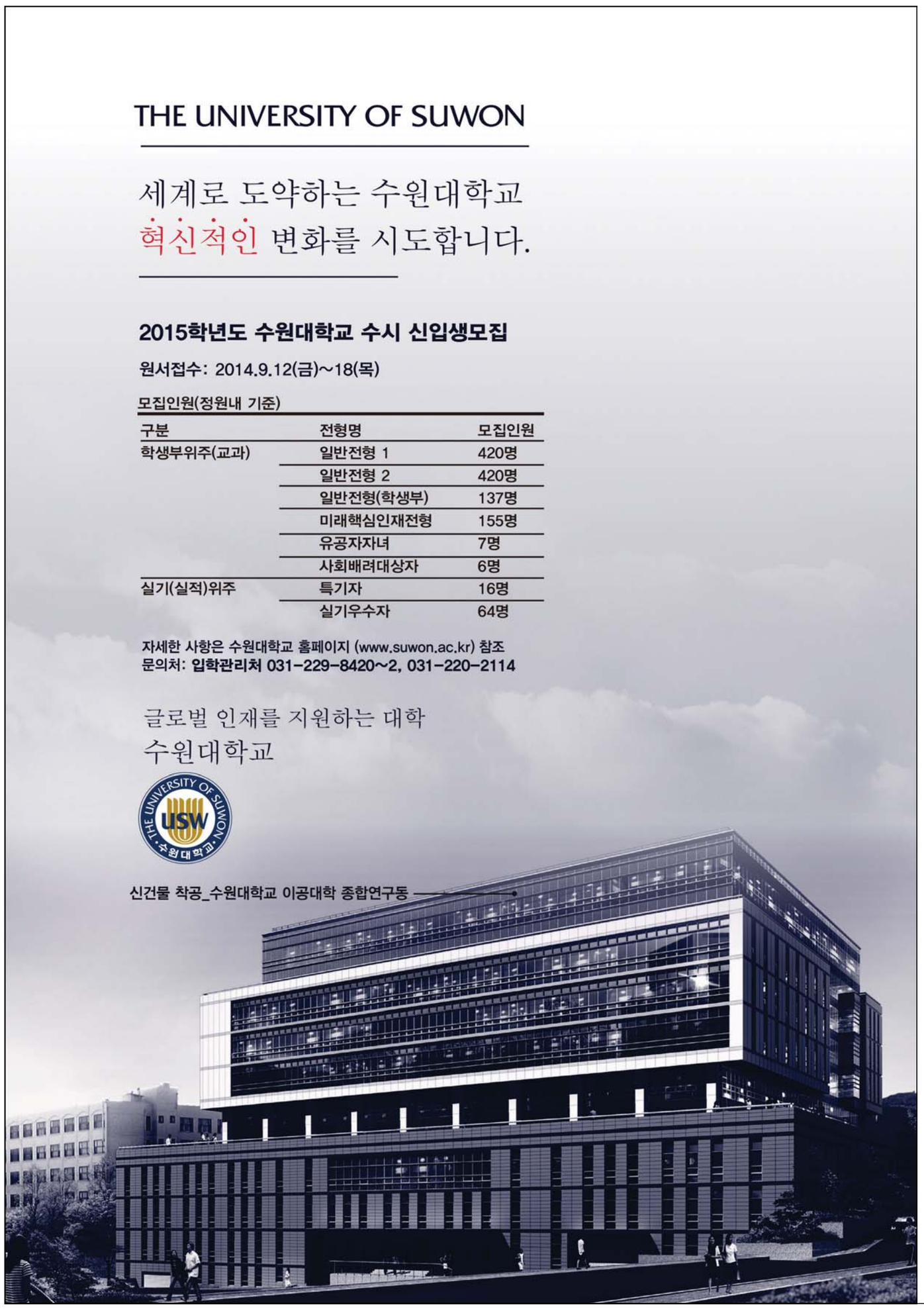
강수확률(%)

	오전	오후
인 천	20	20
수 원	20	20
동두천	20	20
이 천	20	20
양 평	20	20
강 화	20	20

인천

밀물 11:35 00:00

썰물 05:34 18:10



19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에 도착한 카페리에서 차량과 승객들이 뒤섞여 선착장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 앞두고 연안여객선 타보니…

안전운항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출항시간 밀려 신원 확인 대충… 승객 안전 불이행도 여전
접안선박 몰리자 입출항 속도전… 선착장 차량·사람 북새통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운항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100일(24일)을 닷새 앞둔 지난 19일 본보 기자가 세월호가 처음 출발한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가까운 섬을 다녀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까운 섬을 찾으려는 피서객들로 인천항은 주말 아침부터 북적였다.

기자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인천항을 출항해 당일 9시 30분 덕적도에 도착하는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승선권을 끊어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승선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안개로 시정주의보가 내려 출항시간은 계속 지연됐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출항이 허락됐다.

급한 마음에 피서객들이 개찰구에 몰리자 세월호 사고 이후 의무화된 신분증 확인은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개찰구에 있던 직원도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도 한꺼번에 여러 장의 승선권과 신분증을 건네는 승객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

또 여객선 내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승객 1인당 수화물 무게를 15㎏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터미널 어디에도 승객들이 들고 타는 수화물의 무게를 측정할 만한 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원 306명의 고속훼리(226t)에 승객이 다 차자 배는 곧바로 출항해 인천항을 빠져나갔다. 승선권에는 좌석별 번호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승무원은 지정 좌석이 없다며 아무 곳에 우선 앉으라고 했다. 좌석표가 적힌 승선권도 배에 오르기 전에 승무원에게 제출한 상태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월호 사고 이후 새로 만든 비상시 대피 요령과 구명복 착용법 등이 방송으로 안내됐다. 이후 승무원 1명이 구명조끼 착용법을 직접 설명했지만 1층 객실에서만 이뤄졌다.

고속으로 운항하는 탓에 출항 후 선내에서 갑판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출입구에는 '항해 중 출입금지' 표시가 돼 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덕적도 선착장에 도착할 때쯤 되자 일부 승객들은 이미 출입구 앞쪽까지 나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무원들도 다음 배가 선착장으로 입항하고 있다며 승객들을 서둘러 내리도록 독려했다.

이어 대형 카페리가 입항하자 선착장은 배에서 빠져나온 차들과 승객들로 금세 북새통이 됐다. 이날 인천 앞바다에 내려진 시정주의보로 오후에 항구를 빠져나온 배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덕적도는 물론 다른 선착장도 배를 접안하기 무섭게 다시 출항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 카페리에는 차량을 제대로 라싱(고박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출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세월호 참사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바뀐 운항관리 규정을 보면 모든 여객선과 화물선은 출항 전 2~3시간 정도 점검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운항관리자가 여객명부와 적재된 화물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날 가족과 함께 덕적도로 여름 휴가를 온 김진희(38·여)씨는 "공항에서는 보통 2~3시간 먼저 수속을 밟는데, 배를 탈 때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글·사진=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정 총리, 인천VTS 시찰 무색하게… 선박 충돌사고

공교롭게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천해상관제센터(VTS)를 둘러본 날 인천 앞바다에서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북방 2.7㎞ 해상에서 연안여객선 레인보우호(228t)와 영흥선적 낚시어선(9.77t)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의 선수 부분이 파손되고,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16명 중 7명이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반면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194명은 모두 무사하고 선체도 이상이 없어 목적지인 대이작도로 입항했다.

인천해경은 국지성 안개 속에 레인보우호와 낚시어선이 서로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항과 이곳 해역을 관장하는 인천VTS를 방문해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1366 인천센터, 수개월째 수장도 빈자리

위기의 여성 쉼터 역할 논란
업무공백 우려 속 3차 공모중

막다른 위기에 몰린 여성들이 찾게 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가 열악한 환경 탓에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본보 7월 15일자 1면, 1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개월째 센터장이 공석이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1366 인천센터장 채용공고를 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미 6월 초 1차 모집공고를 낸 뒤 3차례 재공고를 냈지만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적합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3차 모집공고 응시자 중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마지막 신원조회 절차 등을 밟고 있다"며 "곧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인천센터가 긴급구호시설로서의 환경과 상담원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인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뒤 서울과 경기도 등 인근 지자체에서 위탁운영하는 1366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윤숙 시 여성정책과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과를 정리하지 못했고, 센터 위탁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운영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올바른 운영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24일 전국 18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이 모이는 정례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인천센터 운영 실태와 함께 센터의 올바른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회진 기자 jhj@kihoilbo.co.kr

문제많던 강화 요양병원 화재 대응도 부실투성이

격리조치 불만 환자 불내자 자체 진화… 직원 1명 치료
방화시스템 먹통·119 신고도 외면… 160여 명 입원 중

<속보>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환자까지 격리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병원<본보 7월 9일자 19면, 18일자 39면 보도>이 이번엔 화재로 대형 참사까지 빚을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요양병원은 10여 년 전 사위의 사촌 여동생인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영남제분 사모님' 윤길자(68·여)씨에 대한 재판에서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낸 최모(63)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강화군 하점면 소재 A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오모(53)씨가 외출 후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징벌 차원의 격리 조치됐다가 갖고 있던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병원 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소화기 5대로 자체 진화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다행히 낮 시간대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병원에는 16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300여 명을 꾀어 입원시킨 뒤 15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건강보험·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이 병원에서 격리실에 감금된 노숙인 2명이 숨진 사실이 드러나 최 씨 등 병원 관계자 10여 명이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구원파 헌금 유병언 일가로 빼돌린 총무부장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구원파 헌금을 빼돌려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원파 총무부장 이모(70·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원파 총무부장직을 맡으며 금수원 헌금을 관리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헌금을 빼돌린 뒤 유 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다.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60%
제습
시원하기만 합니까?
쾌적하기도 합니다!
많은 습기로 더 무덥게 느껴지는 장마철,
습도 센서로 늘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주는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이라면 걱정 없습니다
한Q제습으로 장마철에도 쾌적하게
이렇게 또 한 번 바람을 일으키다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모델명 : AF18HVWD1WK
에너지 소비 효율 : 에너지 프론티어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14년형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❶ 아이스 딤플로 더 강력해진 초절전 회오리 바람
❷ 바람문 조절로 눈에 보이는 절전 효과
❸ 습도 센서로 늘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주는 한Q제습
2014 NEW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2014 NEW
김연아 스페셜 퀸
모델명 : AF16HV*(C/F/V)H3WK
에너지 소비 효율 : 에너지 프론티어
삼성전자
SAMSUNG